급구 법구

불법에 뜻을 두어 세속을 멀리함은
부귀와 공명 얻어 즐김이 아니었네.
거룩한 지계(持戒) 속에 하루를 살지언정
파계한 몸이 되어 살기를 원치 않네.
-자장율사-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실상선원 천목사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320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웃종교와의 대화

23일 오후8시 서울 종로성당.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스님 신부 목사 교무 수녀 정녀 그리고 각 종교의 신도들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물감을 풀어 붓을 잡은 화가가 되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마련한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원로와의 대화'. 이 날은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초청되었다. 각 종교의 수행자 교역자,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도 등 60여명이 종로성당 강당을 메웠다.

원로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이웃종교의 어른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 구도자로서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이웃종교에 이해를 넓히고 자기 종교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도들이 이웃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해소하기 쉽지 않다. 서점에 들러 책을 들춰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15분 정도의 기조강연 후 문답이 이어졌다. 이런 기회를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1시간으로는 너무 짧았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성타스님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이미 지니고 있는 불성과 내가 합일되어 욕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신앙 대상은 부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내 마음의 부처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시는 착한 벗(善友)이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불상의 종류가 왜 그리 많습니까?"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래되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중생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제시했으며, 불상도 이 과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가 준비한 사찰음식을 시식하며 이 날의 잔치를 끝맺었다.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는 6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오후 7시30분~9시30분) 열린다. 월요일엔 이웃종교 이해 강좌, 수요일엔 원로와의 대화와 종교문화 소개로 진행된다.

정성운(취재 1부 차장)

장 군 죽 비

◇한국불교 해외 포교의 빛과 그림자. 그림자: 봉사 활동 등 사회 참여 소극적. 빛: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 중심 이동. (2면)

◇생명존엄! 사형제 폐지로 구현하자. 세속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비의 이름으로 용서 못할 일은 없다. (8면)

◇'신흥사 불교대학' 개교. 교계 최초로 거사들의 자발적 발원에 의해 설립된 불교대학. 생활불교의 열매 동해가에서도 수확. (11면)

◇부드러움은 능히 강함을 이긴다. 관세음보살의 현신 비구니 스님들,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에 큰 역할. (23면)

"해방 이후 첫 교육불사 1956년 오대산 수도원"

탄허스님 인재 30명 선발 수선 · 간경 등 교육

김광식 박사 자료공개

비구 대처 싸움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화 직후의 불교계에 청정한 새 기운을 불어넣고 계 · 정 · 혜 삼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던 '오대산 수도원'의 이념, 행적, 지향 등 그 내역이 자세히 공개됐다.

불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대석학으로 존경받았던 탄허스님(1913~1983)이 1956년 월정사에 설립한 '오대산 수도원'은 우수한 인재 30명을 선발하여 참선과 불교학, 동양철학을 가르치는, 수선과 간경이 한데 어우러진 해방 이후 최초의 승려교육결사의 산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윤창화 민족사 사장과 근현대불교사 연구가 김광식 박사가 1년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오대산 수도원에서 수학했던 스님들의 증언청취 등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계정혜 삼학 겸수를 통한 승려교육으로, 일제시대와 정화운동을 거치면서 더욱 노골화된 승가의 모순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오대산 수도원의 교육결사는 경허 · 한암 스님에게 이어졌던 정혜결사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점에서 탄허 스님의 열반 18주기(1983년 6월 5일 입적)를 맞는 오늘날의 승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이다.

탄허스님은 오대산 수도원의 원훈을 "신원견고(信願堅固) 길라무법(吉羅無犯) 정혜쌍수(定慧雙修)"로 정하고 철저한 믿음과 계율의 준수, 선정을 통한 지혜의 실천을 목표로 해 자체적 지속적인 내부 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코자 하였으며, 이 시기의 교육을 토대로 하여 이후 25년에 걸친 〈화엄경합론〉 등 기념비적인 역경 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수도원은 2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월정사에서 비구대처 싸움이 재연되고,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1957년 겨울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탄허 스님은 수도생 일부를 이끌고 삼척 영은사로 수도원을 옮겨 3년을 마저 채워 교육결사를 수행해 냈다.

김광식 박사는 "오대산 수도원은 정화운동에 대한 성찰의 식에서 비롯된 교육결사로, 정화의 목적이 사찰점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도량에 보다 청정한 사람을 들이고,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왜곡, 파행된 수행풍토를 바로잡으려는 탄허스님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교육도량"이라고 밝히고 "스님은 대부분의 강의를 직접 맡는 등 헌신적인 봉사와 열의로 승풍 진작, 청정 종단 재건을 원대한 목적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오대산 수도원이 현대 조계종사에서 도제양성, 교육불사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박사는 "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념적 기초로 삼은 오대산 수도원은 경허 · 한암 스님에게 이어졌던 정혜결사의 현대적 변용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도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종단차원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더라면 불교계가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관련기사 3면



스님과 신부님의 간곡한 기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를 염원하는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가 24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회원 1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동성당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3보1배 기도순행 시위를 했다. 수경스님과 문규현신부는 3보1배 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보는 탐진치 3독을 극복하자는 상징행위이며, 속진의 도회지 한복판을 가로질러 엎드려 올리는 한차례의 절은 생명경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없다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엄숙한 참회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새만금 개발 반대" 각계 1445명 선언

정부, 순차개발 확정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시민 · 사회 단체와 학계 노동계 문화 · 예술계 등 사회각계 인사와 노벨상 수상자, 국제환경기구 대표 등 1,445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중단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새만금 개발은 세계최대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생명의 가치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 · 환경 · 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 순차개발 방식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를 완공하되,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만경강 지역은 당분간 수문을 열어놓고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도난문화재 신고 보상 검토"

金대통령, 종교대표 오찬서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거나 도난당하면 전 민족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문화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도난문화재 등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종교계 대표들로부터 △남북 화해 · 협력 관계의 지속 △4대 개혁과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문화재 훼손과 도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정대스님은 특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5~6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문화재 전담수사요원을 양성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은 경제강국이 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민족의 화해 · 협력을 추진하는 두 가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종교계가 국민의 화합과 남북 교류 ·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성운 기자

"남북 공동행사 열자"

6 · 15선언 1주년 추진본부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23일 서울 운니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6 · 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측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민족화해협의회에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종교 · 사회단체 대표 17명이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겨레 대합창(6월 15일 여의도공원 문화의광장), 남북 종교 · 정당 · 시민 · 사회단체 공동회의(=, 63빌딩 국제회의장), 통일박람회(6. 14~17. 여의도공원)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정성운 기자

4개 종교 '환경회의' 창립

정보 공유 · 환경연대 활동

종교계 생명 ·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등 4개 종교, 13개 환경단체는 22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수경스님) 창립식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간 정보공유와 종교환경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종교환경연대는 이날 창립식에서 △3개월마다 종교환경포럼 개최 △7월 종교환경활동가 워크숍 개최 △지리산 및 부산지역 네트워크 포럼 개최 △환경문제 공조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종교의 가르침은 자발적인 가난과 청빈 그리고 무소유를 기반으로 깨달음과 영성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통합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된 종교환경회의는 지난해부터 종교단체들이 지리산댐 건설 반대운동,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등을 함께 전개하며 조직적인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창립하게 됐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18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잠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포,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잠매, 베개, 원삼띠, 면포,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함나무 박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特品이상)

품 명	구 성	재 질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포함
삼베 一品	남 20종, 여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심후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포함
삼베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特品	남 20종, 여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비롯로 제작한 고급 수직직물으로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엄선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세	남 20종, 여18종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재래식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염색로 엄선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포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맞춤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해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사 설

'종교환경회의' 에 거는 기대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쾌적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신앙처럼 여기며 살아온 삶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과 물과 허공이 온전할 수 없으며, 거기에 기대어 사는 인간과 뭇생명의 목숨을 이어갈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22일 '종교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인들이 종교의 가르침인 자발적인 가난과 청빈, 무소유의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삶의 대전환에 있듯,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주체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환경회의의 출범을 반기는 한편 왜 지금에야 뜻을 모았는지 뒤늦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과 많이 소유하는 것을 발전이며 행복으로 여겼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과 소비의 신화는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화와 전쟁을 가져왔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와 뭇생명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 방안은 종교환경회의가 발족하면서 밝힌 참회문에 나와 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자연이 나의 가장 소중한 벗임을 깨달아 댐 개발, 골프장 건설, 에너지의 과다 소비 등으로 인해 죽어갈지도 모를 수많은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의 파괴가 곧 삶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삶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삶의 전환은 곧 만물에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의 체현이며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환경회의 발족을 계기로 불자들 스스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정진의 서원을 새롭게 다지길 바란다. 아울러 사찰과 교회의 대형화, 고급화에 대한 반성도 뒤따라야 할 줄 안다.

해외사찰 불교세계화 창구

조계종 사회부가 지난 주 '해외사찰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5개 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응답한 사찰이 38개에 불과해 설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해외 사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처지에서 보면 형편을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해외 사찰은 매주 1~3회 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포교를 위해 참선 교육과 경전 교육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도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번 결과에서 그래도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포교의 대상이 교포에서 현지인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포교 나아가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반갑다. 불교의 세계화는 현세의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5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설문에 응한 사찰은 38개에 불과했다. 아직도 종단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그 동안 종단사태의 여파는 해외 사찰에도 미쳐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38개 사찰을 제외한 많은 사찰들은 설문에 응할 여유조차 없이 어렵게 사찰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종단은 물론 고국의 불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차제에 해외사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종단 차원에서는 해외 사찰을 대상으로 포교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속 교구본사의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 해외포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해외에 나가 있는 스님들도 종단과 소속 본사에 대한 귀속감을 높여야 한다.

왜,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 하면 티베트와 일본의 불교를 얘기하는지 물어야 하고, 그 답을 이제는 내놓아야 할 때이다.

해외 포교 '현지인 중심'

참선 · 경전위주 週 1~3회 법회…지역활동은 저조

조계종 38곳 설문조사

조계종 사회부가 23일 발표한 해외사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사찰은 참선과 경전 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찰 현황조사는 지난 2월 16일~4월 30일 사이 125개 해외 사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8개 사찰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찰이 매주 1~3회 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포교를 위해 참선 교육(36%)과 경전 교육(32%)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도는 적극적이라는 응답이 33%, 보통 또는 여러 이유로 소극적이다는 응답이 67%로 나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교 대상이 교포 중심에서 현지인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히 교포를 주요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40%), 현지인과 교포(37%) 또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20%)이라고 답변했다. 청소년, 고아, 양로원 등 특정한 계층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찰도(3%) 있다.

해외 사찰의 조계종단에 대한 요청 사항은 재정 지원(40%), 종단과의 원활한 교류(21%), 스님 또는 법사 파견(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응한 사찰은 7곳을 제외한 32개 사찰이 단독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지스님은 대부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탑골공원 현장 조사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과 사무국장 법현스님 등이 21일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23일 서울시에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관한 조계종 입장' 제하의 공문을 보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원각사탑의 영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만평 박 구 원

부처님 품으로 오세요…

3급 승가고시 10월 시행

고시위원장 법산스님…승랍 10년이상 대상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24일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5차 고시위원회를 열고 10월말경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3급 승가고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시위원회 위원들은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무비스님에 이은 제2대 고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방법에 따르면 91년 1월1일 이후부터 94년 12월31일 까지의 사미(니)계 수지자를 1차 대상자로 분류하고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승랍 10년 이상된 스님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방식의 고시 산림을 시행하고, 95년 1월1일 이후 사미(니)계 수지자는 2차 대상자로 분류, 2008년부터 시험방식의 승가고시를 시행한다.

한명우 기자

사찰 오수처리시설 조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 의무대상 13개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를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242평 미만의 254개 사찰중 203개 미설치 사찰에 대해 2002년부터 국고예산반영 지원 등의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와 통일' 토론회

민족공동체본부 내달8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 본부장 정념, 집행위원장 명진 양산)는 창립 1주년을 맞아 6월 8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통일토론회를 연다.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화해'를 대주제로, 이번 토론회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학담스님의 기조발제(불교사상에서 전환의 논리와 민족통일운동)와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권혁범 대전대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정체성' 세미나

조계사서 10월22일 열어

6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선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 세미나가 10월 22일로 연기됐다.

조선불교조계종 창립 60주년에 즈음해 세미나를 준비해왔던 조계종 기획실과 조계사는 세미나 일정을 변경한 이유를 조계사 대웅전 낙성식 60주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제도개혁위 출범

첫 상임위 열어…법령 · 의제 정비 논의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21일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 등 종단의 총체적 개혁에 본격 나섰다.

태고종 제도개혁위원회가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위원장 법장스님과 상임추진위원장 자월스님 등 모두 10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상임위 회의에서 △종단의 정체성 현양 △비현실적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각종 법령 정비 △시대상황에 맞는 의제 의식 및 계율 정비 △종단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종단의 기구 및 조직 정비 △승려교육 등 향후 제도개혁 방향과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제도개혁위는 특히 종헌을 비롯해 교육법과 계단법, 증회법, 그리고 총무원장 선거법 등 제반 종법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혁위를 상임추진위원 15인 및 1백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종회의원을 기본적으로 참여시키고 각 교구종무원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제도개혁위는 향후 위원 선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일주일에 2회씩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6개월 12시간 신도교육

10월부터 전국사찰 확대

신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21일 종무회의를 열고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해 지난 18일 발표했던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통일된 신도기본교육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자들은 △불자 예법 및 사찰의 이해 △불교의 이해 △부처님 생애 △불교기본교리 △불자의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 기본교육을 6개월 동안 12시간 이상 받아야만 수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원은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라 신도기본교육교재인 〈불교입문〉을 전국 본말사에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9월까지 전국 50개 사찰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0월부터 전국 사찰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촉구 결의문

새만금 갯벌을 생동하는 생명의 장으로 놔두어라!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들 작정인가? 새만금 갯벌이 정부당국의 무리한 간척사업 강행으로 인해 죽음의 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갯벌은 물을 만들고 정화하며, 수많은 생명이 생동하는 살아 숨쉬는 땅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섯 갯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동아시아를 횡단하는 철새들의 기착지이자,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자연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수많은 해양생물의 보고이다. 이러한 새만금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막아 농지로 만드는 것은 서해 연안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시화호의 경우처럼 인간계의 생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을 막아 얻어지는 농지는 2만 8천3백ha이지만, 각종 개발과 건축으로 사라지는 농지는 1년에 3만ha이다. 새만금 갯벌은 1만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새만금, 시화호 등 전국 20여개 간척사업을 위해 사라진 산이 전국적으로 15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담수화시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판명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저 2조 7천억원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에 이른다는 생태경제연구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려는 총리실과 전라북도, 정치권의 모습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개발이라는 확연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환경, 종교, 사회단체들의 거듭되는 밤생농성과 단식, 항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행진을 강행하려는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정책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자연과 인간은 한 몸,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간척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시행하라.
■ 개발위주 국가정책에서 보전과
생명살림의 국가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 불기 2545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

본사주지연합회 결의사항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관하여 자연환경과 국익을 위하여 신중히 연구 · 검토하여 심사숙고하라!

– 불기 2545년 5월 15일

본사주지연합회 참석자 일동

수덕사 주지 김법장, 봉선사 주지 황일면, 백양사 주지 석다정, 송광사 주지 현봉, 마곡사 주지 진허, 화엄사 주지 종걸, 쌍계사 주지 통광, 은해사 주지 법의, 신흥사 부주지 석마근, 대둔사 주지 보선, 법주사 주지 지명, 선운사 주지 법현, 통도사 주지 신허, 동화사 주지 성덕, 월정사 총무국장 원행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조계종 총무원 입장과 중앙종회의 결의와 본사주지 스님들의 결의를 전폭 지지합니다.

– 불기 2545년 5월 16일

해인사 승가대학 · 송광사 승가대학 · 운문사 승가대학
동학사 승가대학 · 봉녕사 승가대학 · 청암사 승가대학
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

목어

한국의 수학 교육



한국 교육의 파탄은 주로 수학 교육 때문이다. 유별나게 계통성, 단계성을 중시하는 수학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량 배출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은 수학의 본질을 왜곡한다.

2000년 9월 미국 교육부는 '다음 30년을 위한 수학과 과학 발전 체계를 말한다'는 목적으로 작성한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를 발표한 바 있다. 60년대 초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소련에 패배했을 때 수학교육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를 한 바 있다. 정보화의 진행은 수학의 의미를 되묻게 한 것이다. 수학은 이처럼 인류문명사상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서구문명의 원천인 희랍문명의 기본이 수학에 있었다. 산업혁명을 뒷받침한 것은 뉴턴, 라이프니찌의 미적분학의 발명이며, 그것이 과학기술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정보화 혁명은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과학이다.

수학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길러준다. 또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국민의 지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수학교육의 강화와 일반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서구에는 전통적으로 이성을 중시하여 수학을 학문의 기초로 여겨왔고, 지식으로서의 수학보다는 창조성과 합리성 함양에 힘을 기울여 왔다. 한국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해 왔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과거시험을 위한 암기 중심의 것이었다. 지금도 수학 교육은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이며 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 철학,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 등과 관련해서는 생각하는 일조차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수학은 입시에 앞서 국력이다" 라는 인식은 것의 없는 것이다.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수학 교육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김 용 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정화운동 모순 해소 '교육불사' 추진

'오대산 수도원'과 탄허스님

일제의 식민지불교의 잔재 청산과 한국불교의 전통회복이라는 명분을 갖고 출발한 불교정화는 그 추진과정에서 반불교적인 행태의 노정 공권력의 개입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정화의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화운동에 대한 성찰과 함께 불교계에 청정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탄허스님은 1956년 4월 월정사에 오대산 수도원을 설립했다. 수도원은 왜곡 · 파행으로 흐르는 수행풍토를 선교쌍수의 교육으로 바로잡으려는 교육결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식 박사가 탄허스님의 열반 18주기를 맞아 완성한 '오대산 수도원과 탄허스님' 제하의 글을 발췌해 소개한다.

수도원 명칭앞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차원 불사 증거

● 수도원 설립배경과 대상자

1955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오대산수도원의 '수도생 모집(승속불문)' 광고가 실렸다. 이 시기는 그 해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 개최, 종권 인수, 집행부 선출 등 전국적으로 이어진 사찰 인수작업이 일어난 때이다. 불교의 비구측이 도량은 대거 확보하였지만 이를 맡아 운영할 청정한 스님이 부족했다. 이러한 때 탄허스님은 정화운동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지를 수도원 설립으로 관철시켰다. 다양한 교육내용과 5년의 기한을 설정한 오대산 수도원은 명칭 앞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붙어있고 당시 수도원생 선발시험을 총무원에서 치렀다는 것으로 보아 종단 차원에서 추진했던 교육불사였다.



◇탄허 스님

또 그 자격을 대교 졸업자, 또는 육경(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이기) 수료자, 대학졸업자로 했다. 일정한 지적 수준을 갖춘 엘리트를 대상으로 이들을 잘 교육시켜 불교계의 지도자급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승속 불문으로 했고 비구니스님 뿐 아니라 재가 여성도 동참했다. 다양한 공부를 거친 대상자를 교육시켜 승려로 출가시키겠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 실제로 재가불자로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1~2년후 거의가 출가의 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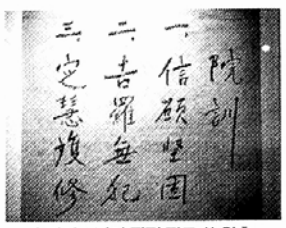
새벽부터 밤중까지 좌선 · 논강 · 울력 등 쉼없는 교육일정

● 수도생의 교육과정

생존스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 드린후 좌선, 공양, 논강 수강, 중식, 예 복습, 등사, 울력, 청소, 저녁예불, 좌선, 자유학습, 취침 등 엄격하게 짜여져 실시됐다. 또 영가집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 등 불교학은 물론이고 노자 장자 주역 등 동양철학을 배웠으며 수도생중에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에 의한 외국어 특강도 있었다. 대부분의 강의를 탄허스님이 맡았는데 스님은 이때의 강의를 토대로 하여 후일 〈화엄경합론〉등 각 경전의 번역과 출판을 했다고 한다. 또 토요일 오후에는 '순강(巡講)'이라 하여 외국어뿐 아니라 문학, 헌법개론, 사회 경험 등 다양한 특강도 준비되었다.



◇오대산 수도원에서는 승속을 불문한 인재들이 모여 탄허스님 지도하에 공부했다. 재가불자들은 1~2년후 거의가 출가했다.



◇탄허스님이 직접 짓고 쓴 원훈.

● 수도원의 원훈

수도원의 원훈은 "신원견고(信願堅固) 길라무범(吉羅無犯) 정혜쌍수(定慧雙修)"로 이는 수도원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표다. 신원견고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고 원을 확고히 세우라는 의미이고 길라무범은 계율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혜쌍수는 정과 혜를 균등히 지켜 선수행을 통해 나타난 지혜를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다.

● 수도원의 해체와 재기

수도원 해체의 결정적인 요인은 비구 대처 갈등이 월정사에서 재연되어 대처측에서 월정사 주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수도생들의 경비 일체를 사찰에서 대고 있었는데 당시 월정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 도저히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탄허스님은 1958년 가을, 수도원을 비교적 재정이 넉넉했던 삼척 영은사로 옮겨 재건을 꾀하게 된다.

영은사에서의 교육결사는 별 무리없이 3년을 채웠다. 수도생들은 불교 경전은 물론 유교경전까지 깊이 섭렵했다.

탄허스님 대부분 강의 경 · 율 · 론 등 불교외 외국어 · 동양철학 특강

오대산과 영은사 수도원에서 공부한 인물들은 조계종 총정 혜암스님, 문학평론가로 유명했던 김운학스님, 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배도원스님,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월정사 시은스님,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스님, 만화, 법해, 법등, 혜공, 소요, 초연, 일관, 인상 스님, 아동문학가 박용열씨 등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21일 첫 상임위 회의를 가진 태고종 제도개혁 위원회.

태고종 제도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개혁위' 출범 첫 회의 "97년 실패 거울삼자"

태고종이 종단의 총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종단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법장)'를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21일 첫 상임위원회의를 갖고 향후 제도개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혁위는 비합리적인 종헌종법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분담금 징수, 기구조직, 교육과 계율, 의제, 법계 등도 재정비하는 등 대체적인 골격을 잡고 세부안에 대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에는 종회의원 전원과 각 교구에서 3명씩 1백명이 동참한다. 또한 대표기구인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를 거쳐 각계에서 수렴된 개혁안이 수시 논의되고 공청회를 거쳐 조정된 안을 오는 11월 정기종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은 지난 95년에도 종단의 총체적인 발전을 모색할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안을 추출해 중앙종회에서 통과까지 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도 태고종은 '마지막이라는 위기감'으로 종단을 침체에서 구할 전반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였지만 일부 중진, 원로들의 거부감과 개혁을 주도할 당시 집행부가 97년 좌초하는 바람에 결국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전례 때문에 이번 태고종의 제도개혁 시도를 보는 교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다. 우선 개혁을 주도할 집행부가 얼마만큼 종도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현 집행부는 아직 완전한 화합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분규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순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80회 종회가 무효"라는 사정원과의 입장차도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성향도 모호하다. 상임위원회의가 매주 2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계파의 대표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파의 입김이 강할 때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개혁안의 도출과 수렴이 과연 될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화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기득권자들의 주도아래 일방적으로 강행될 때 또 지난번과 같은 불발탄이 되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개혁불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태고종이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제대로 된 개혁을 실시할 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는 전적으로 태고종도들의 관심과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경숙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중앙 신도회 | 전국 신도회

통합논의 진통

원칙공감 방법엔 이견

양분돼 있는 조계종의 두 신도회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통합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15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중앙신도회는 25일 현재까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중앙신도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5:5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전국신도회 명칭 존속, 양측의 임원 전원 사임 등을 조건으로 통합논의를 벌이자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최 연 사무총장은 "전국신도회가 제시한 한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통합하는 방법은 전국신도회가 자진해산하고 중앙신도회로 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종법상의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유명무실한 전국신도회가 전국신도회 주장대로 5:5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무게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새 임원 선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전국신도회측의 조건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신도회는 신도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가불교가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신도회로의 흡수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국신도회는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논의는 계속해 진행할 방침임을 내비치고 있어 통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명우 기자

통일정토로 이끄는 큰 수레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1주년 기념 통일토론회

귀의삼보하옵고
그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성원해 주신 스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 그리고 내외의 여러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민족을 통일정토로 이끄는 큰 수레의 역할을 다하고자 남북교류 및 통일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불교의 사상적인 이론 모색과 불교 역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통일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불기 2545(2001)년 6월 8일(금) 오후 2시 - 6시

장 소 한국일보사 송현클럽(본관 13층) 메인홀

주 제 불교의 평화 정신과 남북화해

토론회 일정

❖ 개회식 및 기조발제
· 총재 격려사 :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본부장 인사말 : 정련스님

❖ 기조발제
· 학담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
"불교사상에서 전환의 논리와 평화통일"

주제발제 및 토론 사 회 자 : 서진영 (고려대 교수)

발 제
· 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지정 토론 · 권혁범 (대전대 교수) ·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책임연구위원)
· 고유환 (동국대 교수) · 김광용 (한양대 교수)

문 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화 : 02-720-0531 팩스 : 02-720-0532
관심 있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회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통일부, 불교신문, 불교방송, btn

일주문



만일 염불회서 법문

녹원 직지사 회주는 6월 6일 오전 10시 30분 청계산 정토사 '만일염불경사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능인선원 수계법회

고산 쌍계사 조실은 6월 2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능인선원 법당에서 보살계 수계법회의 전계대화상으로 참석한다.



불국사 수계산림법회

태현 수미산 불국사 주지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분당 불국사 극락보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지장보살 점안법회

리선행 흥성 대승사 회주는 6월 9일 오후 2시 윤4월 지장재일을 맞아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31일 월드컵 디너쇼

김흥국 축구사랑모임 회장은 31일 저녁 7시30분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월드컵 디너쇼를 개최한다.



印 가니스와르 스님 강원 순례

"한국과 인도불교의 수행과 교리를 가르치는 승가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한국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22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가니스와르 스님(인도 대열반사 주지 · 사진 왼쪽)은 인도 쿠시나가라에 추진되고 있는 한 · 인 승가교육센터 건립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일깨웠다. 이날 성관 스님(인도 대한사 주지)과 동행한 가니스와르 스님은 "승가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50여 만 평의 부지는 이미 확보됐다"면서 "승가교육센터는 한 · 인 수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열반사에서 수행했던 성수 스님(정읍 유점사 주지)의 정진하는 모습에 한국불교를 남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가니스와르 스님은 6월 중순까지 운문사, 해인사 등 전국 사찰의 승가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6월 7~9일에는 정읍 유점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사리 친견법회에도 참석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장미속 법향 그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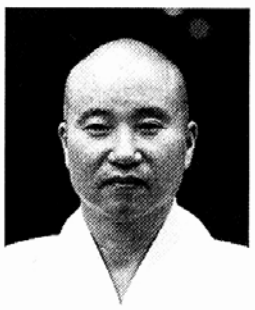
Focus

활짝 핀 장미꽃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미소는 더욱 자비롭다. 경남 창원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7백여 평의 장미원에 활짝 핀 120여 종의 장미와 함께 부처님과 포대화상 일곱 분이 모셔졌다. 경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재완 법사(43)가 16년 전부터 가꾸어온 장미원 내에 부처님과 포대화상을 봉안하면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장미의 아름다움과 함께 진하고 깊은 법향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055)253-0108 천미희 기자



조계종 제2대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

"수행 – 포교 겸비한 교육정책 펴겠다"



"오늘날 대학원 이상의 지식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승려의 질적 향상은 승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를 원만히 치르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24일 조계종 고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무비 스님에 이어 제2대 고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의 중요성 때문인지, 이에 대한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에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승가교육의 체계를 바로 잡고 질적 향상을 꾀하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고시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승가교육의 확고한 체제는 불교의 위상강화를 뜻하는 것이고, 스님들이 사회지도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결요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3급 승가고시는 바로 그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님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산 스님은 수행과 포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시민 고통 줄이는 자비경찰 지향"

전국경찰불교회 초대회장 김중겸 치안감



"신심 가득한 신행단체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자 경찰들을 하나로 엮어낼 전국경찰불교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중겸 치안감(54).

그는 19일 '전국경찰불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소모임에서 "경찰들의 발심과 신행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먼저 연합사무소를 경찰청 본청에 두고 각 지방경찰청, 경찰학교를 지부로, 경찰서를 지회로 하는 전국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경찰불교회는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경찰을 중심 축으로 한 전국 단위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지론이 구체화 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경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의경에 대한 포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가 16일로 예정된 전국경찰불교회 창립법회를 10월경으로 옮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준비위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가운데 경찰불자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중겸 회장은 행시 15회 출신으로, 총리실, 상공부, 경제기획원을 거쳐 경찰에 투신, 영등포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쳤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부총재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장애아 순찰차 후송 지원"

상락원과 자매결연 김충현 파출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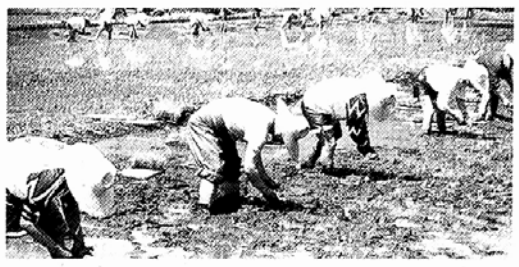


"안암파출소는 상락원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긴급상황 때는 순찰차를 병원까지 후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일 승가원(이사장 종범스님) 산하의 상락원 장애아동생활시설(원장 탄호스님)과 자매결연식을 가진 성북경찰서 안암파출소 김충현(49 · 경위) 소장은 "두 기관이 상호 돈독한 관계를 유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제과점의 남는 빵을 모아 전달하고 1000원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선원 신도인 김 소장은 99년 성북경찰서불자회를 창립, 1년간 회장을 역임했으며 아들인 김재윤(성균관대 행정학부 2년) 군은 성불회 부회장으로 불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인 불자가정을 꾸리고 있다.

상락원 장애아동생활시설은 98년 6월 22일 설립, 중앙승가대 기원학사(전 동국대 기숙사)를 개 · 보수한 시설에 현재 80여명의 중증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관공서와 장애아동 복지시설이 자매결연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도사 사중스님 모내기

통도사(주지 신허)는 24일 부방장 약산 스님, 주지 신허 스님, 선방의 수좌 스님들, 강원 학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내기를 실시했다. 경내 농지 2백마지기에서 모내기를 한 신허 스님은 "공양물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우는 귀한 노동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영숙씨 위덕대에 장학금 1억원

아당 前 진각종 통리원장의 둘째 딸 박영숙 씨(65 · 행원심인당 신교도)와 사위 김행록 씨가 가족대표로 15일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박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아당 전 통리원장의 법명을 따서 '아당(雅堂)장학금'으로 명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부산 감로사 천일기도 입재식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25일 참회기도회관 신축을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회관 건립에 한마음이 되어 천일기도를 잘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회기도회관은 126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4년 완공 예정이다.



파라미타 '디지털 청소년 문화' 세미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지홍)는 1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디지털시대 청소년 문화의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홍 스님을 비롯해 2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이학주(명성여고), 양동효(광동여고) 교법사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분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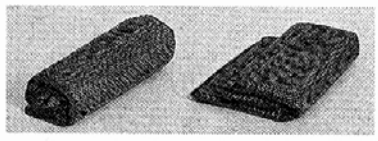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진성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청 옥



백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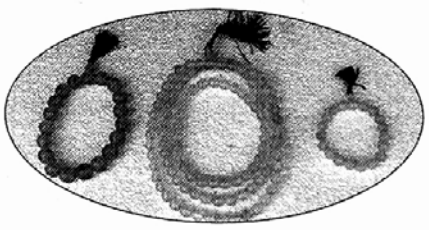


황 옥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직장불교연합회 지역 기반 '튼튼하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금융단불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경찰불교회 등 직장 · 직능 연합회들이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6월 1일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연합법회를 여는 것으로 지역 조직을 점검해 온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올해부터 연합회 차원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전국 단위의 임원 수련회를 년 2회로 정례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산악인연합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조직에 대한 상세한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지역 조직간의 유대와 발전을 모색하는 '연합회'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산악인연합회 김대원 사무총장은 "현재 지역 산악인회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합회 차원에서 이들 조직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산악인연합회의 올 연합법회는 6월 24일 직지사에서 개최된다.

올해 10월경 창립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될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중에서 불자회가 없는 곳을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있다. 창립총회 이전까지 지방청 및 경찰서 모든 곳에 지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당초 6월 16일로 예정된 창립총회를 10월로 옮긴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6월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경찰불자회 창립법회가 열리게 된 것이나, 6월 말경 부산지방경찰청 불자회가 '봉불식'을 올리고 제2 도약을 다짐하는 것도 전국경찰불교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현재 전경찰불교회는 전북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청에 경찰불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MF 영향으로 위축됐던 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영장 김윤하)는 대구와 부산 지역 금융 불자회 지원을 시작으로 기지개 켜고 있다. 금융단불교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대구 지역은 수협을, 부산 지역은 농협과 한빛은행을 중심 축으로 삼고 두 지역의 금융계 불자회의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단불교연합회는 지역 금융 불자회 결성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등반대회, 순례 및 합동법회, 수련대회 등의 전국 모임을 통해 지역 조직을 관리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도 지방에서 개원된 병원에서 활동하는 불자회를 연합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병원불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불자회를 구성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순천향구미병원, 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국립공주정신병원 등 전국 9개 병원. 현재 병원불자연합회는 소식지 〈감로수〉를 보내는 한편 해당 병원의 불자 의사 및 간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병원에서 신행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북돋우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불자연합회는 올해 첫 연합법회나 수련대회를 개최할 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국산악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일 경북 안동 흥은사에서 개최한 연합대법회 모습.

전국경찰불교회 10월 이전 5개 지방청 불자회 창립

금융단불교련 대구 · 부산 은행불자회 조직 확대

전국산악인련 소식지 발행 · 수련회로 유대 강화



서울 동산불교회관 개관

100일 기도정진 · 수계법회 · 각종 강좌 개설

서울의 불교 1번지인 종로에 첫 불교회관이 24일 개관됐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0년 숙원사업인 '동산불교회관'(사진) 건립을 마치고 24일 오전 11시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연건평 250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염불법당, 교육회관, 대법당, 세미나실 등을 갖춘 동산불교회관이 불자들의 마음 공부와 신행의 도량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산불교회관은 서울 지역 불교진흥의 교두보로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는 도량이 될 전망이다.

동산반야회는 불교회관 건립을 기념해 31일부터 100일 기도정진을 진행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육바라밀 대법회 및 수계식도 봉행한다. 이외에도 동산불교회관은 매주 월 · 화요일에는 경전연구, 수요일에는 교리강좌, 목 · 토요일에는 불교대학 강좌 등의 개설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데 한 몫을 담당한다. 오종욱 기자

법주사서 지도자 연수회 개최

대불어 6월2~3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는 6월 2일~3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31차 전국어린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 2회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심성개발 및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 찬불가와 율동 강의, 아동의 심리 및 문제아동 상담 지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름 연수회에 이어 겨울 연수회를 이수하는 레크리에이션 과정 이수자들에겐 (사)한국여가교육협회에서 자격증을, 상담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겐 불교상담개발원의 수료증이 주어진다.

정여스님은 "전문화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어린이 법회의 질을 높힐 수 있고 보다 참신한 법회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www.sesag.or.kr)를 통한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 (051)808-4569 부산=천미희기자

우리 모임에선

원우회 정락스님 초청법회

원우회는 23일 불교회관 1층에서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정락스님은 '천수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원우회는 조계종 재가종무원의 신행과 화합을 위해 창립돼, 자원봉사, 경전읽기, 신행결사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삼보회 용화스님 법문들어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불자회인 삼보회는 21일 보문사에서 정기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불자가 알아야 할 부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용화스님(중화사 주지, 지도법사)의 법문 및 교리 강좌를 들었다.

KBS 불교硏 구인사 순례

KBS불교연구회는 26, 27일 천태종 총본산인 충남 단양 구인사에서 사찰 정기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순례에 동참한 중앙 및 지방 회원 90여 명은 철야 정진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발우 공양 등 사찰 예절을 배웠다.

경향불자회 장곡사 참배

경향신문불자회는 26일 충남 청양 장곡사를 방문해 전통사찰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20여 명의 회원들은 하대웅전(보물 제181호)의 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을 친견하고, 대진스님(장곡사 주지)의 법문을 들었다.

전북 산악회 연합등반

전북불교산악회는 20일 오전 8시부터 전남 곡성 동악산 일대에서 제2회 '전주 · 남원 · 김제 연합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전주 룸비니 산악회에서 준비한 이번 대회에서 지도법사 견진스님(흥복사 주지)은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거사회 의료봉사

서울 조계사 거사법회는 23일 신도회관에서 혈당 및 혈압측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최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신도회관을 방문한 200여 명의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의 혈당과 혈압을 무료 측정했다.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광문고 댄스팀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청룡부대 장병들.

서·경 교사불자회 해병 위문

전국교사불자회 서울 · 경인지부는 13일 강화군 하점면 무애원을 방문해 해병장병 위문잔치를 열었다. 이번 위문잔치는 군포교에 매진해 온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을 후원하고, 청룡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서울 · 경인지부 교사불자회원 이외에 경기지구 지도교사협의회 회원 38명, 부천남초등학교 멜로디언 합주단, 부천공고 댄스팀 NDO, 부일중 댄스팀, 은행고 밴드단 Baccchus, 광문고 댄스팀 Revonution 등도 동참해 1, 2부로 진행된다. 위문잔치의 무대에 열기를 더했다.

또한 장병가족 30여 명은 점심 공양 준비를 자청하고 나서는 등 위문잔치는 시종일관 흥겨운 놀이와 훈훈한 인정미로 넘쳐났다. 오종욱 기자

법륜스님 '일상의 행복' 법문

재가연대 NGO 명상학교

참여불교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NGO 명상학교'(사진)를 22일 서울 법련사 시민선방에서 개최했다. 49명의 전국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좌에서 법륜스님은 '일상에서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와 격무에 시달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마음을 돌보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김원우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뜸뜨기 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이 무료 뜸뜨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뜸뜨기 서비스는 매월 1, 3주 화요일 두 차례에 걸쳐 선착순 5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복지관에서 실시한다. (02)458-1664

▲무료 영화 상연회=양정청소년수련관은 26일 오후 3시 7층 소극장에서 무료 영화 상연회를 개최한다. 5월 청소년 달을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천국의 아이들'이 상연된다. (02)868-0750

강좌

▲불교의식=해동불교법음대학은 제39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6월 11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교육과정은 기본 · 중급과정(각 3개월), 작법반(6개월)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02)741-0495

▲불교강좌=능인불교대학은 제32기 불교강좌를 개설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오전 · 오후반으로 매일 진행되는 불교강좌에는 불교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사찰예절, 생활지혜 등 6개 과목이 개설된다. 수강료는 6만원. (02)577-5800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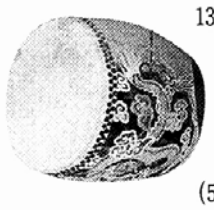
▲합창단원=조계사 청년회 보리수 합창단은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20세부터 46세까지의 불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보리수 합창단은 남 · 여 혼성 4부 합창단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공연한다. (02)720-5410

▲공부방 아동=자양사회복지회관은 햇살공부방에서 공부할 아동을 모집한다. 햇살공부방에서는 주 5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미술, 컴퓨터, 글짓기, 인성발달 등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이며 학습비는 5만원. (02)458-1664

▲독거노인 후원품=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야외나들이 후원품을 모집한다. 모집 물품은 과자, 음료수와 같은 간식거리와 생활필수품, 내의 등이며, 24일까지 노인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02)2203-3677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보문사, 법고, 운판, 목어, 권선문



1300년 고찰의 보타 낙가산 관음성지, 나한도량 보문사는 혜동 제 1의 관음성지로써, 영험과 기도정진의 대가람으로 면모를 일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격(寺格)에 맞는 불교의식용 사물(범종,법고, 운판, 목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람 균형에 부족한 불교의식을 봉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1975년 대통령의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께서 당시 동양 최대의 범종(5t)을 희사하시어 범종각과 범종은 갖출 수 있었지만, 범종과 어울리는 법고, 운판, 목어는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서 의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타 낙가산 보문사에서는 범종에 걸맞으며 후대의 문화 유산될 법고, 운판, 목어를 갖춰 사격(寺格)의 가람균형에 맞는 사물(四物)의 불교 의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제불자님들께서는 범종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갖춰진 사물의 봉행의식으로 말미암아 신심이 더욱 고양되시고 가이없는 부처님 가피의 무량수 무량복의 선공덕을 지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문사 제반불사를 위하여 화주 해주실 고마운 보살님을 초청 합니다.

◇ 설반제자 : 100만원 이상 ◇ 동참제자(가족) : 50만원 ◇ 일반제자 (1인) : 20만원

온라인 : 국민은행 252-01-0003-040 예금주 보문사

관음성지 나한도량 보문사 삼사성지 순례안내

강화 보타 낙가산 보문사는 1366년전 신라 선덕여왕 4년에 회정대사가 창건하신 천년의 고찰로써, 나한이 터를 잡고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관음성지 나한 도량입니다.

윤사월을 맞이하여, 삼사 순례지로 택하여 누구나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 삼사순례지 :
낙가산 보문사
→ 전등사
→ 정수사
■ 숙식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32-933-8271-3



주소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 032)933-8271~3, FAX 032)933-8270

강화도 보타 낙가산 관음성지 나한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 강지만 합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니 기뻐요"

신행현장 | 코미디언 이정표씨 자비행

지난 11일 경북 영주 (사)장수한방병원 앞마당에서 한바탕의 잔치가 벌어졌다. 지역 노인 250여 명이 찾은 이날 잔치에서 코미디언(희극배우)의 익살에, 혹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 아닌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재미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미디언 이정표입니다. 오늘 영주 지역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모시게 된 것도 부처님의 인연법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경로잔치는 연예인 공연과 노인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이 경로잔치의 시작에서 회향까지에는 이정표(48) 씨가 있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사)장수한방병원 '경로잔치'의 준비와 진행을 이 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신심이 있으면 신명이 나고, 신명이 일면 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로잔치의 무대에 섰지만, 저는 이 무대를 단순한 무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비행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10여 명의 연예인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많은 이익도 바라지 않는다. 굶지 않을 정도의 돈 외에는, 그가 무대에서 마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회향한다. 그렇다고 이 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연예인들이 이를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활동을 쭉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원 교도소 위문이며 적십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경로잔치 단골사회
환경보호 캠페인
교도소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앞장

단의 공식 명칭은 환경보호연예인협의회 하남 · 광주지부(일명 하광지부)이다. 여기에는 코미디언 이하마, 국악인 이선민, 김경하, 가수 현당 씨 등 1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이젠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노인들이며 재소자와 청소년들이 있고, 또 저를 보며 발심(發心)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



◇20년간 노인들의 곁에서 살아온 이정표씨. 그는 경로잔치와 함께 환경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연예인이지만 무명의 생활을 10여 년 넘게 했고, 그 와중에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의 어머니는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충주에 원법사라는 개인 암자를 짓고 수행할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원력이나 수행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님께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자 내게 닥친 어려움은 쉽게 인내할 수 있었지요."

그 후 전국만담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이 씨는 KBS 공채 코미디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이 일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씨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마다 꼭 전을 부치고 떡과 홍어회를 마련하는 아낙의 설레임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을 벌면 가난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는 이정표 씨. 매년 도안사(주지 혜자)에서 열리는 경로잔치를 10여 년 째 맡아온 그지만 초창기 수십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석했던 잔치가 커져서 지금은 20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볼 때 자비행의 참맛을 알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번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라앉게 되고, 사무치던 그리움도 시들하게 되어 그럭저럭 견딜 만 해진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리라. 한편으로는 내성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념하게 되거나 감정이 바래진 것이다.

'좀더 냉각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약방문이 제법 유효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다.

요는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이다.

그러나 실은 '시간이 약'은 아니다. 그 말의 뜻은 다름아닌 '시간을 벌고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우리들 의식작용의 속성을 꼬집은 것이다.

요는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이다. 가령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 왔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그래,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그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채찍을 든 것뿐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구태여 시간에 기댈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생각 돌려 보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의식세계란 따지고 보면 서푼어치도 안되는 지식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 번 받아들인 지식은 좀체로 수정하지 않으려는 고집까지 부린다. 그걸 고정관념이라 한다. 고정관념은 또 반드시 아집 · 아만을 동반한다. 그러다 보니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량분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참지혜의 길을 제시하셨다. 욕심 · 성냄 · 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고, 그런 삼독심과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해탈에 이른다 하셨다.

관념이란 실은 실체가 없는 허공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관념의 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기도 하여, 그 관념에 걸려서 스스로를 넘어뜨린다. 우리들은 허공에 갇힌 사람,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 셈이다. 한 생각 돌려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은 불법 속에 있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소원 비는 기도 그만하고 마음닦는 정진 합시다"



혜우스님
의정부 호암사 주지

우리 불자들은 가슴속에 항상 마음의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멀리 있는 강이나 바다, 산에서만 부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내속에 있는 불성은 아득히 멀어져만 가고 어느 누가 불교에 대해 물으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경전에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악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심(心)즉 불(佛),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고, 우주 진리를 깨치는 진아를 발견하는 것이 성불의 첩

관세음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남 위한 삶 서원

경이라는 것이지요. 법구경 제 1게송을 보면 '마음을 근본삼고 마음이 주(主)가 된다.' 고 설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의 말씀에도 '마음하나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하나 깨치면 부처이다' 고 했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이 있어서 육로를 걸기는 어렵고 수로를 배로 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염불 간경 기도 주력 참선 등 자신의 근기에 따라 여러 방향의 문을 통해 해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오늘은 업장소멸과 선업을 쌓는 윤 사월에 많이하는 기도에 대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불자의 기도는 마땅히 마음 닦는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방법도 소원을 비는 행태를 지양하고, 마음 닦는 기도로 시급히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원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참다운 자기전환을 위한 공통적인 바람을 뜻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발원이 아닙니다. 이웃과 인류전체를 위한 기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지어 있어서 나 혼자만은 살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지지요.

발원 가운데 불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외치는 것이 사홍서원일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제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부의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발원이지요.

또 관음기도와 지장기도가 있습니다. 관음기도를 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가서 힘껏 도와주겠다' 고 발원하십시요. 관세음보살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을 갖고 베풀며 살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기도 발원도 '어렵고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내 힘껏 도우겠노라' 라고 다짐하십시오.

기도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원을 다져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참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행 캘린더

5월 31일 (목)

■불교상담개발원 세미나=불교상담개발원은 봉선사에서 6월 1일까지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성상담, 바로 보고 바로 받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02)737-8803

■부산정토회 초청 강연=부산정토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우리의 몸, 생명 그리고 먹거리'를 주제로 푸른누리공동체 최한실 대표의 초청강연회를 마련한다.(051)557-6372

6월 2일 (토)

■능인선원 수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대법당에서 고산스님을 전계화상으로 모시고 제31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2)577-5800

■터사랑 답사여행=터사랑은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과 궁중유물전시관, 금융박물관 등을 답사한다.(02)725-1284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1시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3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051)808-4569

■청년정토회 덕유산 등반대회=청년정토회는 '2001 백두대간 덕유에서'를 주제로 전국청년불자등반대회를 3일까지 덕유산에서 개최한다.(02)587-8994

■MBTI 집단활동 강좌=자양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를 주제로 'MBTI 집단활동' 강좌를 실시한다.(02)458-1664

6월 3일 (일)

■동산반야회 육바라밀 대법회=동산반야회는 10일까지 육바라밀대법회 및 수계식을 봉행한다. 매일 오후 2시,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에 시작된다.(02)732-1206

■석불선양회 친견법회=한국석불선양회는 충남 아산 봉담사 약사여래불(보물)과 인근 지역의 미륵부처(민속자료)를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02)996-7945

6월 5일 (화)

■옥수복지관 태교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11시 박성화 박사(원광대 미술대학원 강사)를 초청해 '태교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시작한다.(02)2282-1100

6월 6일 (수)

■정토사 법회=청계산 정토사는 만일염불결사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031)723-9797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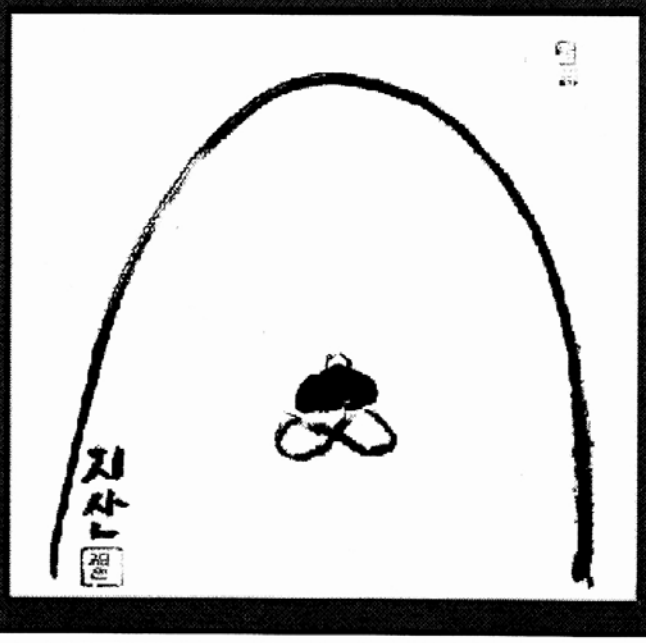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중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히말라야 지산암 인등불사

⁂일인당 한 등 · 월 오천원
⁂동참구좌
· NEPAL GRINDLAYS BANK LIMITED
· 102-0514136-251 EUNG LIP LEE
· 국민은행 062-21-0578-835 이 응 립
⁂우편주소
· P·O BOX 4930 KATHMANDU NEPAL
⁂지산암 위치
· TAPOBAN NAGARAJUNA HILL. KATHMANDU
⁂HOTMAIL
· JEESAN HIMALAYA@HOTMAIL.COM

네팔국 히말라야 지산암 암주 지산 합장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박태원 교수의 38

불교로 보는 신생

기업 현장의 노사 관계를 오래 겪은 후배가 들려준 경험담이 흥미롭다. "한 번은 임금 교섭 대화가 꽉 막혀 답답했는데,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노조측 불편한 심기의 원천은 명함에 있었지요. 단체 명함을 사무직 직원들에게만 만들어 준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막후 대화에서 그 사실을 감지하고는 즉각 생산직 직원들에게도 명함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자 임금 교섭은 너무도 쉽게 타결되더군요."

후배는 이 경험에서 한국인의 강렬한 평등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리 있는 통찰이다. 한국인들은 현실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평등 의식이 유별나게 강한 듯 하다. 이 평등 선호의 잠재 성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를 읽는 코드로서 이 평등 의식은 충분히 주목할 만 하다. 한국인의 강한 자기 실현 욕구, 혁명적 체질, 좀처럼 꺾이지 않는 투지의 원천을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질 때마다 삭발하며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온몸에 새기는 제자. 비록 30 초반의 나이지만 그의 머리 속에 사진 찍듯 새겨 넣은 한의학 서적의 양은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스승은 제자 한 사람 제대로 키우는 일에 평생 공부의 보람을 느끼고, 제자는 스승이 평생의 체험을 정리하여 틔워주는 한의학의 혜안에 전율하듯 몰두했다.

졸업 후 작년부터 부산에서 개업한 제자는 평소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중이다. 짧은 기간 안에 보여준 그의 눈부신 의술 활동이 부산 한의학계의 화제가 될 정도이다. 그런데 몇 일전 찾아온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주위의 모함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뒤에서 행하는 음해는 그가 기대하는 인간적 양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인간을 향해 반듯한 큰 뜻을 가다듬고 있는 그로서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중생심의 비열함이 곤혹스러웠다. 왜곡된 평등 의식에서 분출하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그러나 이 평등 의식이 왜곡되면 곧 추한 얼굴이 등장한다. 남 잘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기심이 그것이다. 앞서 가는 사람 발 걸기, 흠집내기, 깎아 내리기, 음해, 모함, 비방이 기승을 부릴 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왜곡된 평등 의식을 만나게 된다. 한국인의 역사는 출중한 인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데 인색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호소력을 지닌다.

아끼는 한의사 제자가 있다. 강인한 집념과 의지, 목표에 몰입하는 놀라운 집중력과 요즘 보기 드문 남성적 의리 정신이 불심(佛心)과 어우러져 여러 모로 돋보이는 선근(善根) 학인이다. 존재 성숙에 필요한 과감한 결단력과 곧은 마음을 지닌 멋진 청년이다. 그 수승한 인간적 품성과 자세가 의도(醫道)에서 제대로 열매 맺기를 바라며 진주 한의사 어른께 인사시킨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흔쾌히 제자로 거두어 주신 스승의 제자 키우기와 제자의 공부 하기는 참으로 보기 좋았다. 평생 공부에서 터득된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스승, 새로운 과제가 주어

타인이 잘되는것 보고 기뻐하기란 쉽지않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비방은 강한 그를 흔들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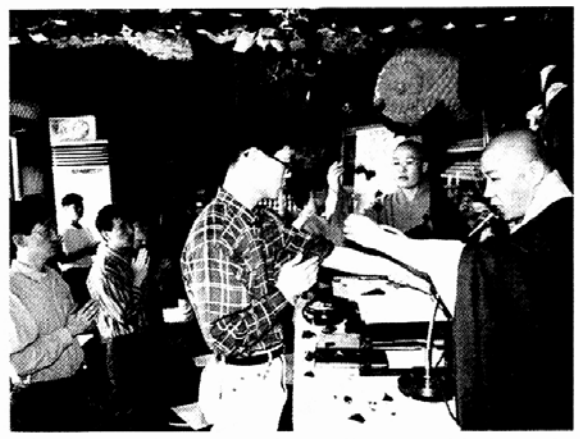
중생은 뿌리 깊은 인간 혐오 성향을 품고 있다. 그 타자 부정의 면모를 부처님은 '성내는 마음(嗔心)'이라 일컫는다. 증오, 시기, 질투, 원한, 공격 등은 모두 이 타자 혐오의 표현들이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일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일이 더 쉬워 보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생심의 습벽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탈의 경지에 다가서기 위해 계발해야 할 '제한 없는 네 가지 마음(四無量心)'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 기뻐해 주는 마음(喜心)'이다. 한국인 특유의 평등의식이 시기심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길, 이 땅에서 인재를 보호하고 키우는 길을 희심수행이 열어줄 것이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삼보 귀의 보살의 길 가겠다" 다짐

참불자의 길 수계



◇신행단체나 사찰의 수계법회에 참석해 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자.

"법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아직 수계를 안 받아서 법명이 없어요."

불자라면 누구나 오계 내지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자칭 불자(佛子)라 하면서도 계(戒)를 받지 않아 법명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자들을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왜 계를 받아 지니지 않았을까? 이들이 다른 불자들 보다 신심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계가 무엇인지, 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계(戒)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정신이 계에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불문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계를 받아 지녀야만 한다.

계란 불자로서 삶을 지탱해 주는 질서이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적 명령이 아니다.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불자 스스로 삼보에 귀의한 제자가 되어 보살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향한 물러섬이 없는 삶의 결단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오계(五戒)는 재가 불자로서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짚어 놓은 것이다. 첫째 살생하지 말 것, 둘째 도둑질하지 말 것, 셋째 간음하지 말 것, 넷째 거짓말하지 말 것, 다섯째 술 마시지 말 것. 이렇게 다섯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이 다섯가지를 항상 유념하며 행동해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

보살계(菩薩戒)는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서원한 보살들이 가지는 계율이다. 재가불자들이 이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차원의 수행에서 나아가 대중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포교사의 역할, 자리이타의 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불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수계는 평생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걸까?

김정림(서울 성산동)불자는 "어떤 분은 평생 한번만 받는 것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도 하는데 무엇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 차례 계를 받으면, 법명도 여러 개가 될 텐데 그건 또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삶 지탱하는 질서 무상보리의 근본

인환(동국대 명예교수)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번 계를 받아 지녀 그 계를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디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하다보면 마음따로 행동따로 일 때가 더 많지요.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망각할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수계법회에 참가해서 자신을 추스르고, 불자의 사명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스님들이 설하시는 겁니다. 또 법명은 한가지만 지니되, 이미 법명을 받았다면 수계 전에 스님께 알려 계첩에 그대로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계를 받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하는 수계법회에 참여해야 한다. 초심자를 위한 오계 수계법회는 신행단체의 입문과정 수료식 때나 일반 수계법회에서 행해지고, 보살계 수계법회는 매년 봄가을 경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리므로 이때를 이용해 계를 받으면 된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⑮ 진소경에 대한 답서(1)

중생의 병 '부처와 중생' 나누는 분별심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그대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둔함을 아는 이것도 둔한가?' 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하다는 생각만을 간직하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되지만,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됩니다. 날카로움을 취하고 둔함을 버림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일체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라면 법(法)은 평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한 것이 모두 허망하며, 진실을 찾는 것이 잘못된 짓입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이 결코 날카로움을 취하고 둔함을 버리는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한다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바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허망한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알음알이를 내게 되며, 주관(六根)이니 객관(六境)이니 오온(五蘊)이니 십팔계(十八界)니 하는 것에 사로잡혀 헛된 환상을 조작해내며 끝마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가운데는 스스로를 근기가 둔하다고 여겨서 형식적 신앙생활에 만족할 뿐,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로 공부해보려는 발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선을 공부해서 견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공부에 만족해버리고, 견성은 늘 저멀리에 있는 다가갈 수 없는 이상(理想)으로만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꼭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근기가 둔하니 날카로우니 하는 것은 분별하는 생각이다.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동일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은 이런 저런 생각이라는 생멸하는 상(相)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사실 즉 비상(非相=空, 機用, 움직임)이다. 근기가 둔한 사람이나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나 생각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생각한다는 사실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는 움직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며,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아이큐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즉 무상하게 변하는 생각의 내용이 어떠하든, 생각하고 있다는 불변의 사실이 바로 마음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상근기와 하근기가 따로 있으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으며, 방편과 실법(實法)이 따로 있으며, 수행과 깨달음이 따로 있다. 그러나 생각의 내용(相, 色)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생각은 곧 생각한다는 움직임(非相, 空)뿐인데, 그 움직임에는 상근기도 하근기도 부처도 중생도 방편도 실법도 수행도 깨달음도 없다. 이처럼 모든 차별상(差別相)은 동시에 어떠한 차별상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이다. 그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는 '색(色)과 공(空)이 동일하다' 하고, 〈금강경〉에서는 '상(相)이 곧 비상(非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둔근기 중생이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중생이 앓고 있는 병의 본질은 바로 '자신은 중생이고 부처는 따로 있다'고 하는 분별심(分別心)일 뿐, 다른 병이 없다. 유마거사는 중생이 앓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불교의 진리에 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침묵을 지킴으로써, '지금의 나' 이외에 어떠한 부처도 따로 없다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을 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로의 내가 부처임을 머리로 믿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가슴 깊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공부가 한 고비 넘어가는 것이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55-7555

"큰 정신 큰 대학"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200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야간]
(02)2260-3097~8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원서교부 및 접수
2001.5.30(수)~6.8(금) 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14(목)13: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지도자과정 ◆
• 수강과목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 조계종 대덕 법계 품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 2001.6.15(금)14:00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02)2260-3606~7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전공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 공연예술 · 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 한국음악 · 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원서교부 및 접수
2001.5.23(수)~6.5(화)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9(토)10: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석사과정 : 논술 및 면접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 모집분야 : 문예창작 · 공연예술, 영화영상예술 · 불교미술, 한국음악 · 문화재,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암 주지급 스님
· 언론 · 문화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모집분야 관련 학원장 우대
· 기타 모집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전형일시 · 방법, 원서교부 · 접수일시 : 연구과정과 동일

불교문화대학원 [경주 · 야간]
(054)770-2394
모집과정
지도자과정(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석사과정은 2002학년도 전기 모집예정임
지원자격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종사자 및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원서교부 및 접수
2001.6.4(월)~6.14(목) 9: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1.6.16(토)14:00, 본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이렇게 들었다

배아복제

"수태되는 순간 생명체"

"먼저 수태하게 되면 점차 연유가 엉키듯이 되고 드디어 우무버섯 같아지고 뒤에는 형상을 이룬다. 머리와 목이 먼저 생겨 차츰 손과 발이 생기고 온갖 뼈마디가 각각 생기며 터럭과 손톱, 발톱, 이빨이 형성된다. 만일 어머니가 온갖 음식과 갖가지 음식과 요리를 먹을 때 그 영향으로 살아 나가니 태를 받는 목숨의 근본이니라. 그로써 형체는 이루어지고 모든 감각기관을 완전히 갖추어 태어나게 된다" <중일아함경>

생명윤리기본법 시안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생명공학계는 배아복제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치료법임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종교계는 인간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처님은 인간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체임을 밝혔다.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설한 〈입모태경〉에 의하면, 여인이 월경을 하는 것과 생명이 두발이나 네발 다발 무발 등 어떤 생명체로 입태하는 것 그리고 수태한 후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7일 단위로 변화하는 모양과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 의하면 태아를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낙태와 유산같은 헛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이 많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다"고 밝히고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부모를 죽인 죄이고 그 다음이 태아를 죽인 죄"라고 설했다. 부처님께서 불자오계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행을 첫째로 강조하신 것도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낙태건수는 150만건, 하루 4000건, 20초당 1명이 죽어간다.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이다.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쾌락풍조와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까지도 무참히 짓밟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런 습에 스며든 인간이 성 윤리와 가정의 윤리도 짓밟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낙태의 원인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인공배아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살생을 불러옴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뿐 아니라 미물까지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죄업의 결과는 윤회의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아가 명백히 한 생명의 모습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필요에 의해 죄의식 없이 절단하거나 필요한 장기만 적출한 뒤 버려 버리는 것에 대해 인정하자는 논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김원우기자

사형제 폐지해야 할 여러 이유

불자 세상보기

생명존중 어긋나
폐지 세계적 추세
"참회와 용서통해 반성하는 삶으로"



법장스님
수덕사 주지
생명나눔 실천회 이사장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인류의 최대 화두는 인권이라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과 함께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많은 진전을 가져왔고, 공산독재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고 그에 따른 인권 신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선진제국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앞다투어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 130여개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선언한 상태이다.

사형이란 중죄를 지은 자에 대한 단죄의 방법이긴 하나, 더러는 이념과 사상의 기준에 따른 피치못할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단죄를 목적으로 한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짓는 행위도 될 수 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이 제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抑止)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에 의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국가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종식시킬 권리가 없으며, 사형제도가 종신형제도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범죄 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즉, 오판 가능성이 있는 법의 기준에 맞추어 인간의 생명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문명사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불교는 이미 2500년 전 교단 출범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인권선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는 개유불성(皆有佛性)사상을 제시해 유정중생은 물론 돌과 바위 같은 무정중생까지도 생명을 가진 절대 평등의 귀중한 존재로 인식해 왔다.

불교의 생명사상은 이렇듯 인간은 물론 무정중생의 생명까지를 경외의 대상으로 받들도록 했다. 반면 세속 현실은 인간 자신을 기만하는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팔조법금법에서부터 죄를 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형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이제 인류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낡은 제도이다. 인간의 죄는 종교적, 심리적으로는 물론 세속적으로도 참회와 용서를 통해 반성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처단하는 것은 우주심리를 거스르는 반역이다.

불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五逆罪)를 범해도 처절한 참회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비록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실정법의 교도(敎導) 역시 같은 이념이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참회와 용서를 통한 반성과 화해로써 맺힌 것을 풀고, 동체대비 사상에 입각한 불국정토가 구현되기를 고대한다.

열린마당

동국대 불교문화硏 세미나 **창조인가 진화인가**

인류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창조론과 진화론. 현대 유전공학의 성과인 생명복제 기술이 새로운 종의 창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 '창조인가, 진화인가'는 연기론의 관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망하고,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흥미있는 자리였다. 각각 창조론과 진화론을 옹호하는 김명현 교수와 추종길 교수, 연기법을 바탕으로 둘의 화해를 시도하는 이중표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 생명창조의 과학적 증거

"모든 생명체엔 DNA 설계도"



김명현 〈명지대 겸임교수〉

다윈 이후 약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이론을 밝혀줄 만한 뚜렷한 과학적 증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무언가 다른 형태의 동물에서 점점 변해와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다. 한 가지 종이 다른 종에서 진화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분명히 중간 단계 생명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반드시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중간 단계 생명체들에 대한 화석이 그 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던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론은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진화이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 역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과학적 증거는 다름 아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건물을 예로 들어보자. 건물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건물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지었을 것이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는 말이다.

생명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다. 바로 우리가 DNA 구조라고 부르는 설계도다. 이 말은 누군가 생명의 설계도를 개발하고 기록했다는 말이다.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들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과학적 사고로 분석하고 정리해 보면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설계된) 존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설계도를 이루는 정보가 DNA에 어떤 원리로 기록되어있는지에 대한 원리적 이해와 정보의 집적도가 지적설계능력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인식을 갖는 것은 창조자의 존재에 대한 자연과학적 인식의 중요한 뼈대가 될 것이다.

■ 생물진화의 유전학적 배경

"진화 방향 인위적 유도 가능"



추종길 〈중앙대 생물학과 교수〉

생물진화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다윈이다. 다윈은 새로운 종은 이전에 존재하던 종의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 새로 생성되며 모든 생물종은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물학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멘델의 유전법칙이 완성되어지면서 유전자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왔으며 라마르크와 다윈의 진화설을 멘델 이론을 기초로 현대적 진화이론으로 제시하는 신진화론자의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의 이론과 방법이 날로 발전됨에 따라 생물집단의 변이 보유기구에 대한 연구에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 의해 유전자의 구조가 밝혀지고 나아가 유전자 산물인 단백질과의 관계가 분자 수준에서 규명되어졌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 과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화의 기구와 종내 변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심 가설로 되어온 네오다위니즘을 주장하던 학자들의 자연도태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련의 연구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다. 소위 분자 진화 중립설은 최근 분자 유전학의 새로운 관찰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1968년에 새로운 생물 진화의 한 가설로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전 세계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유전정보의 서열의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초파리 등 생명현상 연구에 이용되는 모델 생물 몇 종의 유전정보서열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인간 유전체에 대한 연구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의 기술은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유전자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체계의 유전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위적인 진화의 방향을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 연기론으로 본 진화론과 창조론

"적자생존 아닌 공생과 화합"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인도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라만을 창조신으로 생각한 바라문교와 정통 바라문교를 부정하고 나타난 자유사상가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대립에 대해 부처님은 이들 견해가 모두 인간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부처님은 중도 즉 연기법에 의지할 때 윤리적 실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자연과학의 진화론은 주장은 서로 달리하지만 인과론적으로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 부처님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직선적 일방적 인과론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기설이라는 새로운 인과론을 제시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사물의 인과관계를 직선적 일방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관계로 본다. 이것과 저것은 상호의존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것의 존재원인이 아니다. 이러한 연기설은 현대의 시스템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박테리아의 혼합물이다. 진화의 원리는 적자생존의 경쟁이 아니라 공생의 화합이라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생명이 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따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망각한 일이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명사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사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시스템 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 이론이 과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사유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인과를 상호관계로 본다면 과학과 인문학의 모든 모순 대립은 종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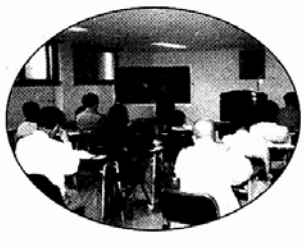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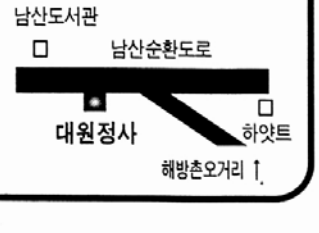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최봉수교수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숱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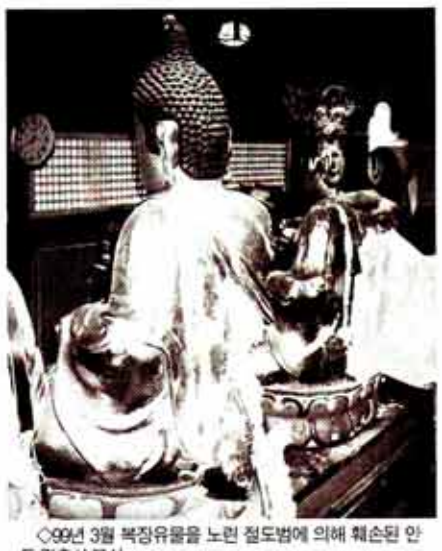
■ 연찬회원(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를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복장유물 현황파악 시급

관리허술 절도범 표적
예경대상 조사 어려움
종단적 합의 선결과제



◇99년 3월 복장유물을 노린 절도범에 의해 훼손된 안동 광흥사 불상.

"골동품 시장에서 복장유물은 주인이 없고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 밀매조직을 적발한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은 오늘날 사찰소유 비지정문화재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거나 시중에서 거래되는 불경류 대부분이 사찰소유 불상 복장유물인 것이 사실이다.

5월 초 경주 주사암 등에서 발생한 성보도난 사건처럼, 최근에는 문화재 전문절도범이 아닌 단순 강 · 절도범들이 복장유물을 노려 무분별하게 불상을 훼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복장유물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불상 안에 복장유물을 넣는 의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후기에 보편화된 전통이다. 불경을 비롯해 각종 전적과 의복,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의 기원을 담은 발원문 등이 포함된 복장유물은 불상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시주자는 물론 당시 신앙생활과 교리, 복식, 의례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조선 초기 불교학과 국어학, 서지학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월인석보〉(보물 제745호)를 비롯해 최근 적발된 문화재밀매조직이 갖고 있던 〈능엄경 언해〉, 〈해인사판당고중수발원문〉 등 귀중한 문화재 대부분이 복장유물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보 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해 관리 체계가 허술해 '손쉬운' 범행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복장유물. 한동안 사찰소유 불화가 주요 표적이었으나 성보박물관이 잇달아 문을 열고 각종 불화들을 소장하게 되면서 촘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복장유물에 절도범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불화가 일반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범행 대상이 복장유물로 옮겨진 이유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복장유물의 특성상 어떤 것이 봉안돼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범인을 검거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자료에는 지난해와 99년에 30건 47점에 달하는 성보문화재가 도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상이나 불화 정도만 파악됐을 뿐 복장유물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도난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 확인된 건수도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국보급 가치를 지닌 〈능엄경언해〉나 〈해인사판당고중수발원문〉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에서야 복장유물임이 밝혀진 것들이다.

복장유물에 대한 도난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문화재 관계자들은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황 파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대상인 불상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다'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불교문화재 보존 및 도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신앙적으로 예경의 대상이기에 범종단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총무원은 불상이 모셔진 전각별로 방범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선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계 한 문화재 전문가는 "문화재 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복장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황 조사가 필수적이다"면서도 "신앙적 측면까지 고려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보존처리대책, 보관시설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임진강 고구려 유적서 휴대용 금동불상 발견

삼국시대 쟁탈지였던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 유적인 호로고루성에서 금동불상(사진) 등의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은 25일 그 동안의 발굴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휴대용 금동불상 한 점. 가로 세로 4cm 정도 크기로 가운데 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을 넣었고 그 사이에 합장한 인물이 하나씩 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양식으로 볼 때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불상의 형태는 뚜렷하나 얼굴윤곽이 불분명해 오존상인지 삼존불의 협시보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형진 기자



◇안동 조탑동 5층전탑 주변서 출토된 신라 및 통일신라 기와들.

안동 조탑동 5층전탑 주변 삼국시대 절터흔적 찾았다

통일신라시대 전탑으로 알려진 안동 조탑동 5층전탑(보물 제57호) 주변에서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문양의 수막새와 담장, 주춧돌 등이 발견돼 이 지역에 삼국시대부터 절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안동대 박물관은 최근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5층전탑 주변을 시굴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문양의 수막새 3점과 절터의 담장 및 주춧돌 등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흙으로 빚은 소조불상과 연화문수막새 1점, 고려시대 기와 및 청자조각, 조선초기의 분청조각 등이 다수 발견돼 5층전탑 주변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때까지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동대 박물관 측은 "삼국시대 기와가 발견됐다는 것은 삼국시대에도 이 곳에 절이 있었다는 사실의 단서"라며 "절터 규모가 평지 가람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돼 당시 경주뿐 아니라 안동 지역에도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또 "절터가 시굴면적보다 훨씬 넓고 주변에는 가마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전탑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5층전탑 주춧돌 밑에 들어가는 적심석이 3~4겹으로 쌓여 있어 적어도 3차례 이상 중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탑 최상층부에서 '대정(大正) 4년' 즉 1915년이라고 새겨진 시멘트 벽돌이 발견돼 당시 일본인들이 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사용해 원형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조선초 사불회탱 등 중앙박물관 소장유물 지정문화재 신청 추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97년 3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당시 한국미술품으로는 최고가인 71만7천5백 달러(당시 6억3천만 원)에 사들였던 조선 전기 불화 사불회탱(사진)이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국보 ·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선 불교 중흥기인 명종 17년(1562)에 조성된 이 사불회탱은 조선전기 불화 자체가 국내에 귀한 데다 사불회탱으로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 구입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비단 바탕에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 등 사불(四佛)에 법회를 올리는 장면을 한 장면에 압축해 그린 독특한 형식의 불화로 크지는 않지만(90.5×74cm) 화기가 붙어있고 색깔이나 형태의 처리가 깔끔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명종 때의 세도가 풍산정의 부인 이씨가 타계한 아버지를 추모하고 조모와 자신의 수복을 빌기 위해 궁중화가에 부탁해 그린 탱화로 당초 강원도 상원사에 봉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해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유물 특별전 때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밖에 조선 세종 때 사신도인 '봉사조선창화시권' 조선 전기 제모임 그림인 '기영회도' 등 5점도 함께 지정 신청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중앙 및 지방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할 방침이다.

박물관 측은 "그 동안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훼손 우려 등 보존에 별 문제가 없어 문화재 지정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적 유물들에 한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인류구원 패러다임 평등과 회통사상"

박영의 교수 주장



"21세기 인류 구원의 패러다임은 불이(不二), 즉 무이무별(無二無別)의 평등과 회통(會通)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26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박경일 경희대 교수) 봄 학술대회에서 박영의 교수(충남대 · 사진)는 '소올 벨로우의 〈허공에 뜬 사나이〉: 자아와 소외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노장사상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벨로우의 소설 〈허공에 뜬 사나이〉에 나타난 자아와 소외의 문제를 불교와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고찰한 박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박 교수는 주인공 요셉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소외 문제의 핵심은 속박의 원인이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박의 근본 원인인 자신, 즉 '아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신의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독선을 떠나 나와 타자가 없는 '동체대비'로서의 빈 마음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한 회통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학술 단신

'종교문화 비판' 세미나

종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한국 종교문화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계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근대종교의 성격과 문제점'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 '종교성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개신교'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의로 진행된다. (02)554-0233

보조사상硏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은 26일 동국대 문화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제38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계에서 관심있게 다뤄지는 우리 학문의 식민지성과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심재관 강릉대 강사가 '우리 불교학의 식민성과 그 문제들'을 김정희 한국여성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생명여성주의와 모성애'에 대해 발표했다. (02)733-5311

근본불교 진흥원 **서울불교대학**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 Fax 02)588-8055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선원**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모 집 제 1기생

말이나 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이신 고타마 싯자의 참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집.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싸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진리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안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안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싸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계 품위를 수여함
- 국내의 어디든지 여래선원의 지원을 개원할 수 있음
- 선원 개원시 직접적(경제적 · 인적)으로 적극 지원
- 미안마 · 국제불교대학에 편 · 입학 할 수 있음
- 미안마 · 국제승가대학에 편 · 입학 할 수 있음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포교사(디플로마) : Dip(B.Dh) ; Diploma in Byddha Dhamma
- 교법사(학사) 과정 : B.A(B.Dh)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 선법사(석사) 과정 : M.A(B.Dh) ; Mastor of Art in B. Dhamma.
- 대법사(학사) 과정 : Ph.D.(B.Dh)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2) 입학자격
-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 · 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 각 지원에 자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 해외 유학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교육기간
- 불교기본 수료(포교사 품위) 과정 : 1년 (4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학사(교법사 품위) 과정 : 2년 (8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석사(선법사 품위) 과정 : 3년 (12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 · 미안마 국제불교대학교 공히 인증
- 불교학 박사(대법사 품위) 과정 : 4년 (16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 · 미안마 국제불교대학교 · 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증

4) 수업시간 주 3일(월, 화, 수) 중 주 1회 시간 선택 필히 참석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5) 입학식 2001년 6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해서 쉼 없이 정진하라!"
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선우들을 위한 시민 선방이며 쉼터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입 방 안 내

1) 입방자격
종교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불교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자

2) 제출서류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여권용 사진 2매

3) 원서교부 · 접수기간 :
2001. 4. 20~2001. 5. 25

4) 개원식 : 2001년 5월 31일(목요일) 10시 30분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던킨도너츠 점)에서 우측 100M(두란노 고시원 옆)

전통불화전문

海印佛教美術院

해인불교미술원은
장인정신으로
불국토를이룩하겠습니다



■ 전통탱화전문 ■ 시왕 조각품채색 ■ 개금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 문화원 빌딩
代 02)2265-0108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이제는 제14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이다. 여기서는 열 분의 보살이 각기 게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

"온갖 법들이 제 성품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 안다면 곧 노사나불을 뵈오리(了知一切法이 自性無所有니 如是解法性하면 則見盧舍那로다) /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보배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譬如暗中寶를 無燈不可見인달하야 佛法無人說이면 雖慧莫能了로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 받으면서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寧受地獄苦하야 得聞諸佛名이언정 不受無量樂하야 而不聞佛名이로다) /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없는 겁 동안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所以於往昔에 無數劫受苦하야 沉轉生死中은 不聞佛名故로다."

위의 두 게송은 서방의 승혜보살(勝慧菩薩)이 설한 게송이니 이는 자장스님(590~658)의 구도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송이다. 〈삼국유사〉 권3의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편에 "정관 10년(636)에 구법을 위해 당나라에 갔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하고 태화지변(太和池邊)의 문수석상에서 칠일기도를 봉행하던 중 꿈 속에 부처님의 정골사리, 금란가사와 함께 전해받은 게송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뒤의 두 게송은 서북방의 진실혜보살(眞實慧菩薩)이 설한 게송이다. 이는 제24 도솔게찬품에도 비슷한 사상(甘苦近佛)을 간직한 게송이 있다. '청량소'에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해탈이 빨라지기 때문이오, 즐거움을 받는 대신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반대로 윤회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受苦聞名 速解脫故 受樂不聞 反 淪故)."고 하였다.

다음은 제15 십주품(十住品)이다. 앞의 두 품은 바로 이 품을 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십주품은 예로부터 제26 십지품과 사상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장항에서 전제로 말하기를, "고통받는 중생의 귀의할 곳이 되어야 하나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 증대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니라(爲苦衆生하야 作歸依處니라 何以故오 欲令菩薩로 於佛法中에 心轉增廣하고 有所聞法에 卽自開解하야 不由他敎故니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중생들의 말하는 법을 한 말로 남김없이 연설하여서 그들의 제 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나니(一切衆生語言法을 一言演說無不盡하고 悉欲了知其自性하야 菩薩以此初發心이로다)

시방삼세 수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성문들까지 갖가지 미묘한 변재를 다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 보여도, /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 못하여 시방의 중생계에 가득 찼나니 뭇 지혜로 말해도 끝 못 내려든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이랴(去來現在十方佛과 一切獨覺及聲聞이 悉以種種妙辯才로 開示初發菩提心이라도 / 發心功德不可量이라 充滿一切衆生界하니 衆如共說無能盡이어든 何況所餘諸妙行가)."

위의 두 게송은 첫 번째인 발심주(發心住)에 관한 게송이며, 뒤의 두 게송은 열 번째인 관정주(灌頂住)를 종합결론하여 수행하기를 권하는 내용이다. 보리심을 발한 공덕은 마치 동해바다의 새우 한 마리가 고래와 같이 되려고 발원한다는 옛 고사처럼, 전쟁통에 눈을 잃은 자식의 눈을 뜨게 하려고 분황사 천수천안 관음상 벽화에 기도하던 신라의 아낙 희명(希明)처럼, 깊은 믿음으로 올리는 정성스런 기도와, 중생의 고통과 함께 하려는 보살의 마음이라야 가능하리라.(유사 권3 盲兒得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온갖 법 성품 없는 줄 알라

중생 고통 함께하는 마음이 초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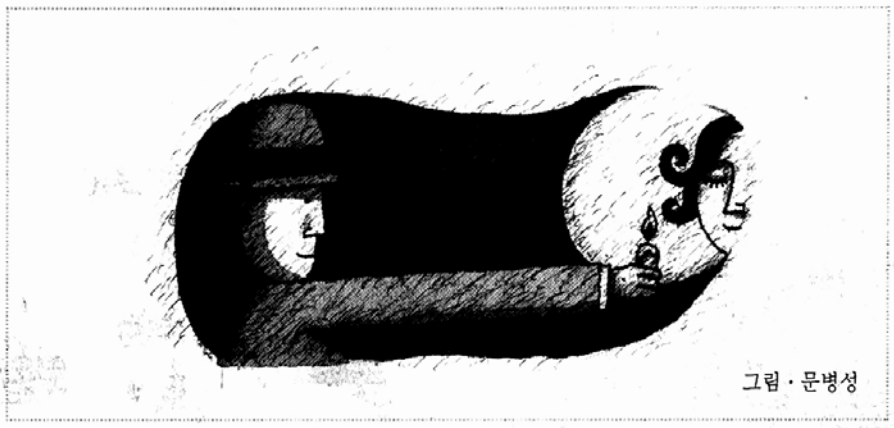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빛도 흡입되는 초밀도 공간

불교와 과학 〈29〉

진공청소기는 압력차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강한 흡입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청소기 안으로 빨아들인다. 비슷한 원리로, 중력에 의한 압력차가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땅을 향해 떨어지기도 한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1/6 밖에 안 되어 달 표면의 물체들은 지구에 비해 1/6 정도밖에 안 되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달은 물체를 표면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중력권의 범위도 그 지름에 비례하여 지구의 1/6밖에 안 될 것이다. 만약 지구보다 10배의 중력이 작용하는 행성이 있다면 지름에 비례하여 그 행성의 중력권의 범위는 10배 더 높고, 떨어지는 가속도도 10배 더 빠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우주에는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다. 초신성은 적어도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이 그 수명을 다해 죽어가면서 일으키는 일종의 대폭발이다. 대폭발을 하면서 그 별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이라는 잔해로 변한다. 중성자 별은 반지름이 10km 정도지만, 그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1000억 배나 된다. 중력이 1000억 배라는 말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지구보다 1000억 배 더 높은 중력권의 범위를 가지며, 동시에 물체는 1000억 배 빠른 가속도를 갖고 중성자 별 표면으로 물체를 흡입하게 될 것이다. 1000억 배의 중력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는 흡입력이다. 아마도 그 중성자 별 근처를 지나는 작은 별똥이나 아주 작은 우주 먼지까지도 남김 없이 빨아들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중력의 진공청소기가 될 것이다.

블랙홀은 중성자 별보다 훨씬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서 빛조차도 빨아들이고 마는 일종의 초고밀도의 작은 별이다. 고무 풍선이 바람을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뿜지 않는다면 그 고무 풍선은 두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나는 고무 풍선이 늘어나 점점 더 커지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고무 풍선 표면이 단단하여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안의 공기 밀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블랙홀은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은하계 범위 안의 우주 블랙홀은 빛까지도 흡입하는 강력한 중력으로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크기는 작아도 점점 더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어쩌면 무한의 밀도까지 진화하게 된다.

블랙홀

태양 10배 초신성 폭발때 탄생
삼천대천세계도 하나의 우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함께 쏘아 올린 벳포삭스 위성에서 1997년 12월 일회적으로 관측한 우주 감마선은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지구표면에서는 관측할 수 없고 우주 공간에서만 관측가능한 그 우주 감마선이 지니는 의미는 초신성의 대폭발에서 생기는 에너지 방출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블랙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 블랙홀은 중성자 별과 달리 폭발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기의 별 안으로 급속히 빨아들여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 낸다. 그 수축이 너무도 급속하여 빨려 들어가지 못한 많은 고온 가스가 확산되면서 주변의 우주 가스와 일으키는 충돌로 막대한 충격파가 광속의 속도로 형성되기도 한다. 관찰된 일회성의 감마선은 그때 나오는 에너지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물질들이 한 점으로 수축하여 블랙홀이 되는데, 우주에는 이와 같은 블랙홀이 수없이 형성되고 있다고 천체물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블랙홀의 존재는 비록 완전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우주의 범위가 단순히 인간이 관측 가능한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최근 들어 영국의 '휠체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질량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뱉지 않는 우주적 기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웜홀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웜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우주는 이 우주와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우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판명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주의 존재 양상이 지구가 위치한 한 모퉁이의 우주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는 대부분의 천체물리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시방세계에서 역시 우주는 모든 이에게 다 같은 우주가 아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의 수 없는 겁(劫)의 시간을 소요하는 우주 각각은 색법에 갇힌 중생들에게는 단견(斷見)의 잘려진 우주이지만, 부처의 눈에는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다. 반산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생의 우주는 처마 지붕이 다일 수 있지만, 부처의 청정 광명한 우주의 크기는 천 개의 태양과도 같다. 천년의 어둠을 한 순간에 밝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촛불이거늘, 천 개 태양의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달리 관심을 둔다면 천 개의 태양이 비추인 길이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도 그 같은 길을 촛불 하나만 갖고 걸어가기도 한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ak.sangji.ac.kr

부처님 자란 카필라성 네팔일까 인도일까

지구촌 불교 / 英·印 고고학계 논쟁

부처님이 나고 자란 성(城)인 카필라바스투(Kapilarastus)성의 위치를 놓고 영국과 인도 고고학계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최근 "네팔의 틸라우라코트(Tilaurakot) 지역에 카필라바스투성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영국 브라드포드대 커닝햄(Coningham · 고고학)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커닝햄 교수가 이끄는 조사단은 틸라우라코트 지역에서 기원전 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토기 등의 유물을 발굴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로부터 서쪽으로 17km 떨어진 틸라우라코트는 유럽 고고학자들이 카필라바스투 성지(城地)로 추정하는 지역이다. 유럽 학자들은 카필라바스투성, 즉 틸라우라코트에서 부처님을 잉태한 마야 왕비는 당시의 풍속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던 중 룸비니(Lumbini)라는 동산에서 싯다르타를 낳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인도 고고학계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투성이 맞다면 기원전 7세기 전후의 유물이 나와야 하는데,



◇카필라바스투 성지로 추정되는 틸라우라코트 지역의 모습.

英 "최근 네팔서 결정적 단서 발견"

印 "당시 동전 발굴된 인도가 맞다"

틸라우라코트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것"이라며 "카필라바스투성은 네팔의 틸라우라코트가 아닌 인도의 피프라하와(Piprahwa)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파프라하와 유적에서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유통됐다는 문헌상의 동전이 발굴되면서 인도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인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 논쟁은 급기야 네팔과 인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조사는 1880년 유럽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에도 네팔의 틸라우라코트가 카필라바스투성의 유적지라는 주장과 인도의 피프라하와 및 간와리아(Ganwaria) 일대를 카필라바스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다. 이외에도 카필라바스투성은 처음에는 틸라우라코트 지역에 있었지만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에 의해 파괴된 이후 피프라하와 및 간와리아 지역에 새로 세워졌다는 절충안도 있었다.

커닝햄 교수는 회색 토기 외에도 함께 발굴한 철제 아궁이, 적갈색 도가니 등의 유물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회색 토기로 인해 틸라우라코트 지역이 카필라바스투성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토기와 함께 발굴된 다른 유물의 연대를 밝힘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커닝햄 교수는 "다른 유물에 대한 연대가 밝혀지면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는 영국과 인도의 고고학계, 나아가 네팔과 인도의 자존심 섞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초시약(2개월 50만원), 초율주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지신왕기환(3개월 50만원)
[illegible](2개월 150만원), 유향진정(2개월 50만원), 유향보정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제조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 02)737-0696



◇속초지역 1백여 불자들은 스스로 2년제 거사불교대학인 불교대학을 세워 지난 23일 신흥사 속초포교당 원각사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신흥사 불교대학' 첫 입학식 현장

'설악불교 활성화' 거사 1백여명 모였다

시장 교사 의사 은행원 등 지역 지도층 '한자리'

속초지역 신행단체들 작년 통합법회 열며 교육시설 필요성 제기

지금은 너무나 귀에 익숙하고 그 수도 많은 불교교양대학.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거사불자들이 스스로 불교배움터를 마련해 전법의 중심지로 일구겠다고 발원한 이들이 있다. 속초 신흥사불교대학 학장 법장 스님) 첫 신입생 100여명이 바로 그들이다. 신흥사불교대학은 속초지역에선 처음으로 구성된 '거사불교대학'이다.

지난 23일 저녁 6시,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한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주지 정념 스님). 정장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한 두명 씩 눈에 띄기 시작한다. 불과 30여분만에 원각사를 메운 거사불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아는 관계다. 설사 모른다하더라고 한 사람 거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과 지역사회의 선후배가 아닌 불자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함께 부처의 길을 따르는 도반이란 새 인연을 맺었다.

현판 제작식에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 낙산사 주지 지홍 스님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이 바로 선지식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남에게 돌려주는 회향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봉식(LG프라자 사장) 씨의 발원문과 자기소개를 끝으로 입학을 마쳤다. 신흥사불교대학은 이렇게 돛을 올렸다.

이 '전법호'에 동승한 거사불자들은 속초를 이끄는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속초시장, KBS 속초방송국장를 비롯해 전 · 현직 교사, 의사, 공무원, 은행원, 언론인, 아파트관리소장 등.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다. 속초시청의 경우 15명이 단체로 입학원서를 낼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이들이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을 열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공통된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교를 가르쳐주는 곳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배움을 망설였던 불자들. 그러나 자신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자신들임을 깨닫고 불교대학을 만들겠다는 발원을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불교대학이란 큰 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신흥사 불교대학 입학식에 앞서 개최한 현판 제막식.

이번 거사불교대학은 사실상 신흥사 거사림회, 달마회, 법륜회, 선우회가 밀거름이 됐다. 속초지역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이 모임들이 친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몇몇 뜻있는 불자들이 지난해부터 통합법회를 열면서부터 재가불자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회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의지는 가시화되고 시작했고 이번이 첫 결실을 일궈낸 것이다.

대학 설립의 실무를 맡았던 김병우(변호사 사무장) 씨는 "설악불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신행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불교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불교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대학을 2년제로 운영하게 된 이면에는 포교사를 배출해 속초불교를 활성화하자는 숨은 뜻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에 교양대학 등록도 준비중이고, 초 중 고등부 불교학생법회는 이미 부활된 상태다. 생활불교 구현에 적극 나선다는 데도 거사불자들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주부불교대학,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법회, 사찰성지순례, 반야요양원 등 복지시설 후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의 프로그램도 불법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 불교의 근본정신과 의식, 생활 속의 불교와 신행생활 등이 주를 이룬다.

신흥사 불교대학이 여느 불교대학과 다른 점은 지역 스님과 법률, 의료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 격월로 실시하는 특강과 강의 전 108 참회 그리고 회장직과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불교대학 운영에 꼭 필요한 총무, 재무, 교무, 6개6바라밀의 조장직 만을 둘 뿐이다. 신흥사불교대학 설립에 산파역할을 했던 조동룡 씨는 "모두가 주인인데 회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회장 등의 직함이 많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멀어져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불교대학 설립의 가장 큰 의미는 불교포교의 사각지대인 속초지역에 본격적인 포교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불교대학에 비교해 신흥사 불교대학은 시설과 규모 그리고 강사진 등은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불법공부에 대한 열정과 설악불교 활성화에 대한 원력은 한낮의 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불교연합회 구성과 속초불교회관 건립이란 또 다른 원력도 내비쳤다.

불교대학에 입학한 거사불자들은 불법을 배우는 기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지금의 열악한 불교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혹시 타종교의 교세확장으로 불자들이 주눅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마음껏 공부하고 신행하는 도량이 있지 않은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스님과 도반도 생겼다. 설악산의 푸르름과 동해의 밝은 바닷물처럼 그들 마음속에도 용맹한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신흥사 불교대학
상임지도법사
정념스님

"대학설립 원력세운 거사불자들에 감사"

"속초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만해 스님이 독립을 위해 정진한 도량 백담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불자들이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비의 씨앗을 퍼우기를 바랍니다."

신흥사불교대학 상임지도법사를 맡은 정념(원각사 주지) 스님은 학생들이 문자나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스님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강의 전 '108배와 독경 수행'이다. 수행 즉 실천이 없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스님은 "신흥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이 불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늦게나마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거사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해 공부의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도법사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스님은 향후 속초지역 불교를 이끌 포교사 배출에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조계종 포교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스님은 "포교사 배출은 곧 속초지역 포교의 새 기원을 마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신흥사 불교대학
개교 산파역
조동룡 변호사

"또 하나의 서원 정규불교대로 승격"

단체나 모임이 구성될 경우 항상 산파역할을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신흥사불교대학의 경우 조동룡 변호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칭 '부처님 심부름 꾼'이라고 말하는 조 변호사는 "바늘에 실을 꿰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며 불교대학 설립의 공덕을 그동안 복지, 포교 등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오현(백담사 무금선원장) 스님을 비롯해 지역스님과 불자들에게 돌렸다.

그가 불교대학 설립을 발원한 것은 속초지역 불자들이 기복에만 치우쳐 불교의식과 교리 배우기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도 절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자였다. 지난해 10월 원각사의 6개월 과정 불교교양대학을 통해 의식과 교리에 눈을 떴다"며 "이번에 설립된 불교대학이 이러한 불자들을 줄여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6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토대로 2년제 과정의 신흥사불교대학 설립의 산파역할을 한 그는 또 하나 서원을 세우고 있다. 학생수를 200명 이상으로 늘여 정규불교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방풍탕수

중풍예방…요통 · 오한 등에 효과

오월은 어디를 가나 활짝 핀 작약꽃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려는 50년 동안 여섯 차례의 대란을 겪으면서 젊은 장정만 20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명의 부상자가 나온 시대였다. 작약꽃은 그 지긋지긋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충렬왕의 왕비인 원나라 공주가 평화의 상징으로, 개성궁의 수령각(壽寧閣)에 심은 이후부터 우리 나라 전역으로 퍼졌다.

그러나 정작 공주는 작약이 만발하는 5월이 오면, 시름시름 앓으며 심한 기침과 두통으로 고생했다. 멀리 떨어진 자기 고향과 부왕, 형제들을 그리는, 심한 향수병을 앓았던 것이다. 궁중의 어의가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방풍차를 마시고부터는 얼굴에 화기가 돌고 기력을 회복했다.

몽고의 일본정벌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방풍이었다고 전해진다. 본래 육지 출신은 끝없는 바다를 보면 멀미를 한다. 몽고 군대는 전형적인 육지 군대였다. 이들은 파도가 너울거리는 바다를 바라만 보아도 멀미와 두통을 일으켰고 싸울 의욕마저 잃어버렸다. 때문에, 방풍차와 방풍나물은 몽고군대의 주요한 전략식품이었다. 지금도 진도와 남해의 섬에 가면, 촌로들이 갯방풍을 '삼벌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몽고군에 대항했던 삼별초의 항전에서도 방풍나물이 병사들의 심리 안정과 풍토병에 효과가 있었던 것일 게다.

지금쯤이면, 바닷가 모래 백사장이나 언덕에 가면 방풍 싹이 연하게 올라와 있다. 방풍(防風)은 잎과 뿌리를 먹는데, 이름 그대로 풍을 막아주는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요통, 두통, 오한, 발열, 눈의 충혈에 꼭 필요한 식품이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식단이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방풍뿌리 50g(버섯 양의 1/3), 마른표고 4~5장, 느타리 50g, 양송이 50g, 오이 1/2개, 당근 1/4개, 양파 1/3개, 피망 1/2개, 간장 2큰술, 볶은 소금 • 탕수소스재료 : 물 1컵, 식초 1/3컵, 황설탕 1/3컵, 물녹말 6큰술(물:녹말=1:1)

요리법 ① 방풍뿌리는 밤뜨물이나 식초에 하룻밤 담가놓고 살짝 데친다. ② 마른 표고는 물에 불려서 밑동을 떼고, 손질한 버섯과 채소들과 함께 한 입 크기로 썬다. ③ 달군 팬에 버섯과 채소를 각각 볶아둔다. ④ 팬에 불을 붓고, 끓이다 간장을 넣고 소금간을 한 뒤 황설탕과 식초를 넣어 소스를 만든다. ⑤ 설탕이 녹으면 볶아둔 버섯과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⑥ 녹말 물을 조금씩 부어 걸쭉해질 때까지 농도를 맞추어 담아낸다.

마지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㉝

諸公聞吾 咸以爲然曰他日
제공문오 함이위연왈타일
能成此約 隱居林下
능성차약 은거임하
結爲同社則宜以定慧名之
결위동사즉의이정혜명지
因成盟文而結
인성맹문이결
意焉 其後偶因選佛場得失之事
의언 기후우인선불장득실지사
流離四方 未遂佳期者 至今幾盈十載矣
유리사방 미수가기자 지금기영십재의
去戊申年早春 契內材公禪伯
거무신년조춘 계내재공선백
得住公山居祖寺 不忘前願
득주공산거조사 불망전원
將結定慧社
장결정혜사
馳書請予於下柯山普門蘭若
치서청여어하가산보문난야
再三懇至
재삼간지

이서시사 초집석시동원자 혹망혹병
或求名利而未會 且與殘僧三四輩
혹구명리이미회차여잔승삼사배
始啓法席 用酬囊願耳
시계법석 용수낭원이
伏望禪敎儒道 厭世高人 脫略塵寰
복망선교유도 염세고인 탈약진환
高遊外物 而專精內行之道
고종외물 이전정내행지도
符於此意則雖無往日結契之因
부어차의즉수무왕래결계지인
許題名字於社文之後 雖未一會而藴習
허제명자어사문지후 수미일회이온습
常以攝念觀照爲務
상이섭념관조위무
而同修正因則如經所謂狂心歇處
이동수정인즉여경소위광심헐처
卽是菩提 性淨妙明 匪從人得
즉시보리 성정묘용 비종인득

나는 오래 산 속에 살면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쓰지 않았지만 옛 약속을 생각하고 또 간절한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성품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모두 그렇다고 여기며 말하기를 '다른 날 이 언약을 성사시켜 숲 속에 은거하면서 결사(結社)를 하면 이름을 정혜(定慧)라 하자' 하고는 곧 맹세하는 글을 지어 그 뜻을 맺었다. 그 뒤 우연히 수행도량이 맞지 않아서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아름다운 기약을 이루지 못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지나간 무신년(1188) 이른 봄에 같이 결사를 맺었던 재공선백(材公禪伯)이 팔공산 거조사에 머물면서 전날의 원을 잊지 않고 정혜사를 맺자는 편지와 함께 나를 하가산 보문사로 오기를 재삼 간절히 청하였다.

予雖久居林壑 自守愚魯而無所用心也
여수구거임학 자수우로이무소용심야
然追憶前約 亦感其懇誠
연추억전약 역감기간성
取是年春陽之節 與同行舡禪者
취시년춘양지절 여동행항선자
移棲是寺 招集昔時同願者 或亡或病

성의에 감동되어 그 해 봄 항선자와 함께 이 절로 와서 옛날 발원을 함께 세웠던 사람을 불러모았으나 혹은 죽기도 하고 앓기도 하고 혹은 명리에 얽매여 모이지 못했고 겨우 3, 4인이 법석을 열어 전번의 소원을 이루려 한다. 바라나니, 불교나 유교나 간에 세속을 싫어하고 뜻이 높은 사람으로서 번뇌를 벗어나 마음 닦는 도에 전념하려는 뜻을 가진 이라면 비록 지난 날 결사(結社)한 인연이 없다해도 이 결사문 뒤에 이름을 쓰기를 허락한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모아 마음을 관조하는데 힘 쓰면서 함께 바른 인연을 닦아나간다면 경에서 발한 바 '들끓는 마음 쉬는 곳이 바로 보리(菩提)다.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성품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과 같을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월성스님

장수 성관사 대각선원장

"수행의 가장 큰 장애 명예욕"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2-2번지. 장계면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산자락에 성관사는 서 있었다.

원래 성관사 주변에는 금덕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주지가 여러차례 바뀌면서 관리 부실로 8 · 15 해방을 전후해 폐사가 되었는데, 1993년 월성 스님과 제자 삼진스님이 현 사찰 건물을 새로 짓고 이름을 성관사라 한 것이다.

성관사의 주변 지형은 백학이 나는 형국으로, 남덕유산 지맥인 깃대봉에서 수많은 학 떼가 날아와 모이를 쪼아먹는 곳에 성관사가 들어서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치고 도착한 성관사는 후원채와 일주문 건립불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수백 미터 윗쪽에 자리잡은 대각선원은 지난해 요사채와 함께 완공되어, 이미 30명의 수좌들이 하안거 정진에 들어간 상태였다.

공양간에서 점심공양을 한 후 대각선원장 월성스님의 상좌인 주지 성진스님을 기다렸다. 마침 신도를 위한 재(齋)가 있어 주지 스님은 목청껏 청아한 염불을 정성껏 외운 후 공양을 마치고 기자를 만났다.

"큰스님 께서는 '염불은 남의 염불, 내 염불이 따로 없다. 나를 위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중생제도와 상구보리를 위해 스스로 신심을 내는 것이다. 스님들이 신도를 위해 재를 지낼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늘 말씀하시죠."

성진스님에 따르면 월성 스님은 석가모니 정근을 할 때면 목이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천수경 등은 크게 소리 내기 보다는 자신이 알아들을 정도면 된다고 한다.

성진 스님은 염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참선과 연결시켰다.

"큰스님은 절 하기와 염불을 통해 스스로 망상을 정리한 후 화두를 잡으면 7일이면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세요. 만약 스스로 준비 되어 있지 않다면 세월만 낭비할 뿐 화두 타파는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배추 씨앗을 밭에 뿌려 놓되 김을 매주지 않으면 잡초만이 무성하고 배추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절 하기와 염불정진을 잡초 즉, 번뇌와 업장을 녹이는 김 매기에 비유한 것이다.

배추 밭에 잡초가 없다면 배추는 잘 자라게 된다. 이 때 배추 씨앗은 자성불(自性佛)이다. 다겁의 윤회를 통해 자란 잡초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힘든 고행도 소용이 없다. 수많은 전생의 수행을 통해 득력(得力)한 상태가 아니라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득력해야 한다. 득력이 되면 자성불은 저절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때 화두는 타파된다. 참선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지치고,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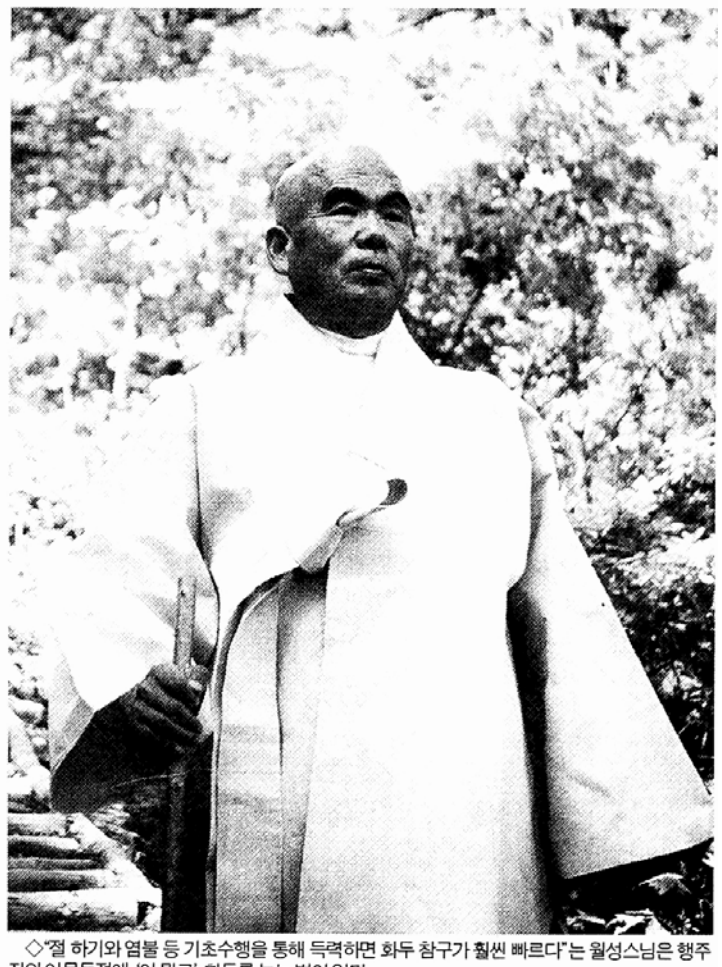
물론 염불정진으로 나타나는 경지인 염불삼매는 참선정진으로 드러나는 화두삼매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 월성 스님의 설명이다. 3천대천 세계를 체험하고 화신불 응신불 법신불을 친견할 수 있는 염불삼매는 탐진치가 멸한 선정삼매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염불삼매는 이른바 팔지보살의 세계이다. 이와 같은 선정삼매의 경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세계이니,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면 어찌 대도의 경지이겠는가.

대각선원에서는 결제에 들어가면 수좌들은 산문 밖을 나가지 못하며, 가까운 산

"밭에 씨앗 뿌리고 김 매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할 뿐"

으로의 등산조차 금지될 정도로 계율이 엄격하다. 초코렛, 우유, 빵도 함부로 먹을 수 없다. 불살생계를 지키기 위해 채식을 함은 물론 정진에 필요한, 칼로리가 적은 음식으로만 공양을 한다. 지나친 음식은 음욕을 생기게 하고, 이것이 폭력의 형태로 발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음식에서 나오는 인연법도 수행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다며 규제할 정도로 대각선원의 청규는 서릿발 같다.

그래서 대각선원에서 3년만 공부하면 많은 악습이 떨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스님네들이 한평생 공부하고서 얻은 바가 없다면 도둑놈이나 진배가 없다. 수행하면서 남의 살 먹고(육식하고) 욕망을 짊어지고 몸뚱이 위주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도 타는 줄 모르고 산다. 인욕하고 화합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는 평소 월성 스님의 가르침 덕택이다.



◇"절 하기와 염불 등 기초수행을 통해 득력하면 화두 참구가 훨씬 빠르다"는 월성스님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이 뭣고' 화두를 놓는 법이 없다.

주지 스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중화당에서 휴식을 취하시던 월성스님이 직접 주지실로 나오셨다.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을 내건 정진을 강조하셨다.

"옛날에는 조계 가풍에서도 염불은 기초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업연(業緣) 많은 중생은 머리를 깎아도 망상이 많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아만심이 수행을 방해하기에, 잠 줄이며, 절하고 참회하면서 계행을 철저히 닦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의 경험에 따르면 절은 망상을 제어하기에 좋다. 수천배를 하다보면 힘이 들어 망상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저절로 하심(下心)이 된다. 월성 스님은 잠 안자기 위해 절을 했다고 할 정도로 수면욕을 굴복시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잠만 들면 음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려는 마음에서 수마를 극복하고자 했다.

월성 스님이 19세 때에 수마(睡魔)를 조복시킨 인연담은 이러했다.

6 · 25 한국전쟁이 끝난 얼마 뒤, 18세의 나이에 군에 입대한 월성스님은 당시 훈련소에서 야간 근무때 잠을 안 재우던 것이 습이 돼 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 잠을 자면 북한군이 몰래 쳐들어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다.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와 눈을 감을라치면 교관들이 입에 개구리를 물려 개구리가 오줌을 싸는 기압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93일간 훈련을 받으니 잠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한다.

"내가 3천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상(相)이 남아 못된 스님의 도포자락만 보

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지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월성스님은?



20여년간 매일 3천배 후학양성 남다른 열정

1935년 충북 보은군 회북면에서 출생한 월성 스님은 53년 성운 노사를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오랜 기간의 염불선 정진을 기초로, 화두선 수행을 멋지게 마무리 한 선사이면서도 일반 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다.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기만 한 할아버지 같은 월성스님은 24세부터 45세까지 매일 3천배 기도 · 염불 및 절하기로 용맹정진해 '득력하면 화두는 일주일만에 타파된다'는 수좌계의 정설을 몸으로 입증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전강 대선사로부터 '이 뭣고' 화두를 받았지만,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됐다. 스님의 '이 뭣고' 화두 참구는 51세 때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이후 스님은 제자 양성을 위한 도량 건립 불사에 운력을 마다 않고 정진하면서도,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울, 남양주, 평택, 장수 등에 창건한 같은 이름의 사찰 '성관사' 네 곳과 정중선원, 대각선원에서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다. 23명의 상좌가 있으며, 이중 10명이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상좌인 성진스님과 함께 포행에 나선 월성스님(왼쪽). 사제지간의 애틋한 정이 엿보인다.

아도 싶을 때가 있었지만, 1만2,000배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무아지경에서 업장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있어도, 등 뒤에서 엄청난 용광로와도 같은 불덩어리가 내 몸을 관통하더군요. 이 불구덩이가 지나갈 때 탐 · 진 · 치 삼독과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드는 걸 체험합니다. 여기서 혜안(慧眼)과 식(識)이 열리는 것이지요."

1만2000배 기도는 5~6년씩 3번에 걸쳐 했다. 100일씩 나눠 300일씩 하는 1만2000배 기도를 통해 망상을 제거하고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만2,000배 기도는 반야심경 222편, 천수경 121편 독송, 참회의 절 3천배, 신도를 위한 절 3천배로 진행되었다. 이 때 죽을 것처럼 수행하던 모습을 지켜본 신도들도 따라 열심히 수행했다 한다. 지금은 노인이 다 된 성관사의 신심 깊은 우바새 · 우바이들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깨닫는 참된 '기도'는 그대로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진리공덕으로 장엄하게 한다. 즉 제불보살에게 구하여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원만구족한 불 · 보살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수행방편이다. 스님들이 용맹정진에 들기 전에 기한을 정해 기도에 드는 것도 이런 간절한 서원을 담고 있다. 재가자들도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슨 일인들 못 이루랴.

월성 스님은 요즘도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20여분씩 잠깐 귀잠을 잘 뿐이다. 행 · 주 · 좌 · 와 어 · 묵 · 동 · 정은 물론 누워서도 숨소리를 들으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이른바 보림의 과정이다. 옛 스님네들은 견성 이후에도 수행을 늦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습이 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긴 힘들기 때문이리라.

스님은 산사에 주석하면서 수좌들이 더많이 찾아와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배우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에, 애써 세간에 나서길 원치 않는다. 원력을 배워가는 것도 인연법이요, 스쳐가는 것도 인연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에겐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10명 등 촉망받는 상좌들이 23명이나 있다. 스님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흐뭇해 하신다. 하지만 전생에 닦은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행여 게으른 마음을 품을까 노심초사하고, 옛날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정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스님은 최근 몇 년전까지 벌어진 조계종 분규와 스님들의 비리에 대해서 의외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다.

"조선조 500년의 암흑기를 지나 온 불교는 사회적으로 다시 걸음마 단계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법난과 종단 분규가 있었어도 한 생각 일으켜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도인들의 서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땅에서 받은 각자 인연법에 맞게 중생제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출가하는 스님네들이 사회에서 대학교육까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화는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다. 지금 젊은 스님들이 중진급이 되는 10년후면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며, 종교간의 벽도 허물어질 것이다."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릴 때부터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요즘도 제자들에게 기도흐에 세계평화와 인류평화, 조국평화 통일, 국가재난 소멸, 국가 안녕과 태평, 육도중생의 성불을 발원할 것을 꼭 당부하고 있다. 평소 '중은 공인(公人)이다'고 강조해 온, 그 이유 때문이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요 수행이다. 이런 발원이 쌓여야만 보다 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도 빠르다. 생전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는 것이 월성 스님의 서원이다.

"큰 공부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자기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생을 던져서 해도 될까말까 한데 말입니다. 명예욕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자신 위해 살면 인간 마음 못 벗어납니다.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7,500만명이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원하는 것은 큰 공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 하나를 위해 산다면 나라는 누가 건집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불자들만이라도 남을 위해 살고 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해요."

이는 철저히 윤회를 꿰뚫은 데서 나오는 말이다. 선정삼매에 들면 '나'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다. 우주를 깰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법제자가 나오길 바라는 큰스님의 마음은 그래서 더욱 간절하다.

50세에 월성스님은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화두정진에 들었다.

이때 선방에 든지 1주일만에 첫 소식을, 한 달 하루만에 화두가 완전 타파된 것이다. 21세부터 해인사로부터 통도사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후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지 30년만에 얻은 감격적인 소식이었다.

월성 스님은 오랫동안 용맹정진을 한 이유를 땅에 말뚝을 박는 데 비유했다.

"말뚝을 땅에 박을 때 계속해서 크게 해머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은 살살 두드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크게 내려칠 때 말뚝은 땅 속으로 깊이 박히게 됩니다. 화두참구도 이와 같아서 평소의 정진에 의해서 얻어진 힘의 바탕 위에 용맹정진을 통하여 선정의 힘이 크게 증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뚝 박듯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인다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후 월성스님은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가 깨달음의 경지를 나누었다.

후학들을 위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당부하셨다.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남을 위한 미덕을 쌓고 각계각층이 화합하며 살아가되, 양심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어떤 때 법문을 할 때 보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생들이 눈에 보여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말고, 자성을 밝히는 공부하며 사는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일입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한평생 공부하고 얻은바 없다면 도둑과 같은 것"

> "젊은 스님들에 기대 10년후 불교미래 발전가능성 많다"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금정스님

중앙승가대학은 한국불교계에서 스님들만 입학할 수 있는,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한 정규 대학이다. 오늘의 이 학교가 있기까지 조계종의 절대적인 지원과 의지가 있었고, 석주큰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학교의 수많은 분들의 원력과 헌신이 한데 어우러져 이룩한 성과이다. 서울 돈암동 보현사에서 79년도에 처음 개강한 이래 영화사, 개운사 시대를 거쳐 김포학사로 이전한 지금 20여년의 각고의 시간을 딛고 명실공히 승가교육의 전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앙승가대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석주 큰스님이다. 다음으로는 금정 스님과 문화부 종무실에 재직하던 이용부 전 종무관이다. 금정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획국장 및 기획실장 소임을 보았다. 재직기간 동안에 대학 설립인가에서부터 지금의 김포학사 이전에 관한 일까지, 어느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다. '승가대학 설립인가 추진위원회'를 89년 2월 발족하였다. 그때까지 비인가 학교였던 중앙승가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정규대 인가를 받자는 의견이 종단 차원에서 집약되었다. 추진위의 실무책임을 금정스님과 내가 맡게되었다. 금정스님과 나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7층에 있는 교육부 대학행정과를 다짜고짜 찾아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동안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더니 "스님들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행정과장님을 뵈러왔습니다" 했더니 그는 본인이 대학행정과장이라면서 무슨 용무로 왔느냐고 다시 물었다.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중앙승가대학에서 왔는데, 이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으러 왔다고 했다. "대학 인가요!!, 어디에서요??" 하고 의아해하며 또 물었다. 대학이 서울 안암동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가받으려 한다 고 말하자 그분의 답이 서울에서는 대학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도권의 인구정책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 법으로 개발제한하고 있어서 대학설립인가를 불허한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수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만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승가대 김포이전 앞장 면학분위기 쇄신 한몫

금정스님의 탁월한 능력과 그 원력의 절실함이 남다른 것을 그때부터 보게되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승가교육의 체계확립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소임도 보지 말고 미련 또한 갖지 말자고 했다. 그날부터 조계종총무원으로 출근하여 정부청사인 교육부와 문화부 종무실에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고심했다. 우선 학교법인 설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련법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와 과천청사, 서울시청에도 수없이 다녔다. 관련된 정부 부서와 협의하는데 피를 말렸고, 제출할 서류를 만드는데 거의 날마다 밤을 새웠다. 당시 학교에는 전동타자기 하나가 없었다. 수동타자기로 서류 한질 만들려면 밤을 새기 일쑤였다. 보다못한 내가 전동타자기 한 대를 화주해 왔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깊이 감사드릴 분이 있다. 당시 문화부종무실 종무관이었던 이용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립인가에서부터 김포학사로 이전승인까지 이분께서 삼분의 일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89년 7월 11일에 취득한 우리는 오히려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법인대학인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대학인가 절차가 몇 단계로 되어있는 것도 그렇지만 정규대학설립 후 3년기간 동안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학사건립과



운동장 확보를 하고 나면 심사 후,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인가취득 후 다시 학력인정승인을 받아야하며 정규대학승격은 이와는 다른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관련법 개정 문제였고, 내적으로는 설립자금확보와 운동장 확보였다. 90년 2월 27일 각종 학교인가 취득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때 금정스님과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위경련을 자주 했다. 한 달에서 보름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위경련을 했으나 금정스님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나는 건강 때문에 2년 가량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동안에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금정스님의 의지와 원력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부속시설인 도서관건립, 신문사 개설, 대학학력인정, 복지관 위탁관리, 보육교사 교육원 설치, 각종 학술연구소 개설, 볼전국역연수원 개설 등등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리에서 기획되어 설치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김포학사로의 이전계획이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반대, 수많은 음해를 오직 원력 하나로 극복하고 이전승인을 취득했다. 그는 지금 히말라야의 산기슭에서 고행정진하고 있다. ▩정취암 주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보물 제1042호인 대광명전 후불탱화를
석채물감을 사용한 전통기법으로 조성하여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채색시주를 동참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탱화조성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선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동참방법 : 석채물감 10g 기준
동 참 금 : 10만원
접 수 처 :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전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 접수된 물감은 탱화조성에 직접 사용되며, 다라니가 인쇄된 배접지에는 축원문을 기록하여 탱화 조성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불사 동참자 1,000분에 한하여 자신이 시주한 석채가 담긴 순은 옴자메달을 드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신허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통도사성보박물관
무료참배 안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상 괘불을 친견할 수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윤사월에 적멸보궁을 참배하고자 하는 신도단체에 한하여
박물관을 무료 개방코자 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 간 : 2001년 5월 23일~6월 20일(윤달 한달간)
참배기간 : 오전 8시~오후 6시
대 상 : 전국 사찰 및 신도단체
문의전화 : 055)382-1001, 384-0010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합장

* 최첨단 유물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사찰과 불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문화재를 기증 · 기탁받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사불산 중턱에 위치한 윤필암은 예로부터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했던 곳으로 유명한 도량이다. 지금은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의 말사인 대승사의 산내 암자로서,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과 더불어 3대 비구니 선원의 하나로 비구니 선맥을 잇고 있다.

17인의 화가들이 윤필암과 맺은 각각의 인연을 조형(造形)과 재현(再現)의 시각 이미지로 담아낸 '사불산 윤필암-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전'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열린다.



◇윤필암 스님들과 경내에 함께 선 17인의 작가들.

'사불산 윤필암-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전'

화가 17인 윤필암과 그림 인연

인사동 학고재, 6월1~14일

이번 전시는 한국 화단의 중견인 최경한(서울여대 명예교수), 송영방(동국대 예술대학장), 이만익(서양화가), 오경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조승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임옥상(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황인기(성균관대 교수), 서용선(서울대 교수), 김태호(서울여대 교수), 오원배(동국대 교수), 곽남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상묵(계원조형예술대 겸임교수), 정현(조각가), 김재광(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오병욱(동국대 교수), 이상봉(성균관대 교수) 등 17인의 작가가 10년 전부터 윤필암을 답사하며 쌓아놓은 인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작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한 윤필암이 한국화, 서양화는 물론, 추상과 판화, 조각과 설치미술, 사진의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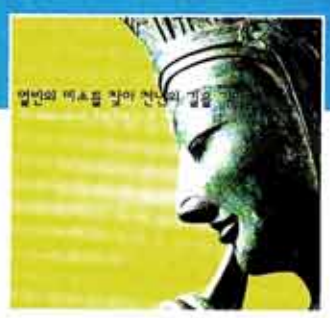
송영방교수는 6세기 경 붉은 비단에 싸인 채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까지 사불산의 산마루에 남아있다는 사면석불상(四面石佛像)의 이야기를 회폭에 옮겨 놓았다. 서양화가 이만익씨는 봄 꽃 핀 나무 아래서 단소를 불며 한가로이 삼매에 빠진 수행승의 모습을 유화의 화려한 색감으로, 조각가 정현씨는 고뇌에 빠진 수행자의 모습을 선과 면이 절제된 목조각으로 표현했다. 또 김재광교수는 흑백사진을 통해 적막한 선방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17명의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4월 13일 함께 윤필암을 찾아 봄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느껴온 윤필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저마다의 인연보따리를 풀어놓은 시간도 가졌다. 전시와 더불어 17명 작가의 작품사진과 에세이를 담은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들의 도량-사불산 윤필암〉(학고재 刊)도 발간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

CD롬 나왔다



불교의 모든 예술품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또다른 부처님의 세계다. 그 중에서도 불상은 아름다운 미소와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 없는 법문을 전하며,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불상의 미소를 화두 삼아, 인도에서 발흥한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기까지의 불법의 길을 펼쳐 보이는 CD롬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가다'가 나왔다.

한국·중국불상 등 310점 수록

현대불교·프론트라인 공동제작

'열반의 미소를…'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프론트라인디지탈이 불교문화의 원류를 찾아내고, 불교의 발생과 전래과정에서 비롯된 불교문화의 미술사적 가치 및 종교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기획했다. 지역적, 시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구현된 불상의 미소를 통해 불교의 세계종교로서의 이념적 보편성을 규명하고, 국내외에 불교의 사상적 가치를 알린다는 것이 '열반의 미소를…' 시디롬의 제작 목적이다.

지난 1998년 11월 한국의 KBS TV와 1999년 일본의 NHK TV에서 방영된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 다큐멘터리 촬영필름 및 스틸사진을 기반으로 인도, 실크로드, 중국, 한국에 산재한 불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CD롬에는 한국불상 30점, 중국불상 150점, 서역불상 30점, 인도불상 100점 등 총 310여점의 불상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수록돼 있다. 불상외에 관련 유적 사진도 함께 소개된다. 지역별, 목록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불상에 대한 설명은 한글과 영어로 지원된다.

'열반의 미소를…'은 관광공사 국내 안내소, 국내외 각급학교 도서관, 수업교재로 보급될 예정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2001.org 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지역문화 일구기 보탬됐으면…"

전시장 무료 대관

부산 영광갤러리

이경순 관장



"33년 동안 영광도서를 아껴준 부산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영광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영광도서 4층에 영광갤러리를 열고, 서점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다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경순(53 · 옥화장) 관장. 3년전 문을 연 후 사진전을 중심으로 70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열며, 대관료는 물론 일체의 경비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지역문화의 향상을 위해 애써 왔다. 이관장 자신 또한 사진가로 활동하며 연꽃 사진전을 수차례 가진바 있다.

"모든 것이 무료여서 전시되는 작품은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이관장은 "참신하고 의미있는 기획전이나 역량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그간의 보람을 말한다.

오는 6월에도 UFO사진전(6월 5~10)을 비롯해 도열스님의 디지털 만다라전(6월12~17), 경성대 대학원 사진학과 순수사진전공전(6월 18~21) 등 전시가 잇달아 준비중이다. 6월 전시일정이 끝나는 대로 영광갤러리는 한달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7월 중순 더욱 넓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다.

"새 모습으로 단장하고 보다 좋은 기획과 전시로 지역시민을 찾아가겠다"는 이관장은 "불교관련 전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겨울에는 너무 메말라서 보기에 애처롭던 아카시 나무가 주렁주렁 꽃을 피워내 세상을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다. 기다리던 봄비 속의 아카시아나무 숲은 싱그러움이 한층 더하다.

오랜만에 수석전시회에 들렀다. 무심한 돌이지만 무언가 시정(詩情)을 함축한 듯 묘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수석을 들러보노라니, 지난번에 보았던 운주사의 못난이 석불이 떠올랐다. 특정한 형상이 없이 자연 그대로 생겨서 마주 대하는 사람이 느끼는 대로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돌은 서로 닮은 것 같다. 수석은 거울 같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다. 돌을 보고 있노라니, 평소 애석가(愛石家)로 이름났던 박두진 시인의 '돌의 노래'가 생각났다.

박두진 '돌의 노래'

우주가 응축된 일즉일체의 진리 돌 속에서 보다

돌 이어라 나는
종일을 잠잠하는
돌 이어라
(…) 시로도 너를 삼아 말할 수 없고
노래로도 너를 삼아 노래할 수 없고
그냥 보며 그냥
느껴 말을 못하는
(…) 돌꾼 하나
돌을 안고
눈물 머금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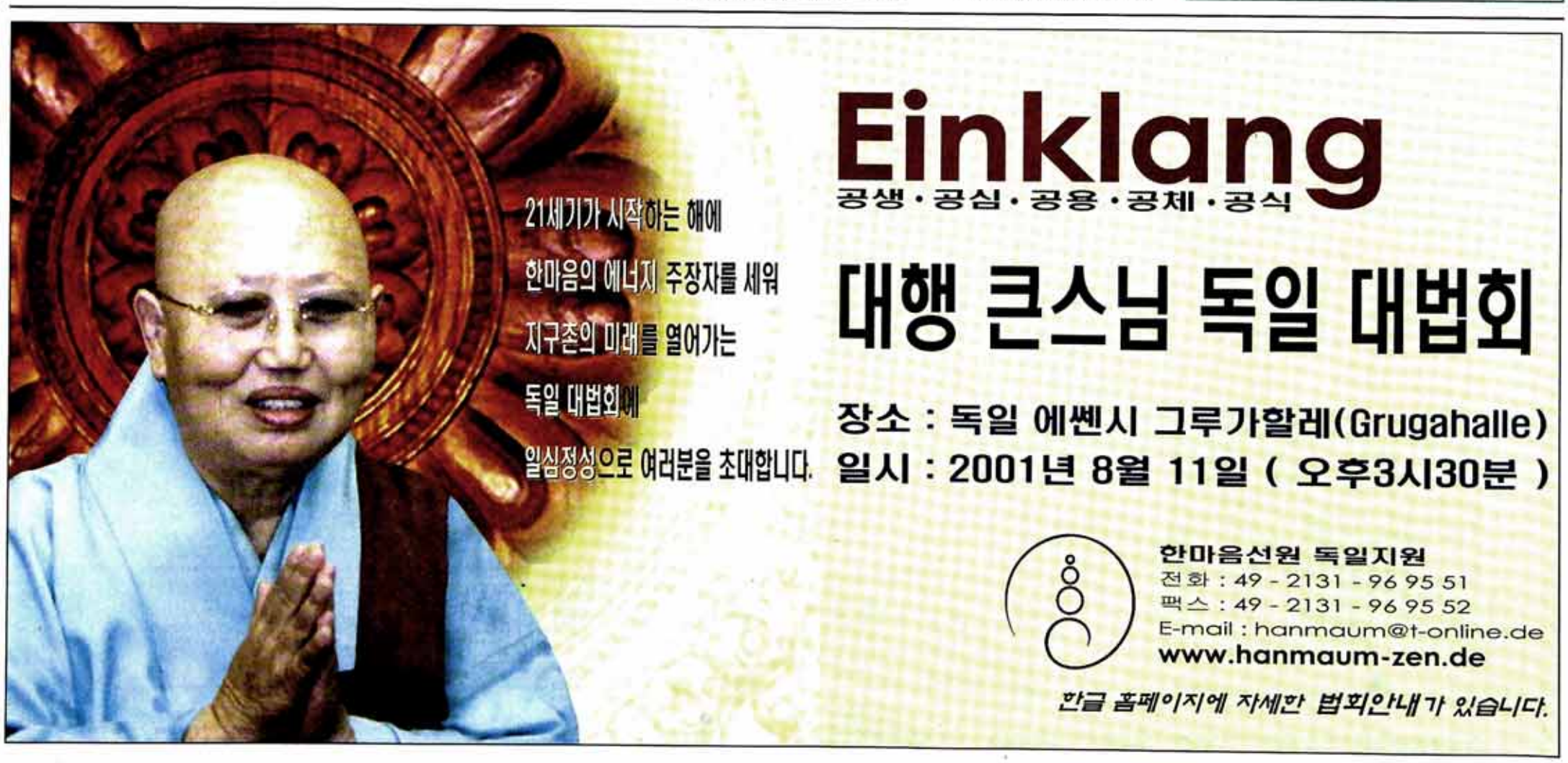
박두진이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활동했던 '청록파'는 자연의 생명력을 시적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돌이 지닌 시원적(始原的) 생명력을 노래했으며, 돌을 통해 근원을 탐색하고 돌 속에서 태초가 손짓하며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피안(彼岸)과의 교감이었다. 돌 속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만고(萬古)의 새벽 기운을 느끼며, 돌 속에서 우주가 응축된 일즉일체(一卽一切)의 진리를 보았다. 돌은 '영혼이 깃든 자연'의 상징인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돌을 껴안고 눈물 머금는'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지(知)적인 요소인 '말'이 모두 빠져나가고 정(情)적인 요소인 '눈물'만 남는 것은 어떤 경지일까? 사찰에 가보면 그저 열심히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를 하는 할머니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분들의 신심이 바로 이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자의 바다인 팔만대장경은 몰라도 된다. 한마디라도 귀동냥해서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외우면 족하다. 그래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것이다. 순수한 불심은 장황한 독경(讀經)에 있지 않고, 그저 뜻도 모르는 다라니 주(呪) 한 구절이라도 간절히 외우는 데 있다.

어느 승려가 와서 조주 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선지식에게 다짜고짜 선(禪)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다니 어지간히 다급했나 보다. 지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정적인 세계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전노장인 고불(古佛) 조주는 자상히 일러준다. "뜰 앞의 잣나무."

지식보다 사랑이 높고, 말보다 눈물이 순수하다. 말을 버리고 눈물의 경지에 서자는 것이, '아는' 것을 버리고 '되자'는 것이 교종이나 선종이나 정토종이나 밀교나 모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문학평론가



불서 7만건 목록정리 불교서지학계의 보석

'불교학 논저목록 DB 구축'의 선구자 이철교(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팀장) 씨. 그는 불교학계의 보석 같은 존재다.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후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불교학자들이 연구보다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불교학 논저목록 정리다.



그가 10여 년 동안 정리한 불교학 관계 논저목록은 약 7만여 건. 현재 마지막 교정작업중인 이 목록들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간 일본 · 중국 · 미국 등에서 발표된 한국불교관계 논문을 포함 국내 석 · 박사 학위 논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씨가 불교사서의 길을 걷게 된 인연은 군법사 제대 후 국립중앙도서관 시절부터 시작된다. 불교학 연구가 시작된 60년대 동국대 도서관에는 전문사서가 없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동국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3개월 과정의 사서강습과 민족문화추진회 그리고 국역연구원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 관심이 아니라 불교가 그저 좋아서 시작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피를 회향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학자들을 서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이 본연의 연구가 아닌 서지조사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서관 직원을 넘어 불자로서 세운 그의 개인적 발원은 이제 한국 근현대 불교학의 숲을 가꾸어 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성과는 기본적인 목록정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불교학 관련 문헌을 전담하는 '불교학 자료실'과 같은 기구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사실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고전과 근 · 현대의 모든 논저목록은 물론 원문까지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관계 단행본과 잡지류 등 1만 여권을 소장하고 있는 그는 애장가 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멸실위기에 있던 불서를 보물급으로 되살리기도 했다. 일원상에 대한 역대 조사들의 글을 모아놓은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이 그중 하나다.

올 해 안에 마칠 한국불교관계 논저 종합색인. 이젠 불교학자들이 이를 토대로 양질의 논문을 발표할 차례다. "불교서지사전과 불교서지연표를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불교서지학의 뼈대를 세우는 원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그의 말 속에서 비상하는 불교학의 미래가 예감된다. 경주=김중근 기자

책과 삶

불교 논저 종합색인 내는
이 철 교 씨

"사서는 내 천직"
불서 1만여권 소장

신간 <나의 행자시절>(박원자 엮음, 다할미디어)은 출가수행자의 입문과정인 행자생활을 담은 책이다. 행자들의 시시콜콜한 일상사에서부터 사미계를 수지할 때까지의 고뇌와 의지를 담백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의 첫 부분을 펼치면 일제치하에서 초근목피로 살아가던 선조들의 처절한 삶이 가슴 찡하게 다가온다.



매섭던 출가시절 '절집살이' 회상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엮음



◇후원에서 대중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행자들의 모습.

더덕 한 가마니를 지고 찾아온 처사에게 쌀을 내어주고 겨우내 그 더덕으로 연명해야 했던 동관암의 두 스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해인사 도견 스님.

스님은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던 시절, 오대산 동관암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은사 스님과 단둘이 사는 동관암에서의 행자생활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은사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초발심자경문〉과 〈천수경〉을 외우고 불교의식을 몸으로 익히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한 스님의 방문으로 완전히 바뀐다. "웃어른 시봉하는 것이 어찌 그러한가"라며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친 그 스님은, 보름동안 머물면서 시봉하는 법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밥과 반찬 그리고 빨래하는 것은 물론 은사 스님의 누더기 옷을 깁는 것까지 해야 했다.

책은 도견 · 석주 · 원담 · 탄성 · 월운 스님을 비롯해 도법 · 원택 · 종림 스님 등 중진스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45명의 행자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 했던가. 이렇듯 출가자에게 있어서 초발심 내는 때는 바로 구도자로서의 앞날을 결정짓는 시절이다. 이 책은 지금은 중견이나 원로가 된 수행자들의 초발심 시절인 행자시절 이야기를 통하여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처음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무엇을 향해, 어디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00년대 승가생활 묘사
원로 등 45명 옛시절 고백

시대적 배경은 1900년대. 따라서 그 당시 승가의 엄격한 법도와 생활 습관 그리고 만공 · 금오 · 한암 · 성철 스님 등 그 시대를 살았던 선지식들의 선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덤으로 읽는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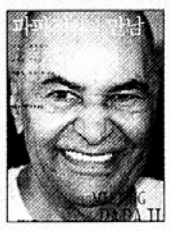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행자생활은 후원 일과 〈초발심자경문〉 등 경전공부와 독경, 기도이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의 행자 생활은 지금과는 다르다.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자 어려운 일이었던 어렵던 시절, 배는 곯았으나 깨침을 향한 열정만은 무섭게 타오르던 행자시절의 이야기는 오늘날 출가하는 행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또 자그마한 실수로 절에서 쫓겨날 뻔했던 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던 시절이었기에 출가의 참뜻이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스님들의 고백은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게 읽힌다.

행자시절을 고백한 스님들은 대부분 '늘 처음처럼'을 강조한다. 아마 그 마음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깨친 제자 11명이 쓴 스승 이야기

로슬린 무어 '파파지와의 만남'



어쩌면 인생은 끝없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수렁으로 빠뜨릴 만남이 될지, 한 줄기 빛이 되는 만남일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문 덩어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꿈꾼다.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 더욱 더.

신간 〈파파지와의 만남〉(로슬린 무어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은 참나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만남을 인도한 사람은 '파파지(사랑하는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의 영적 스승 스리 하리 완쉬랄 푼자(1910~1997). 그는 참 스승을 찾기 위해 인도를 유행하다 남인도 타루반나말라이에서 라마나 마하르쉬를 만나 참 자아를 깨닫게 된다. 그 후 유럽 남미 등지에서 가르침을 펴다 1989년부터는 럭아우에 머물며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전했다.

이 책은 파파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제자 열한 명이 스승과 만남을 회상한 이야기다. 그들은 파파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등을 들려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어둠 밝히는 詩語

정완영 시조집 '이승의 등불'



고향, 자연 그리고 사찰을 주로 시조에 담아온 백수 정완영(83) 씨가 시조집 〈이승의 등불〉(토방)을 내놓았다. 이 시조집은 미치 이승의 온갖 탐욕과 망상을 떨친 듯한 원로 시인의 향취가 행간마다 묻어난다. 특히 머리말을 대신한 서시가 그렇다.

"내가 죽어 저승엘 가면 이승이 고향 아닐까. 너랑 나눈 한잔 차 이야기 오소스. 추운 낙엽 가을 밤 잘 익은 등불이 모두 꿈길에 밟히겠네."

이처럼 정 시인은 시어를 통해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지구도 하늘일거야. 우리마음 징검다리는 하늘나라 오작교이고, 냇물에 엎드린 돌팍은 가막까치 머리일거야…"(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중에서).

사람마다 등불 하나씩 달아 준다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는 정 시인. 그가 말과 생각을 아껴 내놓은 이 시조집은 시보다는 화두로 읽힌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강건기 '목우자 지눌 연구'

"지눌사상 조명 실천 방안 제시"



1988년 전북불교대학을 설립해 전남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강건기(전북대 철학과) 교수는 전법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거친 정통 불교학자다. 특히 '토마스 머튼과 보조 지눌 사상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눌의 돈오점수사상' 등 보조 지눌 스님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는 등 20여 년간 보조 지눌 사상을 천착해 왔다.

신간 〈목우자 지눌 연구〉(부처님 세상)는 강 교수의 보조 지눌 연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결정체다.

강 교수가 학자의 길에만 안주하지 않고 포교와 전법의 전당인 전북불교대학을 설립한 것은 어쩌면 단순한 사상가나 이론가이기를 거부하고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 지눌 스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 책은 그런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강 교수는 이 지눌 사상을 현대에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의 확립과 실천을 제안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반야심경에 나타난 삶의 지혜

'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 양윤옥 옮김



〈반야심경〉은 단연코 대승불교의 근본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도 모두 이 경전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불교를 알고 싶다면 〈반야심경〉부터 알고 볼 일이다. 〈반야심경〉에 대한 책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간 〈차나 한잔 들고 가시게〉(양윤옥 옮김, 창해)는 〈반야심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지은이는 만다라 모임 회장으로 종교 사상연구와 강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히로 사치야(다이쇼 대학) 교수. 그는 차 맛을 음미하며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 논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수많은 〈반야심경〉이 경전풀이나 해석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를 깨우쳐준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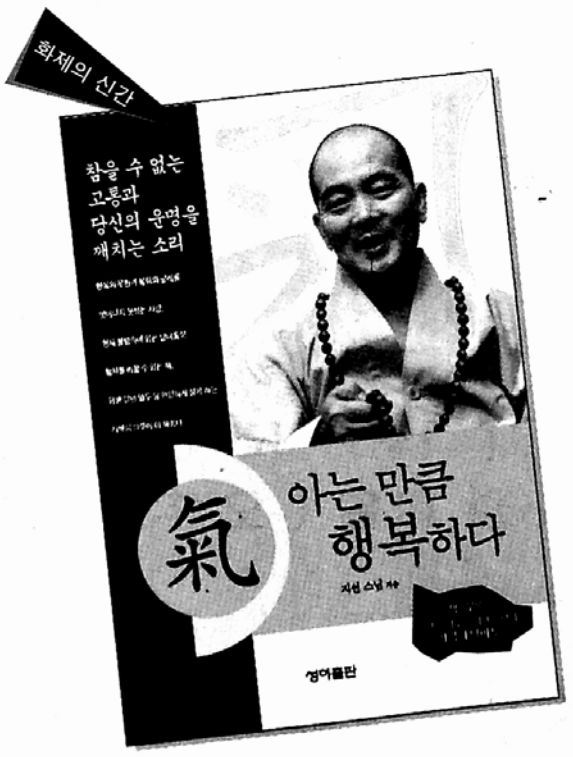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6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톱닷컴
7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 심	현 암 사
9	성철스님과 모과동자	정 찬 주	현대문학이론이
10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옹	다른세상

도서 안내 : (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 저자 - 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일으키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달마도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병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는 등의 좋은 금언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 · 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 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촉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아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 강타!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 방송국)

푸른 눈빛들은 반원형으로 달마를 에워쌌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㉝

(32) 이리떼의 습격

달마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입정에 들려고 했다.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온종일 꼼짝도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등골에선 여전히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서도 생각에 휘둘리는 꼴이었다.

어느덧 동굴 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달마는 '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외치며 불쑥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아래 바위샘에 갈 생각이었다. 며칠 동안 굶은 창자를 풀과 나무뿌리로 채우고 샘물도 마시고 싶었다.

이미 태양은 서산을 넘어간 지 오래였다. 엷은 비단이 하늘부터 덮어 내려오듯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달마는 샘물이 솟는 바위를 내려다보며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등골의 식은땀은 찬바람에 온몸을 오싹하게 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졸처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깊게 숨을 가다듬었다.

물러서서 동굴로 가면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않아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비수처럼 그의 살갗을 후벼댔다. 달마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이십여 보쯤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푸른 눈빛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달마는 마음 속으로 깜짝 놀랐다. 신경을 곤두세워 푸른빛의 정체를 살폈다. 그것은 이리의 눈빛이었다. 늙은 이리 한 마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달마는 어릴 때부터 산천을 노닐었기 때문에 이리의 교활함과 탐욕스러움, 그리고 잔인함과 난폭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쪽을 노리고 있는 품으로 보아 늙은 이리를 다루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달마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다.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를 당장 결정해야 할 판이었다.

만약 뒤로 물러서서 동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늙은 이리는 얌잡아 보고 등 뒤로 덤벼들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리와의 대치 국면을 만들었다간 더욱 큰 위험에 빠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대담하게 겁 없는 기세로 이리를 제압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듯싶었다.

"고얀 놈."

달마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옷깃에 바람을 일으키며 당당하게 늙은 이리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는 꼬리를 감추며 한쪽으로 비켜 서면서 빤히 달마를 쳐다보았다. 달마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리를 지나쳤다.

그러나 이리가 비켜 섰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 달마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만약 이때 고개를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이리의 공격을 스스로 재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달마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그대로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채 몇 발자국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갑자기 목 뒤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리가 날카로운 두 발로 달마의 양어깨를 막 공격하려는 참나였다. 달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침착하게 대처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이리의 두 다리를 확 잡았다. 이리를 머리 위로 들어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늙은 이리는 바위 밑으로 '퉁'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뻗어 버렸다.

달마는 늙은 이리가 죽었다고 여겼다. 얼른 합장을 했다.

"업보로다, 업보. 아미타불."

달마는 입으로 "아미타불"을 연호했다. 그러나 늙은 이리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몸을 한 바퀴 굴리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바위 위에 기어올라 강렬한 눈빛을 내쏘며 짖어댔다.

"우-, 우-."

달마는 깜짝 놀랐다. 이리의 울음소리는 자기 무리에게 구원을 청하는 소리였다. 이때 서둘러 피하지 않으면 이리떼에게 포위 당할 게 뻔했다. 달마는 무의식적으로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피할 곳이라곤 그 곳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곳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설령 동굴 속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리떼가 몰려들면 막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 우-."

달마가 머뭇거릴 틈도 없이 산언덕 이곳 저곳에서 번쩍 번쩍 푸른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른 눈빛들은 순식간에 반원형을 이루면서 달마를 에워싸고 조여들었다. 달마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몸을 날려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리떼들은 맹렬한 기세로 뒤쫓아왔다.

무리에게 구원 청하고

달마는 동굴 안에서 반격의 자세를 취했다. 이리들이 덮쳐들면 그 동안 익혀 온 무술로 막아낼 작정이었다. 이리떼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늙은 이리가 맨 먼저 뛰어들어왔다. 그런데 동굴 바로 앞에서 이리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달마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늙은 이리를 뒤쫓던 이리들도 동굴에 접근하자마자 땅 위에 나뒹굴기는 마찬가지였다. 달마는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리가 동굴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휙-' 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이리는 그대로 나가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리떼들은 더 이상 동굴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틈에 몸통이 숲 속으로 흩어지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굴 밖은 갑자기 적막에 빠졌다. 달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동굴을 나와 사방을 살펴보았다. 동굴 옆에 우뚝 솟은 나무의 윗가지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승려 한 사람이 사뿐히 뛰어내렸다.

열추 보아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손에 작은 돌을 쥔 채 달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달마는 소년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승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는 소림사의 문승(門僧)인 지인(智仁)이었다.

손에 작은 돌을 쥔 채
달마를 향해 환하게 웃는
소년 티가 남아있는 승려

달마가 소림사에 오던 날, 주지 혜광에게 안내한 사람이 바로 지인이었다. 달마가 비록 볼썽사나운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지인은 범상치 않은 기풍을 첫 대면 때부터 느꼈다. 한데 혜광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뜻밖에도 달마는 사원에서 쫓겨났다. 지인은 매우 의아하게 여겼으나 감히 주지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지인은 사형(師兄)들이 쑤군거리며 주고받는 말을 주워 들으며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달마가 붙치려는 것이 대승선법이라서 혜광이 거부하고 내쳤다는 이야기였다. 소림사가 지키고 있는 소승선법과 대승선법은 마치 얼음과 숯처럼 서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었다.

지인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총명하고 사려가 깊었다. 그는 법문(法門)과 불지(佛地)가 본래 하나이고 자비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째서 선의 여러 문파가 생기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법속으로 흐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달마가 내세우는 선이 설령 소림사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를 마치 큰 적을 대하듯 경계하고 내쫓은 일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지인의 마음엔 동정심이 계속 뭉게구름처럼 피어 올랐다. 동정심이 싹트기에 앞서 지인은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다. 달마가 산문을 나서자 몰래 뒤를 밟았다. 천축의 노승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 지켜볼 심산이었다.

그는 달마를 미행하면서 화룡굴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화룡이 굴을 떠나는 일대장관엔 다만 경이로울 뿐이었다. 한데 굴 속에 들어간 달마는 몇 날을 지켜보아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인은 달마의 정진하는 모습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호기심과 동정심은 어느덧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이 날도 지인은 저녁 무렵 화룡동굴을 찾아들었다. 탁발한 밥을 싸들고 왔다. 달마에게 드리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 대승선법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는 순간 그는 달마가 이리와 대치중인 것을 목격했다. 곧 이어 이리와의 격투가 벌어지고 이리떼에게 포위 당하자 달마는 굴 속으로 피신했다.

지인은 마음이 급했다. 탁발을 내려놓고 잽싸게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모아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동굴 앞으로 달려드는 이리에게 차례로 돌팔매질을 했다. 백발백중이었다. 이리는 예외 없이 꼭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달마는 뜻밖의 응원자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달마는 아무래도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소림사의 문승이 이 곳에 왔으며 무슨 신기(神技)로 이리떼를 죽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달마는 합장하며 예의부터 갖추었다.

"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오. 아미타불."

지인은 너무나 황공해서 털썩 땅 위에 꿇어앉아 연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조사께서 이렇게 지나친 예로 대해 주시니 소승은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달마는 곧바로 지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지인은 몸을 일으키자 서둘러 숲 속으로 달려갔다. 감춰 두었던 탁발한 밥을 찾아내어 달마에게 두 손으로 바쳤다.

"이것은 소승이 탁발한 밥입니다. 소승의 작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탁발한 밥 찾아내어

달마는 탁발을 받아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선 광주 법성사의 광지, 금릉사의 통미, 낙양 영령사의 자광 그리고 눈앞의 소림사 문승 지인이 겹겹이 아른거렸다. 천하의 승려들 가운데는 공부가 깊고 자비로운 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비록 소림사의 행자승이긴 하지만 지인의 몸에서 달마는 대승선법의 진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다시 소림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샘솟았다. 달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사부와 같은 이런 자비로움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 오히려 노납이 부끄럽소."

지인은 달마의 참마음을 알 것 같았다.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조사께서 전심전력으로 면벽 좌선하시는 모습은 저희 불문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승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어여삐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저의 성의이오니 이 밥을 받으시지요. 소승은 동굴 밖에 있는 죽은 이리들을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 치우고 오겠습니다. 그 동안 천천히 드시지요."



◇양산 통도사 응진전 천장벽화(벽에 채색, 조선 숙종 때인 1670년 응진전 건조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8배, 부종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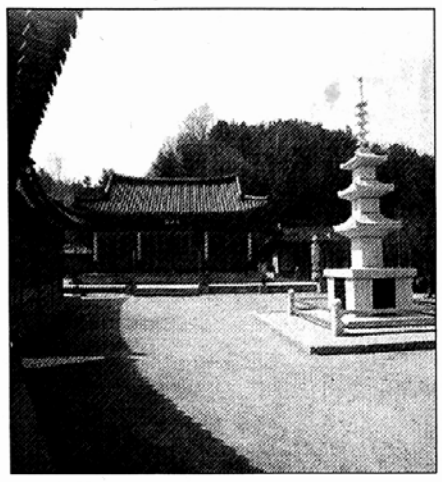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갈월사 경내

갈 월 사 영 탑 (靈 搭)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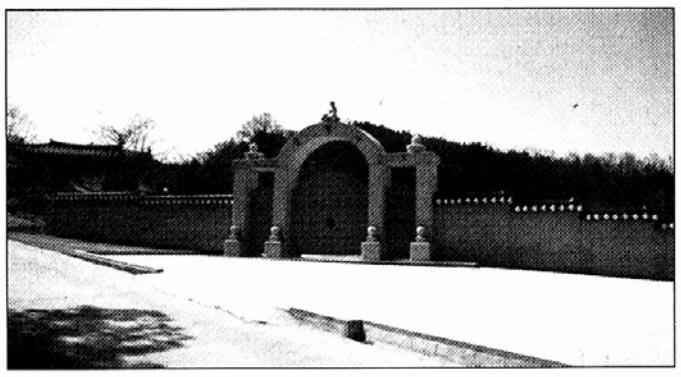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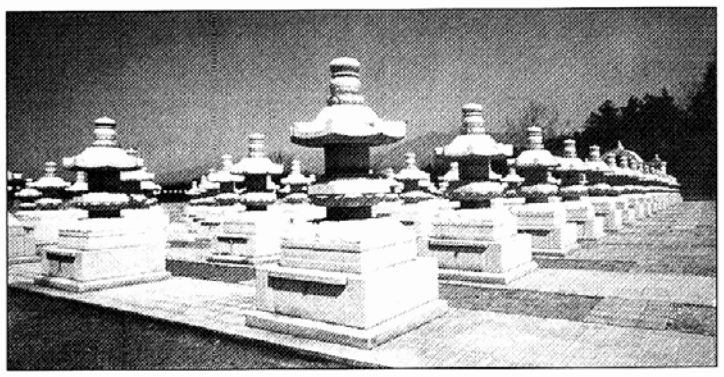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정문 ▼



조성된 영탑 ▼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시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선 무 도 여 름 수 련 회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1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단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다도, 한국무용)
- **등 참 금** : 학생 (1일 - 2만 5천원, 1달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달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단체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1천 5백년 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 3천배 참회 및 전대중이 1일 금식)	
5시 - 좌선	14시 -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 (학생)
6시 - 조깅, 등산	16시 - 운력(농장 채소 가꾸기, 청소등)
7시 - 아침공양 (발우 공양)	17시 - 휴식, 산책 (행선)
9시 - 오전 수련	18시 - 저녁 공양
11시 -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 - 예불 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13시 - 독서와 사색	19시 30분 - 저녁 수련(일반인)
	21시 - 점호 및 취침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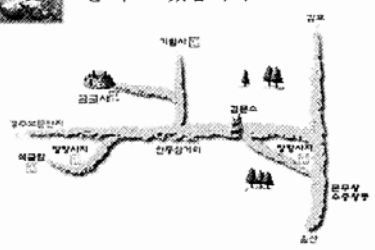
대 한 불 교 조 계 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무도대학
☎ 054)744-1689 홈페이지 golgulsa.com sunmudo.com

윤달 삼사 순례는 아미타불이 계신곳으로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 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와 중국 돈황의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 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가 중생들의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사, 동해의 문무대왕 수중릉과 감은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꽃 친견 및 삼사 성지순례 법회

(운봉산 백운사 아미타부처님 몸에 핀 꽃 친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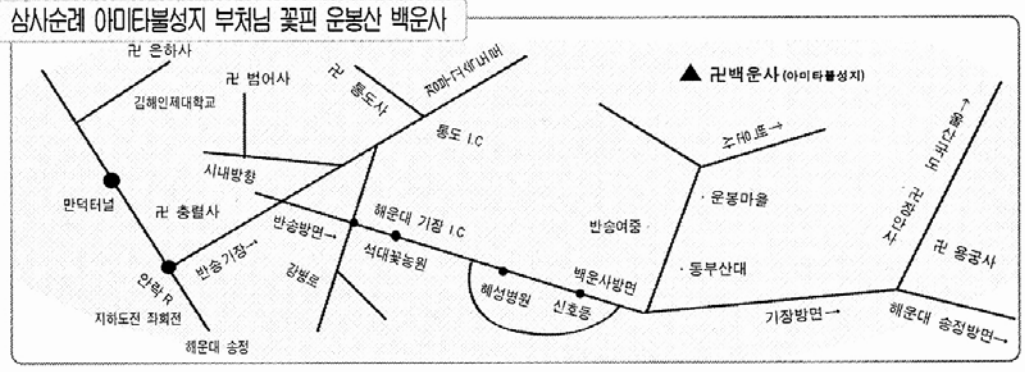
경진년(경진년) 설달 보름날 오후(밤)12시 가량 밝은 달 주변에 오색 무지개가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넓게 자리를 잡고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3,4시간 수 놓다 소납은 넋을 잃을채 하늘을 감탄하며 한편은 기쁨에 소뻑치며 춤을 추면서 하늘의 길조가 곧 땅의 길조로 이어지며 그빛이 한반도를 빛추는 느낌에 반만년의 시련과 고통, 힘든 이 국토에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왔다.

신사년(신사년)에 삼재가 들어오므로 삼재자를 위해 부처님전에 개금공양을 올려야 겠다는 발원으로, 평소 예불시 상단 불보살님 한단부분에 개금 탈색이 심한것을 보고 정성 부족 한탄 참회하면선, 또한 나라와 신도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금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개금 도색 하기위해 탁자에서 내려놓고 털고 닦는 도중 소납과 불모의 누에 물체가 환하게 빛처오므로 발견하게 되었다. 개금불사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에야 부처님의 가피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화경 속에 우담바라가 피면 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나라 안팎을 안락과 평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루신다 하셨다. 3000년 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속의 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말법(말법)시대에는 중생들에게 구제와 희망을 바라고, 국가의 전륜성왕이 나올길 바라는 것으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더욱 더 크다. 불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알고 행동하며 깨닫는 것이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합장

삼사순례 아미타불성지 부처님 꽃핀 운봉산 백운사



※ 대형차량(버스)은 동부산대 입구에서 하차하십시오.(백운사 봉고사 운행 이용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번지 운봉산 **백 운 사** TEL 051-542-4630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촌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읍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갑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람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맞혀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점사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집에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한홀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남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19호 임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麒卜子 陳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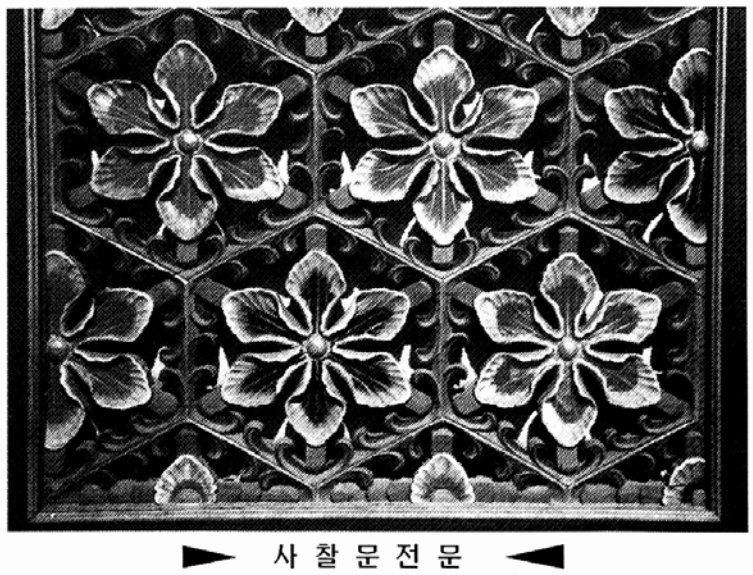
도서출판 **卜 間** 배상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송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흑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아프기 앗게 될 것인지 치료기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채워야 할지, 채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권 동신전통목공



주요 공사사찰

직지사 . 봉암사
각화사 . 대승사
해인사 . 출서사
윤필암 . 김용사
법주사 . 운문사
봉녕사 .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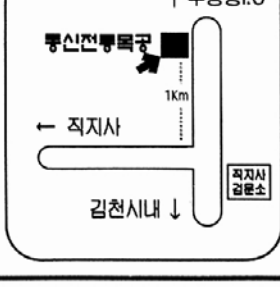
사찰문전문

대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 (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찾아오시는길



소외 이웃에 자비와 용기를 전합시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12만6천구좌 돌파

군법당 · 경찰서 등 8백67곳 부처님법 배달

온 우주 법계는 향기로운 꽃 향기와 푸른 실록으로 뒤덮여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자연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정경을 감상하며 행복감에 취해 있을 이 시간에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마음엔 아직도 매서운 겨울 바람만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온정을 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신문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의 정법을 전달해 줘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도심포교당,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 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12만5천8십 구좌에 전국 1천 1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154곳), 교도소 · 교정청(34곳), 구치소 · 감호소(12곳), 소년원 · 감별소(14곳), 양로당(24곳), 사회복지기관(182곳), 경승실(200곳), 불교병원(10곳) 등 총 867개 시설에 매주 1,195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28만1천7백2십부가 발송되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삶에 지친 이들에 용기와 희망을 진리에 목마른 이에 가로수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사진은 한 사찰 가판대에 놓인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있는 어느 불자의 모습.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보수	총보시 부수
군부대	군법당	154	190	50,040
	국군병원	9	11	8,676
교화기관	고도소, 교정청	34	206	34,746
	구치소, 감호소	12	36	14,726
	소년원, 감별소	14	42	4,572
복지단체	양로당	24	24	4,654
	아동복지	26	26	8,066
	장애인복지	11	11	3,516
	청소년복지	17	17	4,882
	사회복지기관	182	192	41,602
	불교병원	10	62	12,552
경찰	경승실	200	200	47,570
	경찰병원	2	6	1,116
지정법보	단체	112	112	27,382
	개인	60	60	17,620
		867	1,195	281,720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군부대 · 경찰서 · 교도소 등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만1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계좌로 통장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법보시 후원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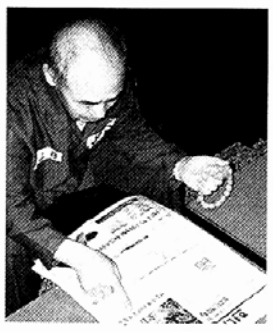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인터뷰

"불법 만나 삶의 희망 찾았어요"

의정부교도소 이성진 씨



"사회에서 잃은 게 재물이라면 여기 들어와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성진(62)씨다. 나이 육십에 비로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을 하던 이씨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왔다. 아들, 딸도 별 탈 없이 커 주었고, 사업도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 때부터 '술과 여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 독촉 하는 채권자와 다투다 '강도상해'라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 사회에 대한 원망이 앞섰다.

안양교도소를 거쳐 의정부교도소로 옮긴 두 달 뒤, 이씨에게 조그만 변화가 찾아왔다. 교도소 교화위원인 성관 스님(의정부 용현사 주지)의 법문을 들은 이씨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적이 있는가'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 욕심과 이익만 쫓아 살아 온 지난 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을 만나 불심을 키웠다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씨는 때늦은 후회 대신 '남을 위해 보시하는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교도소 금요법회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법회에 불참할 때는 〈반야심경〉 사경과 108배 정진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아침 · 저녁 〈반야심경〉 암송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108배로 하루를 정리했다.

이씨가 이런 신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데는 법보시로 들어온 책과 신문이 큰 힘이 됐다. 경전뿐 아니라 〈불교 첫걸음〉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등을 읽으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현대불교 등 교계신문에 나오는 큰스님들의 법문도 꼼꼼히 챙겨 읽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강종출 강갑순 강경동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부복지관 강성욱 강수희 강숙희 강순영 강신우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은경 강인성 강인숙 강정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훈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정 경남지청 경스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수진 고영배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고한사 공평근 곽영호 구영란 구진모 구진화 구진희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봉자 권성행 권순형 권순희 권연지 권영수 권영현 권오석 권오중 권오진 권옥순 권은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초자 권혜순 기현정 김갑순 김경 김경선 김경수김경숙 김경순 김경열 김경숙 김경해 김경혜 김경희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준 김길숙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동자 김두영 김동남 김득자 김혜인 김말선 김명덕 김명숙 김명자 김명호 김명희 김문자 김문주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정 김민수 김민옥 김법수 김봉서 김봉주 김봉철 김봉흔 김복남 김봉윤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병 김상분 김상순 김서분 김석순 김석윤 김석자 김선남 김선희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희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숙랑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례 김순례 김승렬 김승희 김시자 김신옥 김신애 김안례 김양순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민 김영매 김영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경 김예숙 김옥희 김용자 김용희 김원숙 김원용 김원우 김유화 김은성 김은중 김은환 김은희 김은영 김의식 김인성 김인숙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장복 김정린 김정선 김정수 김정여 김정은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제철 김종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임 김종림 김주곤 김주식 김주원 김주형 김준만 김준모 김준영 김준형 김준희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현 김창규 김창남 김창숙 김천호 김춘화 김치환 김태분 김태분 김태훈 김학준 김한나 김현 김현수김현숙 김형동 김형원 김혜경 김혜경 김혜숙 김혜자 김호순 김홍희 김희숙 김희자 김희정 김희진 나관숙 나숙희 나순옥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형수 남하자 노만호 노순남 노유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덕성양 덕운화 덕행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병수 류영란 류정님 류정으 류즈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성철 문선희 문숙자 문순조 문점숙 문정강 문필규 문현주 문혜자 민경주 민병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은식 민해식 민혜원 박강숙 박경남 박경례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희 박광수 박광옥 박광호 박구숙 박귀남 박금숙 박기규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외 박남옥 박내근 박덕희 박덕수 박명희 박무순 박미정 박미정 박배흔 박병숙 박병희 박복수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선영 박선영 박성숙 박성준 박성진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숙자 박순옥 박승희 박시경 박시영 박양임 박양자 박영서 박영숙 박영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영진 박영철 박옥남 박옥이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원구 박윤식 박은숙 박은옥 박은희 박재련 박재진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박정희 박제선 박종두 박종심 박주연 박주원 박준영 박준호 박진희 박진환 박진자 박천연 변현혜 변희수 박청자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리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희순 방금순 방명섭 방순혁 방재순 배경숙배광종 배동규 배명호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은자 배현주 백광주 백상준 백성희 백양심 백옥남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변인택 본사직원 본원보시회 본원봉사모임 본원신도 본원연등회 본원의명 봉철송 봉현주 부산신도회 부산직원사당5동법회 사랑방 성미옥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명자 서말희 서명선 서병학 서병순 서부동 서심조 서옥경 서울원곡 서윤아 서인교 서정숙 서정희 서즌 서진 서춘건 서충우 서향우 서혜란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감분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 자 성영남 성재영 성림제 성호순 소진입 손광자 손금희 손명숙 손문영 손미숙 손남희 손상률 손윤선 손인아 손인희 손정숙 손정자 손진인 손혜숙 손혜자 송경자 송광옥 송금숙 송기란 송기숙 송미애 송병준 송복희 송성의 송승원 송양숙 송연숙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미향 신미환 신부순 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신은희 신시균 신영준 신원민 신유진 신은진 신장재 신재락 신재철 신조원 신진임 신택견 신호용 신홍재 심광옥 심광영 심근희 심능희 심단희 심만희 심묘희 심법희 심보연 심성학 심인희 심희숙 심일희 심은주 심창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근 안영선 안재연 안진후 앙병덕 양세옥 양영애 양은숙 양의근 양점순 양정순 어종선 엄남주 엄정임 여태순 영등포법회 영재린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솔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자 오영희 오주중 오즈희 오진희 오창원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혜민 오혜영 오혜정 옥미순 옥선주 온보살 온정숙 온정희 올림픽 왕현우 우경에 우금식 우동행 우상용 우신한마음선원 원정옥 유광수 유금자 유미정 유선재 유양심 유은경 유인혜 유재은 유정연 유정용 유춘자 육성희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령 윤미희 윤병칭 윤병희 윤상문 윤석범 윤성은 윤순이 윤영자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정숙 윤준상 윤지홍 윤지은 윤차남 윤창섭 윤현희 윤향숙 윤현숙 윤현숙 윤은이 윤정희 이경봉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민 이규환 이금은 이금주 이기요 이기림 이길복 이남심 이노마 이대성 이덕의 이동기 이동준 이동희 이명규 이명수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보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찬 이보경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봉호 이부앙 이분순 이삼경 이상만 이상옥 이상준 이석준 이선임 이성수 이성재 이승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덕 이순랑 이순옥 이순일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승숙 이승은 이승훈 이시정 이씨 이아미 이애자 이양자 이양희 이영숙 이예규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은 이영조 이영희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용범 이우승 이운자 이유순 이윤옥 이은숙 이은주 이은희 이인숙 이인성 이인숙 이임순 이정희 이재국 이재숙 이재은 이재희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현 이준면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윤 이지형 이진경 이진선 이진수 이진영 이진우 이진희 이창순 이창하 이청호 이창훈 이천희 이철규 이현주 이형 이해우 이해인 이해주 이현호 이혜옥 이혜숙 이혜자 이혜숙 이혜옥 이호순 이화숙 이희영 이희주 이효순 이훈로 익명 인천신행회 임경희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분숙 임선원 임소연 임영이 임옥빈 임옥재 임은숙 임우식 임인석 임재순 임정숙 임종미 임창건 임채임 임춘심 임현순 입후원 자일지 장경순 장경희 장금강 장미 장미순 장미옥 장영순 장영현 장왕자 장정 장정가족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춘자 장태복 장해기 전감림 전계연 전규백 전류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십우 전수남 전순자 전은조 전승현 전연서 전연태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장숙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숙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교비 정구연 정금란 정래란 정명자 정명희 정모아 정무영 정무식 정미경 정미향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즉 정상엽 정숙남 정숙점 정숙정 정순자 정연경 정연복 정연서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영선 정옥녀 정옥희 정은애 정은희 정은경 정은주 정은채 정은혜 정은희 정인순 정점순 정정국 정정수 정정순 정정자 정정희 정근호 정진욱 정학준 정형수 정팔순 정필준 정학선 정해정 정해탁 정현동 정호택 제주보현회 조경자 조귀자 조남심 조남주 조동만 조명래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근 조승수 조아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희 조은희 조수자 조순옥 조은근 조은숙 조은식 조인규 조인자 조정래 조정은 조정혜 조현애 조현숙 조현연 주영단 주우순 주인공 주현순 지경애 지묘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유미 지인희 지청인 진진임 진경상 진경수 진광현 진병훈 진영호 진은경 진정희 진혜숙 진현주 진희정 차동욱 차명숙 차원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복연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철주교도소 최경근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금철 최민례 최명희최범순 최병연 최병호 최복순 최복희 최상철 최서은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최심향 최영도 최영명 최영복 최영숙 최영자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경 최정근 최정기 최정분 최정민 최정희 최주현 최하구 최해희 최현순 최형기 최혜숙 최혜자 최혜정 최혜진 최호자 최호자 최희원 추월희 충남대교수 태국지원 표희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남 하선희 하성호 하순애 하순임 하은영 하정희 하혜용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봉사 한기석 한미음사랑빙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근 한병조 한상희 한순예 한순자 한승천 한아름 한양지 한영옥 한영진 한임분 한정석 한정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정 함광정 함기석 함명익 함상수 함영숙 합장숙 항지윤 해명희 허상임 허석님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외숙 허재승 허재영 허정남 허정순 허정희 허진우 허춘환 허진웅 허진우 허혜연 허희숙 현봉희 현수천 현원스님 현추월 혜원당 호스희 홍경욱 홍기창 홍명숙 홍민지 홍병숙 홍소은 홍순아홍순영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황경숙 황금철 황기홍 황명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욱 황행영 황태숙 회복내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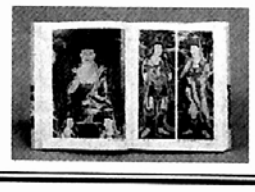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몸 따르면 노예 자성 따르면 자유인

우리가 항상 마음공부를 하고 가고 또 이끌어 간다고는 하나 근본의 모든 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 가는 날만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급하고 또 급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 만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개가 땅에 떨어지고 땅을 한없이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안하고, 이렇게 가는 이 모두, 삼천대천세계의 우리 마음들이 말입니다. 이 중세계라는 것은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퀴에 안 찢기고 피가 안 난다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픔을 당하면서 마찰이 돼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만이 우리가 리드가 되면서 또 지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생사를 두고 그 가운데를 볼 때에 참 혹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법망

이런 거를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십 년 만에 한번씩은 초파일이 닥치면 초 칠일이 되면 관찰을 합니다. 어디서 관찰을 하느냐. 이 지구에도 법망이 있고 북극에도 법망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법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러겠지만 이 법망을 좇아서 다 알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왕천 이렇게 하죠. 사왕천 이러는 거는 사는 빼놓고 즉 말하자면 숫자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사왕천 하면 동서가 되죠. 사왕천을 한데 합치면은 원식이 되고 이것이 여러 마디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 원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사왕천이 관찰을 한다 이러는 거는 바로 원식천에서 관찰을 한다, 관찰을 해서 어디로 속해 가느냐. 그것은 즉 말하자면 이 지구의 법망을 좇아서 북극으로 아예 법망이, 법이 통한단 말입니다. 북극으로 통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즉 북두칠성으로,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으로 가면은 은하계로 돌아서 우주까지 이렇게, 얼른 말하자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그것은 누가 다루느냐, 지금 현실에 법관이 있죠. 현실 법에도 검사가 판단을 하듯이 33천에 부처님께서 검증을 한다. 33천의 보살들이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삼십 년만큼 한번씩 있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추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의 몸을 받아 가지고 살며 끌려 다니면서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벗어나서 큰 에너지의 모습으로 화할 때 아픈 것도 모르고 또는 자기가 자유스럽고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엔 없죠. 이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하나 하나가 다 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시켜달라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공도 있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벌써, 내 마음에서 알게 되면은 전체 세포에서 다 알게 되죠. 세포에서 알게 되면 세포로 통하는 데로 다 들어가게 돼있어요. 사왕천으로 다 들어가게 돼있죠. 사왕천이라는 거는 이 지구의 법망입니다. 지구도 법망이 있죠. 지구의 법망에서 직접적으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왜 북극을 통하느냐 하면 바다도 북극에서 다 관리가 돼있으니깐 말입니다.

바다의 법망, 법도 역시 북극에 상응이 돼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올라가니깐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쓰지 않아도 한 생 살고, 악하게 써도 한 생 사는 것이니 좀 좋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스럽게 마음을 쓰라고 사람으로 내놨는데 사람이라면 마음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을 참지 못하고. 나오면 안에서 좀 제압을 해서 참고 생각을 해서 던지는 게 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게 한 생각이고 그냥 생각나오는 대로 욕하고 내뱉고 화내고 이러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해야 옳을지 울어가면서 해야 옳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모두 보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고 위로 올라가고 하천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매일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 자성이 자기를 관찰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몸뚱이에 끌려 다니지 마세요. 몸뚱이에 끌려 다니면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성에 끌려 다니면 바로 충성이 됩니다. 이거는 자기 몸뚱이에 평생을 끌려 다니다가 버리고 가요. 몸뚱이에 다 충성하다 보면 애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바로 내 종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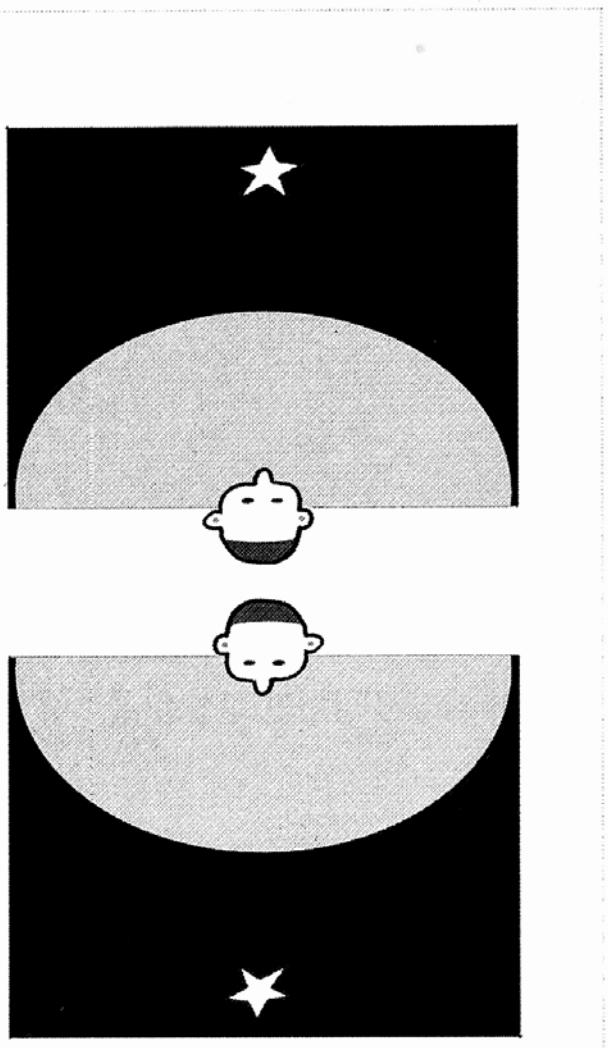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나 날더러 이상한 소리한다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와야겠다 들어 가야겠다가 없느니라.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다. 지금 그냥 한 가정에서 모두 그저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걱정, 공부를 못해도 걱정, 아프다고 걱정, 그냥 뭐 걱정 투성이죠. 그런데 그게 본래 이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속썩이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착을 두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살고 산같이 묵묵히 살고 바람같이 살아라 이거죠.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람같이 살고 있어요. 공해서요. 하나나 그냥 있는 게 있나요 어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 가면 저기 가야하고, 항상 말하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여보 하면 남편노릇하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해야 하고 헝 하면 헝 노릇하고 이건 고정되게 그냥 놔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한 게 뭐가 공했느냐. 이거 의심을 할 수도 없죠. 그냥 공해서 나투면서 화해서, 공해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이렇게 화하니까 그냥 그걸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이러지도 말아야죠. 그걸 알면, 아, 사람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잖아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허허허.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 틈틈이 벌레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장육부에도 넣고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있어요. 하나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연들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한생에 알고 넘어 갈려면 오직 그렇게 그냥 미치도록 열이 나도록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늘이 무너진다 한다면, 토끼가 상수리가 떨어져서 막 달아나다가 뛰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하늘이 무너지든지 상수리가 떨어지든지 돌멩이가 떨어지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죽는 거는 마찬가진데. 그래서 처형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내 몸에서 벗어났구나 이러고 웃더래요. 하하. 그 안에서 아마 그냥 통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복으로 믿는 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그림자 내 형체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 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몸을 종으로 알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거죠.

아프면 만져주고 약도 사다 먹이고 얼마나 사랑해요. 일생을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보다도 더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하고 노예가 되지 마라 이 소리죠. 정말 눈물나는 일이죠. 나를 따라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몸이 아프면 되겠니 하면서 만져주는 그 알뜰한 사랑 그거면 고만이지 거기 노예가 돼서 좇아 다녀서는 절대로 안되죠.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 내가 이런 말을 꼭 한마디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천도재를 지냅니다. 천도재를 지내는 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도재를 금방 지내야 할 조상님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이 자기 자식을 좀 자식으로 알고 죽었으면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천도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하라고만 일러주죠. 관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돈 생기면 해드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돈 빌려다가 천도재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고통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빌려다가 해서 그걸 갚지 못하고 애통지탄하면은 그 조상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천도재를 하지 마

☞ 20면으로 계속

'한 생각' 좋게 돌리면 '보살'

마구 욕 내뱉고 화내면 '중생'

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자성신의 종이다. 종으로 생각해야지 좀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아프면 낫게 할 수도 있고 언짢으면 좋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끌려 다니지 말라 이 소리니다. 좀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권리가 있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죽었을 때 보면 거적을 쓰고 죽은 놈이나 좋은 관속에 들어가서 죽은 놈이나 죽은 건 똑 같습디다. 그 애절한 거는 똑 같아요. 모습이야 없어지면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면 그 뿐이지만은 마음의 근본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도 벗어나야 한다. 노예로 내 몸에 끄달리지 않으면 바로 그 몸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학으로 잘 배우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떠들떠들 하더라도 진실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글이 좋은 사람이라면 거짓말도 거기 보태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아닌 말도 할 게 너무 많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면은 호흡이 제대로 안되면 산소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보다도 더 강한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그 수소로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나하는 생각들은 안하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만이 해결이 잘 되나, 이 중세계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증발해야 되요. 우리가 전부 증발을 하든지 불국토가 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철 사는 거 마구 살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마구 살아선 안된다. 이 모습이 몇 알갱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찰한다, 사왕천에서 관찰을 해서 또는 원심천으로 가게 되면은 삼십 삼천이 모두 검증을 해야 하고 모두 검증을 해서 북극성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다른 혹성으로 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를 관리하는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생명을 관리해요. 그러구 은하계의 별성들은 우리 마음의 근본과 같이 상응이 돼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리하게 자유스럽게 사는 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앞길만 보고 가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지구가 큰 덩어리의 집이라고 하지만 지구가 어떻게 생겼든지 우리가 겉으로만 알지 속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모르고, 이거 보세요. 내 몸뚱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못 가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스님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왈가왈부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옆도 보지말고 그냥 자기 길만 뚜벅뚜벅 가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깨우치면 한 찰나이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집 속을 모르니까 나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얘긴 해서 뭘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해서 잘 하면은 내 집 내용도 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떠한 요소가 결부 돼서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돼서 지구가 움죽거리고 있을까. 때로는 북극성이 남극성이 되고 남극이 북이 되고 북극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들 생각해 보셨어요? 즉 북극성이 북극성대로 그냥 있지 않고 남극이 남극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남극이 북으로 됐다가 북이 남극으로 됐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 마디 했다 하면 벌써 일초전이 과거예요. 일초 후가 미래고. 지금 말하는 요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그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떠한 거를 글자로 꼭 집어서 요건 요렇다 써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요렇게 생겼다고 써놓을 수도 없는 거죠. 변경을 시켜서 자꾸 그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도 살아가면서, 보세요. 애 적 다르고 조금 자라서 상황이 다르고 조금 더 자라서 상황이 다르고 조금 젊어서 상황이 다르고 아주 늙어지면 또 다르고 더 아주 늙어지면 더 달라지고 아예 죽어버리고. 그런데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극치적으로 내가 이젠 죽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하고 있을 때에 껄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웃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하등, 내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인간 중에도 정말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 진짜 인간이 된 인간. 인간에서도 더 차원이 올라가서 정말 인간. 관찰을 하면 다 알게 돼요. 솔살피 나오게 돼있거든. 내가 아니다 기다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럼 등수가 매겨지게 돼. 차례 차례로. 차원대로 등수가 돼있거든요.

내몸은 없어지면 4대로 화하나 마음 근본은 없어질 수 없는 종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래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냥 넓은 곳에 촛불이 꽉 차게 켜져 있더랍니다. 근데 거길 구경하러 들어가니까 가느다란 촛불에다가 켜진 거 굵은데다가 켜진 촛불 또 다 닳은 촛불이 늘비하더랍니다. 그래서 상세히 물어 봤대요. 이 초는 어째서 가늡니까. 너희들 마음이 가느니까 가늘지, 이건 아주 마음이 가난해서 몸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 촛불은 왜 이렇게 다 닳았습니까. 이제 들어올 때가 돼서. 굵은 촛불을 물어보니까 이 굵은 촛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生이 없기에 死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촛불을 은하계의 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가상사리로는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있어요. 중간쯤 되면은 좀 괜찮죠. 가운데쯤으로 들어가면 커요. 더 가운데로 가면 더 큰 별이 돼있고요. 군데군데 가상사리로 희어진 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많죠. 그리고 은하계도 다 다르죠. 은하계도 생명들이 많은 은하계들은 크고 생명들이 적은 은하계들은 적고 또 축생의 생명들이 있는 은하계들은 또 다르고 은하계도 뭐 이루지 못할 은하계들이 많지만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다 생명들이 살려면, 내가 그래요. 살려면 태양도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누가 거저 만들니까. 태양도 태양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이 있구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깐 팽창도 되지 않고 타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생명체가 있으니까 달도 있는 거고 해나 달이나 동시에 돼있다고 할 수밖엔 없죠. 그럼 우리 지구에만 그렇게 있느냐. 지구에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는 게 있고 차면 찬대로 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고 답이 있고 태양을 만들어서 쓰죠. 캄캄하면 전기하나 더 만들면 환하듯이 그런 역할밖에 안돼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관하고 열심히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록에 태양도 알고 다 알아요.

그냥 에너지 자체가 우리 산 사람과 같으니까요. 에너지 자체가. 수소자체라든가 헬륨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살아있는 우리네 마음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은 해가 될 수가 없죠. 결부가 되니깐 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는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야 만이 보석으로,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로 된 인간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사는 에너지, 에너지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물 컵이 됐다가도 에너지로 되고 에너지가 됐다가도 사람으로 되고 사람으로 됐다가도 이걸로 되고 저걸로 되고 자유스러운데 뭐이 걱정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상하다고 그럴테죠.

'나'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

☞ 19면에서 계속

라 이거죠. 누구든지! 그러고 돈이 아주 없고 생길 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돈이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스님네들이 마음을 내서 관하기만 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냥 해줘라 이겁니다. 이것이 근본,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보살이 하는 일이죠.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지어놓은 보살은 산하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을 키워내고 살려내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머리에 요만한 부처님을 이고 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불종자, 즉 말하자면 종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다, 하늘이다 이겁니다. 하늘, 관세음, 땅, 땅에서 일체

사랑하되 집착 말라

만물만생을 길러내라, 돌봐라, 이런 책임을 가진 거지. 누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죠. 그러고 남자는 남자대로 있는 것만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그 찰나찰나 화하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 그냥 화해서 자꾸자꾸 딴 걸로다가 화하지만은 공부 못하는 우리네들 보면 죽으면은 남자가 여자로 다 됐다가 여자가 남자로 됐다가 또 축생으로도 되고 이러는데 뭐 한 생 남자로 되고 여자로 되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예전부터 아주 그런 게 있거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늑대가 다니고 여우가 다니고 그랬어. 그렇지만 먹을 테면 먹고 허, 맘대로 해라. 딱 그 걸 뭐라고 말을 할까. 지금도 그래. 그런 거 딱 한가지 있어. 가리지 않는 거. 죽음을 가리지 않는 거. 나 죽는 거를 가리지 않고 버린다면 아무 것도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이거 된다 저거 된다 할 것도 없고 이거 되게 해주쇼 할 것도 없어. 잘살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고 잘 먹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축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죄라면 한가지 모르는 게 죄구나, 달리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항상 껍데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구르고 또 구르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스님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도들도 벗어나지 못해. 신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불쌍함을 어떡하냐구.

조금 자라면은 잡혀 먹히지만은 삼분의 일은 사는 걸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 쉴 사이 없이 지구가 돌아가고 그러는 것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돌아가는 거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와짝 벗어버릴래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벗어나서 남도 전부 살릴 수 있고 나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산 사람들이 로켓를 쏴서 명왕성으로 쏴도 명왕성에 들어가지도 못해. 다른 혹성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어떻게 하고 지내는 집인지 그것도 모르잖어. 그러니 우리는 벗어나는 수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십 년 만큼씩 관찰을 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이 문패도 없고 번지수도 없는 데를 잘 찾아다니고 잘 보고 또 거침없이 찰나찰나 드나들 수 있나. 그래서는 탁탁 그 위서 쓰이게끔 돼 있거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은 많이 정말이지 불국토가 돼서 사람으로 살던 형상이 그대로 준수하게 빠지는 거죠. 예전에는 생물들이 모두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형태를 몰라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보고서 어떻게 하고 사나 어떻게 생겼나 그거 보느라고 우리 집을 구경도 오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그러고 정신력을 모두 검증을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십리 안팎에서도 십리 안팎이 뭐야. 천리 안팎에서도 정신계로 다 알고 있어. 법망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있어도 누구누구를 다 알고 있다고. 콩나물같이 들어선 인생들을 어떻게 다 아느냐구. 그래서 화엄경에도 그랬잖습니까. 차례차례 소리를 했더라. 지금 같으면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모두가 생각하면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뼈아픈 눈물이, 말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로 할 수 없는 뼈아픈 눈물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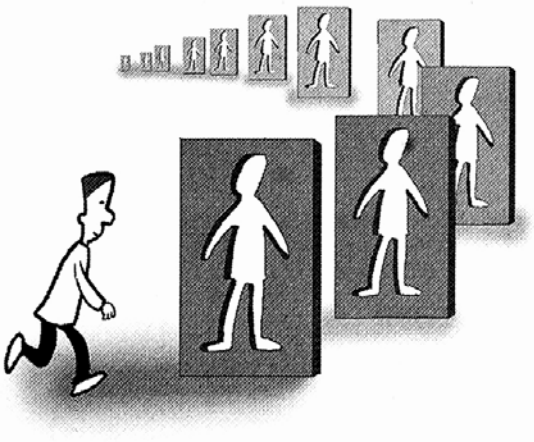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착 두지 말고 물 · 바람같이 자유롭게 살라

자기가 앞장서 날뛰면 주인은 물러서 버려

부처가 되고 깨달으면 아주 화려하고 좋을 것 같다구.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밑에서부터 살아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쌍해서 스스로 건지려고 애쓰는 게 당연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어야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지. 뼈아픈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거죠.

윤회의 바퀴 벗어나라

▲질문자1 (한스묘 : 혜진스님 통역) : 어떤 말로 지금 제 마음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사의 회향을 독일지원을 대표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를린 의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공부를 만나게 된 거는 일년 전부터이고, 독일지원을 만나게 된 일년 전의 그 깊은 감사가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이번에 독일 대법회에 여러 가지 독일어로 된 책을 출판하는 관계 그리고 독일 대법회 준비 차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날 난 모리츠라는 저의 아들이 독일 모든 가족들에게 포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관하고부터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해졌고 그리고 스님을 친견한 후 다섯 살 난 모리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앞에 친견을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는 로프트, 공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님 앞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건 마치 천국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 마음이더라고 다섯 살 난 아들이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성껏 독일 대법회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오직 정성일념으로 스님 오시는 7월 대법회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마음세계를 저희들은 아직 근기가 낮아서 공부한 지가 얼마 안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 깊은 내면에서 7월 31일 대법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은 외적인 물질세계에 굉장히 부자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독일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참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7월 31일 독일 대법회에 이런 많은 방황하는 유럽의 영혼들이 독일의 정신적인 고갈상태의 그 많은 영혼들이 스님의 대 법력속에 마음의 참된 광명의 길로 들어서기를 발원하면서 저희들 마음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일체를 둘로 보지 말자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두 번 째 가는 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유태인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까 해요.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겉으로 빙빙 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또 마음 내주실 거고요. (대중박수) 감사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하하하….

▲질문자2 :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온 우주공간과 허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가득하며 그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한마음 내는 대로 얼마든지 끌어쓸 수 있다라는 묘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가르침에 따라 허공의 에너지를 현실의 물질에너지로 바꿔 대구지원의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는 방편으로 권선문을 갖고 나툼의 자리인 일체의 제불자리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바른 심부름이 될 수 있을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지원 곳곳마다 불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몸뚱이 종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인이 하는 거죠. 몸뚱이 종이 할려면은 그건 아마 어려울겁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지만 주인이 한다. 주인이 하는데 종은 그저 부지런히 보필을 하라 이거죠. 그러고 한사람이 먹을 거라면 한공기 물이 나와요. 한사람 먹을 거니까 한 공기밖에 안나오죠. 근데 두 사람이 먹을 거라면 두 공기가 나올 거고 세 사람이 먹을 거라면 세 공기가 나올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주는 것도 모르고 오직 주인이 하는 거니까 주인이 없으면 어련히 갖다가 할라구.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지, 나도 여기 지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김장할 때 바가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짓는 거지 어떻게 지어지느냐, 어떻게 지어야 이렇게 되느냐 할 것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지 뭐가 다른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 모두 살림을 하는데도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자기 주인이 살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다는 거야.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날뛰니까 주인은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죠. 하하하. 무슨 소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망쳐놓는데도 많았죠. 그르쳐놓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일들을 하는데 그거 전부 살아있는 생명들이야. 그래 돌로 보지 말라 이거지. 하다 못해 기계들도 돌로 보지 말라 이거야. 만약에 에너지와 에너지끼리 사랑을 한다면 말이야. 그 에너지로만 변동 없이 고정되게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변화가 무수하다면 정말 사랑을 하고 이걸로도 됐다가 저걸로도 됐다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이지 영원한 사랑이야.

그렇듯이 그 모두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고 믿어요. 자기 자성을 말이야. 자기 몸뚱이는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바뀌지만 자기 자성은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 믿을 거는 그 놈밖엔 없어요. 그놈만 좇아서 올라가면 돼. 그리고 대구지원 짓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만약에 시자가 그걸 믿지 못하고 못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믿는다면 믿게끔 돼 돌아가는 거고. 그래 나는 지원에 모두 불사를 하는데도 아무 걱정 없어. 그게 오히려 공부니까. 공부로 던져놓으니까, 뭐 내가 절 지을려고 이 세상에 나왔나.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거든. 어떡하든지 거짓하지 말고 권선문 써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예전부터 권선문 써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는 싫어했거든. 부처님이 계시면 지을 거고 없으면 못 지을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해라. 너희들 마음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내 말이 편안한 말이죠. 하하하… 걱정할 거 뭐 있어. 그래 내 말이 그거야.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거고 안 계시다면 못할 거고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야.

모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좀 샛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질문도 많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9년 5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0% 순수 토종 오가피
학명ACANTHOPANAX(아칸토파낙스) :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久服卽, 經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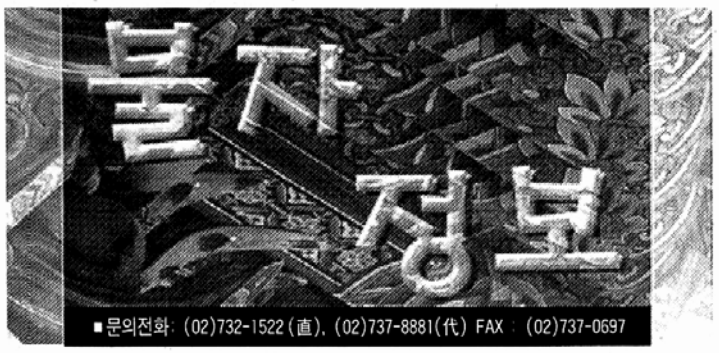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100% 순수 토종오가피를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진실하게 공급합니다.
허위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00% 토종진품(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 토종오가피 국내최대용량 110ml × 60포 (한박스)
■ 농장직영 국내최저가격 ₩150,000 (한달분)
서북토종오가피 농장 직영
오가피건강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080-700-5700 02)444-4194
※ 100% 순수토종오가피는 귀하의 모든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3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 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라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법왕사 행자(男)모집
◆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21세 전후 환영
문 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 초빙』
■ 대한불교 조계종 미륵사에서는 신심있는 불제자로써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취득년도 1998~2001년 사이 【비구, 비구니스님 특별히 환영】
■ 본 미륵사에서는 불교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젊은 한의사 불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 륵 사 청운 합장
053)651-9363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썩은나무)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한방 다이어트로 살과의 전쟁 쉽게 끝낸다
모든 문제성 비만 고민 주저말고 어서 전화주십시요.
① 파리형으로 된 초간편 한방 다이어트로 해결해드립니다.
② 여기저기 아프고 체질적으로 살이찌십니까?
③ 오가피와 한방다이어트로 해결해 드립니다.
080-700-5700
02)444-4194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 진정한 대장부의 길 (※ 미혼, 고졸이상 만 40세까지)
행자모집 (남)
▫ 시설완비한 행자원의 독립운영 및 자율존중
▫ 전통적 수행을 통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바루공양)
▫ 스님이 되면 모든 공부와 포교의 충분한 뒷바라지
▫ 본 사찰의 전 강의를 들으며 주지이신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의 직접 지도
(※ 여행자는 본 사찰의 분원인 법도의 수행관에서 공부함 - 또는 위탁교육)
행자원 011)506-2702 T.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kr
도심속의 대기림, 5만명의 학생 및 신도 포교와 수행의 새지평을 열고 있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벽조목(霹棗木)뿌리
◎ 수령 약 600년 탁징용으로 수가공 함
◎ 도굴 불사에 악간의 도움을 주시면 양도코저 함
◎ 진귀한 영험있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054-383-8553
011-813-3679 지장암

녹차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국산 발효차 판매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화개)

공양주보살님,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2)877-7514

행자, 공양주 모집
· 신심깊은 공양주 모십니다
· 수행 정진 출가 행자 모집(만 40세 미만)
051)413-6266
051)418-1752

산사에서 기도하실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조계종 사미, 비구스님
054)273-0108
016)811-0118

《주지스님 급구》
학식과 법력 갖춘 분 (40세~60세)
▷ H.P 011)524-6185
▷야간 054) 247-1206
▷위치 : 경북 포항근교

행자모집
위치 : 전라남도
모집인원 : ○○명
학력 :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연령 : 40세 미만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암
061)685-5633

조용한 기도처에서 기도하실 분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대
033)661-587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충 남
041)337-4350

여종무원 구함
▷ 나주 불회사
061)337-344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천안 영락사
011)289-1635
041)584-667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60세 미만
061)337-3440

위치 좋은 곳 포교운 하실 분
• 위치:부산 광역시 북구 심만덕
• 3층건물의 3층
• 평수 : 40평 옥상사용가능,
• 구조 : 법당 방 2개 주방,욕실
• 보증금 : 2,000만원 월 30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5)852-9202

암자에서 같이 생활하며 평생 사실분 좋습니다.
▷ 50~60세
031)582-063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한라산 영실 정멸 보궁
011)696-850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전철역에서 5분거리 사찰 뒤 산
• 대지 : 73평,
• 건물 : 가건물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6천
011)877-9009

- 포교당 안내 -
• 위치: 부산 사상구
• 평수 : 60평 3층 건물 3층
• 가액 : 2천만, 월 35만원
- 암자자리 안내 -
• 위치: 경주시 산내
• 평수 : 875평 건물 2동 85평
• 가액 : 1억 9천 오백만원
051)208-9966
011)551-17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자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임법당, 방 3, 화장실 2개, 창고 1, 미당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명당, 전망좋은 뒤는 산,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5백 (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랑(옴 소재지)
• 부지 : 830평, 5층탑, 3층탑, 연못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씩, 각각 3채 산신각 종각 미륵부처님 지장전
• 가액 : 상담 후 결정
• 특징 : 기차역이 걸어서 5분거리 터미널 걸어서 3분거리 마당까지 차가 들어옴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법 당 : 24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300평
• 가 액 : 3억 2천
• 위 치 : 용인
• 법 당 : 34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450평
• 가 액 : 3억 7천
• 위 치 : 성남 분당
• 부 지 : 920평 차량진입가 도심 근접하면서 조용한 사찰 도량 임
•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3프,5프, 금단청필)
• 요사: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지급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71/018) 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동 545 팔봉산 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 건너편 대로변에서 300m 지점
• 건평 32평(방 3, 법당 1)
• 대지 : 100평
• 가액 : 8,000만원(가격절충 可)
054)975-7933
011)9596-0130
성불사 (기존사찰스님직접운영)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 평수 : 40평
• 특징 : 법당, 삼존불 일체설 완비 에어컨 있음 주방 주지실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5만원 권리금 상담 후 절충
032)512-5088
011)732-8616

포교당 안내
• 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로타리 시장 내 2층
• 평수 32평 큰방1(법당사용가능) 작은방 1(살림가능) 주방 큰홀 앞미당 화장실 목욕탕 보일러 설치
• 시설비 없이 천만원 월 70만원
• 희망자 : 포교당이나 역술인
016)293-1705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가격조정가능)
• 임야,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산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대구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1층 종무소 (30평) 2층 종무소 (30평) 3층 법 당 (30평) 4층 요 사 (30평)
※ 도심소재 포교건물로 건축함
• 양도가 : 3억(융자있음)
• 위 치 : 충남 금산소재 토굴
• 대 지 : 100평
• 법당 겸 요사채 : 벽간 벽돌로 건축한 건물 1동(30평)
※ 텃밭 있으며 수행토굴로 이주 좋음. 역사 10년
• 양도가 : 8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 지 : 4,3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명부전 : 25평
※ 산세 좋으며 기도 수행 정진 도량 임
• 양도가 : 2억 (대출가능)
• 위 치 : 충북 증평 소재
• 부 지 : 4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2동)
※ 교통의 요지이며, 국보급 문화재가 있음
• 양도가 : 3억 2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토 굴 안 내
◎ 경북 군위 인각사 부근
◎ 대지 170평 황토집 2채
◎ 인법당 노천석불 모두 수리
◎ 가액 3200만원 조성원가 이하 땅은 공짜 마을 인접 비구니스님적합
◎ 특징 : 인근 통일 신라 대가람터 여름피서지 신도확보 용의
054-383-8553/011-813-3679

포교원(급)안내
• 법당 : 15평
• 요사채, 방3개(각각 4평씩)
• 삼존불 지장불 관음108불
• 보증금 :無 연 300백만원
• 가액 : 2천만원
052)221-2292
011)544-2191
울산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 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150평
• 법당 10평 요사 2동 주차장
• 가액 : 6천 5백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부지 : 50평
• 법당 : 24평 • 요사 : 24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 부지 : 5,800평
• 법당 : 40평(정통법당, 목조, 단청)
• 요사 3동 80평(목조, 기와, 단청)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납골당 및 영탑 분양 할 수있음
좋은인연됩시다 02)326-1060
동진불사 053)964-0455
전국 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8)689-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2층 42평, 즉시법회가능
• 전세 :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429-0222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등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주령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33)778-2101/018)533-77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요사 : 20평
• 법당 : 18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1)9545-7444

임 법 당
• 위치 : 경북 칠곡 팔공산하
• 구조 : 방 3, 욕실, 화장실, 창고 (기름, 연탄 겸용 보일러)
• 세금 : 보증금無 1년 150만
• 탱화일체, 연, 서적, 생활도구, 불기
• 가액 : 일천만원(승용차무료보시포함)
054)976-2248
(오전 11시이후 전화요)
※ 행자모집 ※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충주시내 번화가)
• 평수 : 77평
• 건물 : 법당 24평, 약사여래 부처님 사무실 2개, 주방 화장실 1개 숙식가능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043)856-8856
011)485-88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 대지 : 500평, 답 : 1,150평,
• 대웅전 : 30평
• 지장전 : 20평, 요사채 :40평
• 가액 : 5억 8천만원
• 특징 : 1)지장기도 영험도량 2) 자연 경관 수려 3)경내석조불 및 조경등 여법하게 장엄하였음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40평, 산신탱화, 방 2개, 부엌 1개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8)416-5489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 법당 : 20평
•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 욕실2, 법당 단청했음미륵부처님 모셨음,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 3억 5천 만나서 결정 영엄한 기도 도량
031)952-7905

익산련 회장에 듣는다

"시민·환경운동 적극 참여"

익산사암련 지광스님



"자비와 나눔을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불교, 함께 하는 불교가 될 때 지역포교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익산사암연합회는(회장 지광, 숭림사주지 사진) 15일 익산지역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0kg들이 백미 80가마를 익산시청에 기탁했다.



◇익산사암련은 15일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을 위해 백미 80가마를 익산시청에 전달했다.

불우이웃에 백미 80가마 전달

법사제 시행 군·청년 포교 앞장

지광스님은 "이번에 마련한 백미는 지난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일부 축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며 "사암련은 올해 봉축행사를 준비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결제능력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의견을 모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가 가장 강하다는 익산에서 93년 창립된 익산사암연합회에 소속된 사암은 50여개이다.

익산사암련은 올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찰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계층포교 활성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의 지도적 위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 차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회장 지광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은 말했다.

청년불자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스님 법사제를 실시하여 지역 청년회와 대불련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군부대 정기 법회 및 위문행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 장병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역 경실련 등 시민활동에 사암련 스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단체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 미륵사지석탑 앞 아파트 및 골프장 건설문제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있다. 익산사암련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팜플랫을 빠른시일내 제작하여 지역 문화재 지킴이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리산 살리기 도보순례 8백50리 대장정 회향

"생명 평화·민족화해 한뜻 염원"

골프장 반대·위령제도

생명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의 850리 대장정이 18일 회향됐다.

30명의 순례단이 참가한 가운데 16일간 지리산 일대와 산청 하동 구례를 돌아 남원에 도착한 순례단은 18일 실상사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지역과 종교, 이념의 벽을 허물고 민족화합과 지리산 보전을 위한 생명살리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도보순례단의 850리 대장정 회향식이 18일 남원실상사에서 개최됐다.

회향식에서 단장 수경스님은 "지리산 850리를 돌아보니 더욱 지리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리산 살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자연파괴 반대운동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지리산 순례단은 이에 앞서 남원시 운봉면 가장리에 추진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도보순례단은 성명을 통해 "지리산 골프장 건설은 지리산을 개발해 자연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지리산은 지리산으로 그냥 놔두라"고 촉구했다.

16일간 순례단에 참여했던 안준환씨(남원시 운봉면, 농민)는 "지리산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지리산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길임을 알았다. 순례하는 내내 지리산이 6·25당시 좌우대립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26일 지리산 달궁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등 종교인과 시민 이 참석한 가운데, 좌우대립으로 희생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부시대통령 만나

美 티베트 지지 의사 표명

3주간 일정으로 미국내 8개 도시를 순회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23일 백악관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회담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운동에 공감을 나타내고 아울러 중국정부와 대화하려는 달라이라마의 끊임없는 노력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를 진전시키고 중국정부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사적인 만남이었다"며 "부시대통령이 매우 진지하고 인간적이었으며 따뜻하게 환영해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참회하면 새삶 열려"

전주교도소 특별법회

전주교도소 특별대법회 및 참회문 발표회가 17일 승천(일광사 주지) 원경(연화사 주지)스님, 이원일 법사(금산사 사무국장)를 비롯하여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별대법회에서 승천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간은 지구와 같이 윤회한다. 그런 만큼 죄의 업장을 언제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참회문 발표회에는 이태호 불자 등 6명의 재소자가 '부처님의 진리로 새 삶을 열기까지' '보고싶은 어머님께' 등의 참회문을 발표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봉선사 기우제 봉행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면)는 25일 조실 월운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등 전국의 극심한 가뭄 극복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봉행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올해말 개금불사를 통해 새황금가사를 입게되는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주지 석지)의 청동미륵대불의 개금불사가 한창이다.

총 12억원이 투입돼 년말에 완료되는 개금불사를 통해 새 황금가사를 입게 되는 청동미륵대불은 높이가 12층 아파트와 같은 33m, 무게가 점보비행기와 맞먹는 1백60t으로 청동입상(立像)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그러나 용접 부위에 부식이 진행되면서 얼룩진 외관 때문에 불상으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자 법주사는 개금불사를 추진하게 됐다. 법주사는 불사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43)263-1225 보은=김중근 기자

복지보건대 봉사단 발대

불교복지보건대학이 25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졸업생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불심봉사단을 발족했다. 봉사단은 명예학장인 성오스님을 단장으로 하고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을 이사로 영입, 보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불교복지보건대학 졸업생들은 기존 병원, 복지관 등에서 펼쳐오던 봉사활동 외에 가정 간병 봉사, 개인 간병봉사 등에 까지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천미희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청소년 모악축제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0일 금산사 숲속 특별무대에서 청소년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청소년 모악축제(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모악축제에서는 금산사 개산 1400주년기념관에서 백일장및 사생대회가 열렸으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주최로 사물놀이와 댄싱경연대회도 개최됐다.

도영스님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태종

6월3일 순국선열 천도재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일 오전 11시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오전 10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11시부터 서초구 및 강남구내 전몰 군경 및 순국선열, 서울 경찰청 소속 순직 경찰관 등 3천여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천도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02)3460-5300

진각종

복지재단 대표 효암원장



효암 통리원장(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사회법인 진각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 장지현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서리)으로 보직 임명됐다.

총화종

천안 만경사 천불전 낙성

천안 만경사(주지 청해)는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야옹(원로원장)·동광(종정)·남정(총무원장) 스님의 증명하에 천불전 낙성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41)522-3895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衲 西翁謹書

■ 추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상륜스님


◇상덕스님


◇능인스님


◇경륜스님


◇각우스님


◇능광스님


◇자혜스님

비구니 스님들 '복지 맹활약'

섬세함 -전문지식 등 두루 갖춰 지도자상 받고 우수시설 평가도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살행을 펼쳐오던 비구니 스님들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를 맡아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이 21일 서울시로부터 제23회 서울청소년지도자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18일 문을 연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 자혜스님이 선임됐다. 또 각우스님이 관장을 맡고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서울시 평가 최우수 복지관에 선정되는 등 수차례 우수복지시설에 선정되었으며,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원장에는 지난 3월 능광스님이 중책을 맡았다.

3년동안 활발한 지역복지 활동을 펼쳐 온 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은 지난해부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각각 1반씩 운영하면서, 일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바로서기 교실', 특수학급지도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대명소인 탑골공원에서 노인복지를 책임지게 될 자혜스님은 독일 총지사 주지를 역임하고 올해 중앙승가대 복지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에 임명돼 무료급식,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 어르신 자원봉사 및 정보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98년 서울시 1등급 복지관 선정, 99년 서울시 우수복지관 표창, 2000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 선정 등 모범적인 복지활동을 펼쳐온 삼전복지관장 각우스님은 200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정된 청소년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왕따 상담실(www.cyberwangdda.or.kr)'을 최근 개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승가대와 이화여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능광스님은 나눔의집 원장 및 위안부역사관 관장을 맡아, 법인사무국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을 투명화하는 등 전문화된 복지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6년동안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상륜스님,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인 목동청소년회관장 경륜스님, 국내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 1년만에 안착시킨 능인스님 등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성공적으로 복지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데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보태져 운영을 알차게 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불교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다, 비구니 스님들이 복지사업을 수행과 보시행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사 뒤편에 신축중인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오른쪽)이 사찰문화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삼성생명 수송사옥 사찰환경 피해우려" 조계사 건축시정 촉구

조계사가 조계사 뒤편에 신축중인 삼성생명 수송동 사옥이 사찰문화환경에 피해를 입힌다며 삼성생명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생명 사옥의 외벽을 빛의 반사가 없는 재질로 외장을 해야 하며, △특히 뾰족한 각을 이룬 15층 16층 돌출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삼성생명 사옥의 조경이 전통 문화의 미를 갖춤으로써 문화벨트와 조화를 이루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2개층 축소는 고려하겠으며, 유리 외장은 반사율이 적은 유리로 교체하되 이를 전면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 일주문 내년봄 완공

건물매입등 진행 순조

조계사(주지 지홍)는 20일 해탈문 반대편 큰길가에서 조계사를 가리고 있는 건물을 20억원에 매입, 일주문을 세우기로 했다.

조계사는 세입자들이 나가는대로 시공에 들어가 내년 3~4월 경에 완공해 부처님 오신날과 월드컵 등 불자와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일주문의 건립을 시작으로 수송공원, 우정국 관광벨트와 연계된 불교문화회관 등을 세워 조계종 총본산의 위상에 걸맞는 외양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조계사는 그러나 공간사정 등으로 전통양식 그대로 천왕문, 해탈문을 줄지어 건립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영주 장애인 복지관 수탁

관장에 지현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지난 9일자로 경북 영주시에서 심의결정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체로 선정돼 23일 약정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모두 네 곳으로 늘어났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말사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영주시사암연합회에서 운영을 맡게 된 영주장애인복지관은 대지 1,078㎡ 건물 1,007㎡(305평)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사호교육실 강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관내 3,200여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장에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이 내정됐다.

한편 경북도 지역에는 상주 냉림복지관, 문경 모전복지관, 구미 금오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이 연계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범적인 복지관 네트워크 운영 사례가 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3일 김태복 소장의 예방을 받고 '명예회복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 "숲소장 명예회복 나서겠다"

불사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피소된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조계종 전국신도회도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난 4월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단체들에 이어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대스님은 23일 총무원을 방문한 김태복 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과 만나 군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김장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이번 사건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애써온 김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불교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인만큼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복 장군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교계에서 적극적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9일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된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대법원, 법무장관, 국무총리, 국방위원장, 국회, 불자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40여 종단 총무원장 등 모두 240여곳에 24일 발송했다. 한명우 기자

'흙의 마음 생명의 밥상'

부산정토회 3기 생태학교

부산정토회의 제3기 생태학교 '흙의 마음, 생명의 밥상'이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생태적 삶을 위한 먹거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 다가온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생태학교는 법륜스님, 최한실 푸른누리공동체대표, 문성희 들뫼 자연음식 연구소장, 장택희 박사, 박병상 생태환경연구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강의가 눈길을 끈다.

특히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삶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숙박교육과 육식문화, 인스턴트 음식, 유전자 조작 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체험 교육 등 현재의 먹거리의 문제점을 피부로 체험하고 그 대안들을 차근 차근 찾아 보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마련되어 있다.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되는 생태학교는 '생태적인 삶이 곧 생활속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열린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051)557-6372

부산=천미희 기자

장기기증 뇌사자 납골당 추진

복지부 법 개정안에 반영

장기기증 뇌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들만의 묘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21일 "한명의 뇌사자가 각종 장기를 제공하면 최대 9명까지 생명을 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예우가 없어 장기 기증 뇌사자의 묘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의 죽음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사회가 예우를 해야 한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묘역을 제공할 때 뇌사자 가족에게 소정의 장례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장기를 이식한 뇌사자는 1998년 1백62명,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68명이었으며 보상금 · 의료보호 혜택 등을 제공하되 묘지는 제공하지 않는 의사상자(義死傷者)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뇌사자에 대한 예우기준을 정할 방침. 복지부는 다음달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한국전쟁 영령위령제 강원 종단연합, 6월5일

제 6회 비목문화제가 가곡 비목(碑木)'의 발상지인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내달 3~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강원도 불교종단연합은 내달 5일 오전 11시 화천읍 붕어섬에서 '한국전쟁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제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제3 교구본사 신흥사와 제4 교구본사 월정사, 조계종 춘천승가회,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 천태종 강원도종무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괘불이운, 기원문 및 추모시 낭송, 천도의식, 방생 등으로 진행된다. (033)762-4848 김재경 기자

국고보조금 횡령방지 조사특위 구성 추진

참여불교 재가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3일 범어사 문화재 보수비 국고보조금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재가연대는 조계종과 중앙종회도 종무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국민 앞에 사과함과 동시에 종단 차원의 국고보조금 현황조사 및 공개와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재가연대는 대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재 국고보조금 및 관련 특별교부금의 지급과 사후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벌이고, 이웃종교 개혁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행동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부처의 참 모습을 본다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선사가 서구의 정신 문화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책.

숭산 선사 공안집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전세계에 사원과 선원을 개설하여 모든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의 길을 제시해온 숭산 선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365일 공안,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평창(評唱)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뚜렷이 깨닫게 한다.

하루에 한 편씩 읽는 365일 禪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숭산 선사 공안집
무심 편집

값 12,000원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E-mail : editor@hyeonamsa.com, 사이버 철학 카페 "소피의 세계" www.sophie.co.kr, 사이버 법정 www.i-solomon.co.kr, *전화주시면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불교개론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반야·유마경
이시다 이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구제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화엄경
다마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야합경 이야기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눈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그리스왕 미란타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열반경
다무라 요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죽음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벽암록
안동림 역주 / 값18,000원
뜨거운 여름, 함께 더워지기 쉬운 머리를 식히기에 딱 좋은 명상서.

붓다
무샤고지 사네아츠 지음 / 박경훈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행적을 생생하게 되살려 기록한 전기(傳記).

법구경
김달진 옮김 / 값9,800원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 값13,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불교성전
석혜운 옮김 / 값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법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섭 역주 / 값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어린이 팔만대장경(전3권)
신현득 지음 / 문영미 그림 / 각권값5,000원
팔만대장경의 본 생경에서 흠아 엮은 동화.

구름 걸린 등마루 풀밭은 '천상의 초원'



◇매봉 아래의 백두대간 능선을 지나는 취재팀. 광활한 풀밭이 천상의 초원인 양 드넓게 펼쳐진다.



◇운해에 빠진 백두대간. 노인봉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화면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능선 정상이 소황병산.

백두대간 속으로 〈35〉

대관령→노인봉→진고개

초여름 한낮은 물속같이 고요
대관령 범일스님 성황신 모셔

뻐꾸기 울음의 여운처럼 해 긴 윤사월이다. 팍팍한 봄 가뭄을 지나오면서도 피어날 것은 다 피어났다. 꽃 같던 신록도 녹음으로 바뀌어간다. 어느덧 여름의 문턱이다.

초여름 한낮의 산은 물 속 같다. 돌돌돌 흐르는 개울물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삭이며 흐르는 속깊은 강물 속 같다. 봄을 들어올리면 새싹들의 두런거림도 잦아들었고, 색색으로 피어난 들꽃들로 이제는 담담한 표정이다.

이맘때의 뻐꾸기 울음소리는 풍경소리 같다. 적막을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적막에 밀도를 더하는, 떨어지는 오동잎에서 님의 자취를 본 만해의 '침묵'과 같은 '소리'다. 그 소리를 따라 산에 든다. 표정을 조금 달리하긴 했어도, 조금도 낯설지 않은 여전한 산이다. 옷만 바꿔입어도 달라 보이는 사람 같지가 않다.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든 산은,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자 본모습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니, 보여주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친 다리를 옮겨 놓는 일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걷어오르지 않았어도 한참을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고갯마루, 대관령(832m)에 선다. 헤아려 보지 않고도 '아흔아홉 구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험준한 고개다. 영서와 영동이라는 지역 이름도 이 고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관동'이라는 말도 '이 고개의 동쪽이라는 말이겠다.

실로 대관령은 기후, 풍속, 언어 등 사람살이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대관령을 이렇게 적고 있다. "(강릉)부 서쪽 45리에 있으며, 이 고을(州)의 진산이다. 여진 지역인 장백산(백두산)에서 구불구불 비틀비틀 남쪽으로 뻗어내리면서 동해가를 차지한 것이 몇곳인지 모르나, 이 고개가 가장 높다. 산허리에 옆으로 뻗은 길이 아흔아홉 구비인데, 서쪽으로 서울과 통하는 큰 길이 있다. 부치(府治)에서 50리 거리이며 '대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관령의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우리 땅의 행국을 백두산에서 비롯된 산 줄기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백두대간을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다만 '가장 높다'는 기록상의 오류는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 탓이겠지만, 영동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주 통로였던 만큼 심리적으로 가장 높은 고개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대관령에서 대간의 등마루로 오르는 초입은 호젓한 산책로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능선에 올라서면 금새 황량한 분위기로 바뀐다. 키 큰 나무가 없는데다 등마루마저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철쭉꽃 만발한 때, 연분홍 꽃무리를 이룬 철쭉을 스치며 지나노라면 여기가 바로 천상의 화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산림청에서 인공조림한 분비나무와 전나무 식재지도 볼 수 있다. 지극한 정성이 보이는 만큼 멀지 않아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들머리를 지나 반 시간 남짓, 이제 완전히 대간의 품에 안겼다는 느낌이 들 즈음, '대관령국사성황사'를 지난다. 이례적으로 스님을 성황신으로 모신 곳이다. 산신당에는 김유신을 모셨고 성황사에는 범일 국사(810~889)를 모셨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굴산사에 40여 년간 머물며 사굴산파를 개산한 범일 국사가 성황신으로 받들어지는 게 조금은 의아하지만, 이 곳에서 구전되는 전설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우선 스님의 탄생 설화부터가 범상치 않다. 어머니가 샘물에 뜬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는 것이다. 늘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신으로 받들어 모시게 할 탄생의 드라마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도 난리가 났을 때 대관령에서 솥법을 써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쯤 되고 보면 누구라도 수호신으로 받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국사성황제를 지낸다. 넘치는 존경이 기껍지 않을 수 없다.

새봉 못미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는다. 산 안개가 자욱하다. 동해에서 솟아오른 해는 구름바다에 빠져 버렸다.

새봉에서 선자령, 곤신봉을 지나 매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등마루 서쪽은 천상의 초원을 이루고 있다. 비록 소의 먹이로 쓸 풀을 기르는 곳이지만, 거침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풀밭은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기에 충분하다. 흔히 볼 수 없는 이국적 정취와 동쪽 기슭의 원시에 가까운 숲이 이루는 묘한 대비도 독특한 풍광으로 다가온다. 공기 또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 왼쪽의 풀밭에서는 염기가 스멀스멀 오르고 오른쪽의 숲에서는 청량한 바람이 싱그롭다. 한 몸으로 동시에 두 계절을 맞는 듯한 즐거움도 각별하다.

가끔씩 구름이 발 아래 걸린다. 지나온 길도 가야 할 길도 다 지워진다. 하늘과 땅의 경계도 구름 속에 묻히고 만다. 이로써 백두대간의 등마루는 하늘로 오르는 길이 된다.

매봉(1173.4m)을 내려선 대간은 풀밭을 벗어나 이속한 숲으로 발길을 옮긴다. 숲은 물방울이 만져질 것 같은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비가 오려나? 숲은 몹시 예민해져 있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도 안개에 젖은 나무들이 후두둑 물기를 털어낸다. 그 몸짓을 따라 온방을 꽃 향기가 숲 가득 번진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방울 같은 작은 꽃에서 나는 향기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면서도 그윽하다. (산행 후 책을 찾아보니 '향수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이루는 숲길을 벗어나니 다시 하늘이 열린다. 소황병산(1173.4m)이다. 이곳 역시 삼양축산의 목초지다. 남서 방향에 이웃한 황병산은 군사시설물로 가득하다.

소황병산에서 노인봉 산장까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산장 조금 못미쳐서 전망대 바위를 만난다. 누워서 낙조를 감상하기에 딱 좋다.

노인봉 산장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노인봉을 오른다. 사방에 거칠 것이 없는데, 눈 아래로는 운해가 엎치락뒤치락 파도를 이루고 있다. 운해 너머로 오대산과 점봉산, 멀리 설악산까지 눈인사를 나눈다. 간간이 빗방울이 날린다. 촉촉히 젖은 진고개를 밟을 것 같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 이 함께 하겠습니다
봉행 금강경 독송100일 기도 대법회 입재 : 불기2543년 (음) 3월8일 회향 : (음) 7월21일 장소 : 삼각산 본원정사 TEL. 902-7337
봉행 생전예수재 기간:6월6일부터9월13일 (윤)4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봉축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날 범사면 기초질서 지키기 「선하자, 후승차」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총무처, 청룡업 742-8120
여름불교학교 기간:20001.7.30~8.10 수락산 도선사
봉행 선망부모 일체 영혼등의 천도를 위한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7.7제 수락산 도안사
대학입시 백일기도 입재: 월 일 회향: 월 일
자선암 연화정사 동암→ ←사현사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안내 및 부식판
차량출입금지
바리케이트
분리수거함
각종 현수막
서울전지역 설치가능 (※ 설치비 별도), 지방은 우편 발송 태영산업 공장직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취급 품목 : 리본, 어깨띠, 세계불교기, 법륜기, 감사패 등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함으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농협 계좌번호 : 053-02-124814 예금주 : 이태영
아외용 촛대꽂이
게시판
각종 목간판
태영산업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2-6번지
TEL : 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e-mail : lty64@korea.com 이 태 영 합장